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The Role of Neighborhood Online Community in Urban Regeneration

윤주선 Yoon, Zoo-Sun
박성남 Park, Seong-Nam
박석환 Park, Seok-Hwan

(a u r i

AURI-기본-2016-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The Role of Neighborhood Online Community in Urban Regeneration

지은이: 윤주선, 박성남, 박석환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6년 10월 28일, 발행: 2016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3,000원, ISBN: 979-11-5659-095-8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윤주선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박성남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Ⅰ 외부연구진	김태이 링크하우스 대표 정성빈 마이너스플러스100 대표

Ⅰ 연구심의회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연구자문위원	김명호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김보미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서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교육팀장 이근미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업팀장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추진단 추진단장

연구요약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도시계획 사업과 다수의 부문에서 특성이 상이하나, 그에 맞는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업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형 사업 “주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문화, 경제, 도시건축, 복지, 관광,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비상시적 협업을 주고받아야 하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인재 풀 한계로 사업 실행주체 발굴 및 연계가 어렵다. 다종다양한 사업 “주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체와의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야 하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주체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은 탓이다.

도시재생은 주민참여에 의한 핵심콘텐츠 발굴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력과 전문성을 가진 주민보다는 노인 및 전업주부가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테마 도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13년 12월 31일 고시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도시재생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두고 5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자원에 기반한 자율적 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으로 <주민참여 계획의 제도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참여를 위한 참여’에 불과하며 실제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와 다름없이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여, 전국 어디나 유사한 사업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도시재생 특별법 제1조)으로 경제·사회·물리·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단기적·장기적 참여가 필수적이거나 분야별 전문가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어디서 고용해야 할지 몰라 사업시행 주체 발굴이 지연되고 있다.

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일방향적 진화를 거듭하던 온라인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중심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분화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은 지리적 장소의 한계를 탈피한 비물리적 속성이 강하여 (전 세계의 공간적 속성을 배제한 Facebook, Twitter, Instagram) 도시건축과의 접점이 작았으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지리적 장소와의 연계를 강조하므로 건축도시분야와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수의 콘텐츠를 대량 공급하던 근대적 공급 방식과 달리 다수의 콘텐츠를 소량 공급하는 현대의 공급 방식에 특화된 O2O 및 Uberization(우버화)이 등장했다. Uber 택시, 카카오톡, 배달통, 브렛빌리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직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콘텐츠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며 효율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을 허물어 소규모 생산자를 소규모 소비자 및 사업자와 연결시켜주는 O2O의 등장은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소규모 단발성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체계에서도 그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유사 사례를 취합하여 시군구 단위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과 정보에 관련된 논의를 나누는 장으로 재정의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의 운영 특성을 파악하고 운영진의 특성을 정리했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새로운 주체를 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참여에서 배제되기 쉬웠던 젊은 여성계층과 청년층이 참여의 새로운 주체로 나타났다. 적은 비용으로 다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도 볼 수 있었다. 모든 논의가 글로 기록될 뿐 아니라 지도위에 펼쳐질 수 있어 자연스러운 디지털 아카이빙 효과가 부수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도시재생 과정을 온라인 상의 논의로 전달하고 협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글은 “힘내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등의 격려와 응원이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워크숍 결과에 대한 의견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언과 참여글이 나와 지역기반 온라인 참여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줬다.

주제어 : 도시재생,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SNS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1) 도시재생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 부재	1
2)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정된 계층의 형식적 주민참여	2
3)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단위사업의 연결 어려움	3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성	3
5) O2O (Online to Offline) 와 공유경제 개념의 등장과 도시재생에서의 적용 가능성	4
2. 연구의 목적	6
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및 역할 정립	6
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파악	6
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 및 참여자 특성 파악	6
4) 온·오프라인 융합형 지역기반 온라인 도시재생 참여체계 활용방안 제시	6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체계	7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7
3) 지역 SNS 사용자의 인식변화 및 상호반응의 특징 규정	8
4) 지역 SNS 활동에 대한 유형 및 기능 분석	8
5) 지역 SNS가 마치즈쿠리 및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성과에 대해 분석	8
6) 주민참여 도시재생에서 지역SNS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의 가능성 제시	9
7)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10
8) 본 연구의 차별성	11

4. 연구 추진 방법12

**제2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한계와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15**

1.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15
1) 도시재생과 주민참여15
2)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로17
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유형18
2.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한계25
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개념정립28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가능성29
5.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해외사례32
1) 미국 Nextdoor32
2) 영국 Streetlife35
3) 일본 지역SNS39

제3장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특성 분석49

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49
2. 도시재생사업지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54
1) 도시재생 사업지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유형54
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행정과의 협업61
3. 주민참여 참여자의 구분65
1) 전통적 관점에서 참여자 특성 분류65
2) 온라인 참여자 특성 분류69
3) 참여유형을 바라보는 관점69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특성과약을 위한 설문조사70
1) 참여자 설문 개요70
2) 설문 설계73

3) 설문 결과 분석74

제4장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형 주민참여 시범적용89

1. 시범적용 개요89

- 1) 대상 지역: 안산시91
- 2) 활용 프로그램: 링크하우스92
- 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안시모 카페95

2. 분석 내용96

- 1) 참여단계별 특성 효과 분석96
- 2) 참여 주체의 적극성별 효과 분석96
- 3) 참여방법별 효과 분석98
- 4) 효과 조사 방법102

3. 안산시 일동 마을계획 실천단 워크숍105

- 1) 프로젝트 개요105
- 2) 적용 경과109
- 3) 적용 효과 분석113

4. 안산시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워크숍117

- 1) 프로젝트 개요117
- 2) 프로젝트 경과119
- 3) 적용 결과133

5. 분석 종합136

제5장 결론139

1. 요약139

2. 공공정책과의 연계방안142

- 1)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의 연계 (중앙정부-주민)142
- 2) 도시재생사업 페이스북 페이지, 밴드와의 연계 (활동가/전문가-주민)149
- 3) 도시재생사업과의 MOU 체결(지방정부-주민)144

3. 후속연구144

참고문헌145
SUMMARY149
부록. 설문조사153

표차례

[표 1-1] 유형별 국내 O2O 서비스 사례	5
[표 1-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10
[표 2-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5년 12월 기준)	20
[표 2-2] D지자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요소별 구성비율	24
[표 2-3] 성격에 따른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개념도	31
[표 2-4] 츠루가시마 타운치프 시기별 흐름 분석	42
[표 2-5] 일본의 주요 지역SNS	45
[표 3-1] 전국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 통계	50
[표 3-2] 전국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 통계	50
[표 3-3] 지자체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 통계	51
[표 3-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플랫폼 유형별 특성	54
[표 3-5] 국비지원 도시재생지역 목적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2016.08.08. 기준) ...	55
[표 3-6] 국비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포털 카페 기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59
[표 3-7] 행정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업무협약(MOU) 현황	62
[표 3-8] 미국인의 참여 유형 구분	65
[표 3-9] 참여 곤란도에 따른 참여자 유형 구분	67
[표 3-10]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74
[표 3-11] 직능단체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81
[표 3-12]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82
[표 3-13]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 온라인 카페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82

[표 3-14]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83
[표 3-15] 직능단체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83
[표 3-16]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84
[표 3-17]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84
[표 3-18]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85
[표 3-19] 직능단체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85
[표 3-20]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86
[표 3-21]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87
[표 3-22]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87
[표 4-1]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96
[표 4-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 분석의 틀	97
[표 4-3]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의 특성	98
[표 4-4]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99
[표 4-5] 심층인터뷰 대상자	102
[표 4-6]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109
[표 4-7] 안시모 일동 설문 결과 개요 (2016.10.20. 기준)	111
[표 4-8] 새로운 참여자 유입	114
[표 4-9] 와동 안전마을 프로젝트 개요	117

그림차례

[그림 1-1] 다양한 사업 “주제”	2
[그림 1-2] 다양한 사업 “주체”	2
[그림 1-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4
[그림 1-4] 연구흐름도	14
[그림 2-1] 주민참여 의사결정과 전통적 의사결정의 시간흐름에 따른 비용 비교	18
[그림 2-2] 도시재생선도지역	18
[그림 2-3] 도시재생사업단계에 따른 주민참여의 유형	20
[그림 2-4] 마을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	22
[그림 2-5]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참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	25
[그림 2-6] 단위사업 기획 및 시행능력에 대한 인식수준	27
[그림 2-7] 문화, 사회적 경제, 관광 등 단위사업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인식수준	27
[그림 2-8]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는 네트워킹 능력에 대한 인식수준	27
[그림 2-9] 넥스트도어 소개	32
[그림 2-10] 달라스 Animal Services Dep. 와 넥스트 도어의 업무협약	34
[그림 2-11] 깨끗한 동네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활약	36
[그림 2-12] 동네 도서관을 구하라	36
[그림 2-13] 주민손에 의한 강 생태계 복원	36
[그림 2-14]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만들기	36
[그림 2-15] 스트리트 라이프 참여 이후 획득 정보	37
[그림 2-16] 공공기관 정보 획득 신뢰 경로	37
[그림 2-17] 주민참여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	37
[그림 2-18] 대화하는 이웃 수	38

[그림 2-19] 참여하고 싶은 지역공동체 활동	38
[그림 2-20] 일본 지역SNS의 유형	39
[그림 2-21] 일본 지역SNS의 경과	40
[그림 2-22] 츠루가시마 타운팁 그린커튼 사업 개요	41
[그림 3-1] 정책 불만에 대한 대응 국면	68
[그림 3-2] 참여의 궤도 모델 Creighton(2005;53)	69
[그림 3-3]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속성	72
[그림 3-4] 설문조사를 위한 1차 가설 설정	73
[그림 3-5] 오프라인 행사 참여도	75
[그림 3-6]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전체 네트워크 확장정도	76
[그림 3-7] 연령 대표성 인식 조사결과	77
[그림 3-8] 여론 대표성 인식 조사결과	77
[그림 3-9] 전문성 대표성 인식 조사결과	77
[그림 3-10] 지역 이기주의 인식 조사결과	78
[그림 3-11] 행정기관과 공식적인 교류	78
[그림 3-12] 행정기관과 비공식적인 교류	79
[그림 3-13]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	79
[그림 3-14] 통장과의 교류	79
[그림 3-15] 봉사단체 활동 횟수	80
[그림 3-16] 도시재생 사업 참여 횟수	80
[그림 4-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주민참여 과정 예시	90
[그림 4-2] 마을 거점공간 “와리마루”	91
[그림 4-3] 마을기업 “마을숲 카페”	91
[그림 4-4] 링크하우스 마을관찰 기능 예시	92
[그림 4-5] 링크하우스의 주요 기능	93
[그림 4-6] 링크하우스 마을지도 기능 예시	93
[그림 4-7] 안시모 카페 이미지 (안산시 “안시모” 제공 자료)	95
[그림 4-8] 주민참여 프로세스의 단계	96
[그림 4-9] 오프라인에서의 대안 평가	100

[그림 4-10] 온라인에서의 대안평가	100
[그림 4-11] 오프라인에서의 자료 보관	101
[그림 4-12] 온라인에서의 자료 보관	101
[그림 4-13] 안산 프로젝트 관련 주체(인터뷰 대상자) 관계도	103
[그림 4-14] 안산시 일동 마을계획 개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105
[그림 4-15] 워크샵 참여자 키워드	106
[그림 4-16] 이미지 게임	107
[그림 4-17] 이미지 구체화하기	107
[그림 4-18] 내가 이 마을에 사는 이유	108
[그림 4-19]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꿈꾸는가	108
[그림 4-20] 마을의 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08
[그림 4-21] 비전 및 의제 구체화하기	108
[그림 4-22] 일동 마을계획 실천단 워크샵 진행 과정	109
[그림 4-23] 일동 마을계획 전체 구상	110
[그림 4-24] 안시모 카페 설문조사	111
[그림 4-25] 마을의 특성에 대한 설문결과	112
[그림 4-26] 일상적 모임 장소에 대한 설문결과	113
[그림 4-27] 설문참여자 특성1	115
[그림 4-28] 설문참여자 특성2	115
[그림 4-29] 설문참여자 특성3	115
[그림 4-30] 설문참여자 특성4	115
[그림 4-31] 안산시 일동 마을만들기 주민 기초조사 설문 모습	116
[그림 4-32]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워크샵 진행 과정	117
[그림 4-33] 안산시 와동 일대 모습	118
[그림 4-34] 와동 안전점검표	119
[그림 4-35] 와동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 만들기	119
[그림 4-36] 워크샵 진행사진	120
[그림 4-37] 링크하우스 맵핑 과정	121
[그림 4-38]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카드뉴스	122

[그림 4-39]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주민참여 맵	123
[그림 4-40] 카페의 워크숍 참여 안내 글	123
[그림 4-41] 주민워크숍 과제 발굴	124
[그림 4-42] 와동 안전 통학로 디자인 관련 설문조사 예시	125
[그림 4-43] 참여단계 및 참여 적극성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	136
[그림 5-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개선안 제안	14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4. 연구 추진 방법

1. 연구의 배경

1) 도시재생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 부재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도시계획 사업과 다수의 부문에서 특성이 상이하나, 그에 맞는 사업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해 사업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사업, 일부 주민 반발...“절차 등 불공정”

뉴스1 (기사입력 2016-07-27, 국중환 기자)

'주민참여'를 골자로 한 서울형 도시재생 1호 프로젝트 '창신·송인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주민 대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인동 대표 "불투명·불공정한 사업...감사 신청할 것"

서울시·창신동 대표 "사실과 전혀 달라...사업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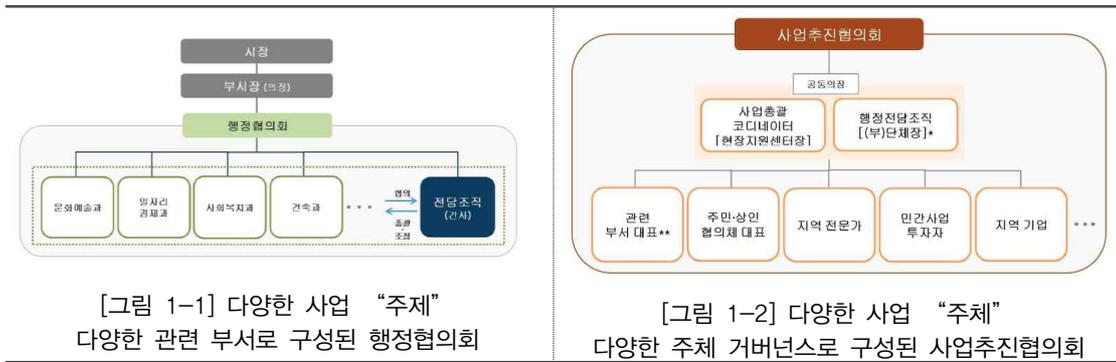
“청주시,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안 ‘민민갈등’ 진화 나서”

동양일보 (2015.03.24., 이도근 기자)

청주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계획안과 관련, 성안길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지역인 내덕·우암동 주민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민민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형 사업 “주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문화, 경제, 도시건축, 복지, 관광,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심주민과 비상시적 협업을 주고받아야 하나, 도시

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인재 풀이 제한적이라 사업 실행주체 발굴 및 연계가 어렵다. 전문 분야 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다른 분야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 서로 모르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다종다양한 사업 “주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체와의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야 하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주체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다. 인력이 파악된 거버넌스 내 주체들의 개별 일정이 상이하여 상호 소통이 어려운 것이다.



※ 출처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6.03., p22, p27)

2)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정된 계층의 형식적 주민참여

도시재생은 주민참여에 의한 핵심 콘텐츠 발굴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력과 전문성을 가진 주민보다는 노인 및 전업주부가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 테마 도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 테마 도출 미흡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2차례의 리뷰보드 및 19차례의 도시재생 지원기구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고시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도시재생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두고 5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자원에 기반한 자율적 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으로 <주민참여 계획의 제도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참여를 위한 참여’에 불과하며 실제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와 다름없이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여, 전국 어디나

유사한 사업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협의과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의 참여 부족으로 획일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실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민간, 공공기관, 행정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주민참여가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제 거주민들의 생활경험에서 나오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못함”

(서수정·윤주선·심영선(2016))

3)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단위사업의 연결 어려움

도시재생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도시재생 특별법 제1조)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심주민과 전문가의 단기적·장기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관심주민과 분야별 전문가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어디서 고용하고 관심이 있는 주민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몰라 사업시행 주체 발굴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외부의 창조적인 인재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 새로운 고용과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홍경구 외, 2015)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성

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일방향 진화를 거듭하던 온라인이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중심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분화하였다.

기존의 온라인은 지리적 장소의 한계를 탈피한 비물리적 속성이 강하여 (전세계의 공간적 속성을 배제한 Facebook, Twitter, Instagram) 도시건축과의 접점이 작았다.

반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지리적 장소와의 연계를 강조하므로 건축도시분야와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특성이 강조되었다.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유경제 개념은 2009년 미국 하버드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저서 리믹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공유경제는 대여자, 이용자, 공유플랫폼이라는 3개의 주체로 구성되며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해 3자 주체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지향

“우버”, “에어비엔비” 등을 필두로 이웃끼리 생필품을 대여할 수 있는 “Neighborgoods”,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공유하는 모두의 주차장, “JustPark”, 아파트 주민간 책을 대여하는 “똑똑도서관”, 휴가기간 동안 반려견을 돌봐주는 “Dogvacay”, 의사의 on-demand 왕진 서비스 “Medicast” 등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폭발적 증가 추세

클라우드 산업연구소(2013)에 따르면 2013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550조원에 달하며, 2010년에 비해 6배가 증가하는 등 그 상승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2014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약 90억 파운드이며 향후 10년 내인 2025년까지 약 2,300억 파운드로 증가할 전망 (PwC, 2014)

[표 1-1] 유형별 국내 O2O 서비스 사례

카테고리	사 례			
음식	배달의 민족	배달통	푸드플라이	요기요
물품 배달	부탁해	날도		
교통	소카	리모택시	버튼대리	
이벤트	캔고루	콩콩		
여행	프랜트립	마이리얼트립	가자고	
숙박	코자자	여기어때	야놀자	BnBHero
생활서비스	닥터하우스	세탁특공대	클린바스켓	워시온
주차	파크히어	아이파크	모두의 주차장	셀팍
주거	우주	블랭크	서울소셜스탠다드	
사무공간	청년허브	Space Noah	홍합밸리	
공공시설	모두의 공간			
농경지	코코팜스			
상가	스토어쉐어링	Pinspot		
결혼	처치플러스	작은결혼식		

* 출처 : 김은란 외(2015, p113.) 수정 및 보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벽을 허물어 소규모 생산자를 소규모 소비자 및 사업자와 연결시켜주는 O2O의 등장은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소규모 단발성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체계에서도 그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연구의 목적

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및 역할 정립

명확한 연구의 목적과 범위 설정을 위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유사 용어 검토 및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역할에 대해 정립하고자 한다.

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파악

전국의 기 구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및 도시재생 관련 O2O 서비스 현황 파악한다. 플랫폼은 신규로 만드는 것 보다 이미 구축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관건이므로, 기 구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전수조사를 통한 기본 현황 파악 및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 및 참여자 특성 파악

명확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한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오프라인 위주의 전통적 참여자와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차이 분석을 통해 오프라인 참여의 대표성 부족 문제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약한 연대(weak tie) 형성 정도 분석을 통해 연결형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형성 유무를 파악하여, 지역기반 온라인 도시재생 커뮤니티가 다양한 그룹간의 의견 교환의 장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이와 함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 특성을 파악한다.

4) 온·오프라인 융합형 지역기반 온라인 도시재생 참여체계 활용방안 제시

참여의 확대 차원에서 생업 및 육아 등으로 도시재생 과정에 참여가 어려우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이 지역에 대한 이슈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모색한다.

연결의 확대 차원에서 카카오택시, 요기요 등이 흩어져 있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했듯이,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전문가(도시재생 스타트업) 및 관심주민들과 도시재생 사업자(지자체 및 민간)와의 단기 및 장기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한다.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체계

① 선행연구 추세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의 주체 중 온라인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주민(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체 및 주제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다양하게 선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SNS 관련 선행연구는 현재 기본지표조사 연구, 사례 비교 연구의 비중이 많으며 국외에는 지역 SNS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② 연구 키워드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SNS, O2O(online to offline), 스타트업(start-up)을 키워드 삼아 본 연구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선행연구 현황을 검토한다.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① 기본지표조사 및 사례 연구로 지역 SNS의 규모와 성장 추세를 파악

기본지표 조사 연구로 쇼우지(2008), 쇼우지(2009)는 지역 SNS 도입배경, 도입사례 지역(전국단위), 회원규모, 사용포털, 운영모체, 개설계기, 이용자 속성 등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ynn Mandarano et al.(2010)의 연구는 지역시민의 참여에 대한 온라인 방법을 전수조사 실시하였다.

3) 지역 SNS 사용자의 인식변화 및 상호반응의 특징 규정

지역 SNS 사용과 이용자의 심리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Keith N. Hampton et al.(2003)는 온라인(인터넷)이 이웃 간의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외각)지역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관계가 강화되었으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접한 주민과는 대화를 통해 친밀도는 있으나 지역 전반적으로는 분산된 커뮤니티를 보인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웃관계를 강화함을 물론 지역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과 응집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주었다.

Keith N. Hampton(2007)의 연구는 인터넷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교류를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지역 사회 네트워크 규모와 이메일 소통이 증대됨을 규명하였다. 카나가와(2011)의 연구는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특징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여 지역 SNS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와사키(2009)의 연구는 지역 SNS상의 상호응답 정도를 일반 인터넷과 비교하여 지역 SNS가 도움에 대한 반응과 응답률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타나카(2012)의 연구는 회원의 반응 등 지역 SNS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성구(2009)의 연구는 정보의 공유, 공동체적 관여, 친밀성의 교환,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 순으로 지역 SNS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됨을 연구하였다.

4) 지역 SNS 활동에 대한 유형 및 기능 분석

김보흠(2005)의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책참여 활동 유형을 광청형, 대화형, 시민토론행, 공동경영형 4가지로 분류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공동경영형 유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주현(2012)의 연구는 한일양국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상대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을 지역 대표, 행정, 지역방어, 지역개발, 지역복지 기능으로 분류하고 SWOT틀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5) 지역 SNS가 마치즈쿠리 및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성과에 대해 분석

Luciana Burdi(2003)의 연구는 협력적 지역계획에서 온라인 기반의 도시디자인 기법을 제시하고 7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기법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고 평가하여

온라인 기반의 참여방법은 일반인들의 계획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 참여로 도시디자인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음을 증명하였다.

Eliahu Stern et al.(2009)는 하나의 사업에서 온라인기반 참여계획과 전통적인 방식의 참여계획의 차이에 대해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요소 중 신뢰도, 몰입도, 권한부여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온라인기반의 참여계획이 공공의 참여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보완 기능을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음을 나타냈다. 庄司 昌彦(2009)의 연구는 마치즈쿠리의 연대별 변화 흐름과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와 연동한 SNS를 제3의 변화라고 언급하였다. 近藤崇宏(2010)의 연구는 지역 SNS를 통한 지역사회 효과를 지자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사례비교를 통해 지역별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谷口枝里(2011)의 연구는 효고현 지역 SNS인 ‘효코므(ひよこむ)’를 통해 시작된 사요초佐用町 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원사업의 전개과정 및 결과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서진완 외(2010)의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동체들 간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연대와 네트워크, 온라인 기반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유도함을 설명하였다. 김주락(2012)은 남양주시 지역 기반 SNS 특징을 분석하고 기타 커뮤니티와의 차이점 및 지역 대중교통체계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지역 SNS가 마치즈쿠리의 다양한 분야별 연결, 각 지역이나 테마별 연결을 통해 복합적으로 네트워크하여 클러스터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6) 주민참여 도시재생에서 지역SNS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의 가능성 제시

岡本健志(2009)의 연구는 이용자 사이의 네트워크망을 분석하여 사례별 경향 및 초보, 소극적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자성(2013)의 연구는 일본의 새로운 행정협의 시스템인 지역SNS의 도입의도를 파악하고 4개소의 지역SNS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주선의 (2014)의 연구는 일본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마치즈쿠리 플랫폼인 지역SNS의 등장배경과 현황을 개괄하고, 이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주민참여 도시계획에서 지역SNS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주선(2015)의 연구는 일반적인 주민참여 방법에서 가장 참여가 어렵다고 분석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SNS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의 가능성을 찾아내

고 특히 마을재생에 지역SNS를 활용한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성공적 지역SNS 마을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7)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Maarit Kahila et al.(2009)의 연구는 일반적인 지역주민이 협력적 지역계획에서 전문가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GIS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제시하였다. 최재문(2015)의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도출 및 서비스 유형화를 하고, 사용자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구축 스마트 서비스 프레임 워크를 구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검증하는 상향식 서비스 도출을 제안하였다.

[표 1-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Luciana Burdi (2003)	협력적 지역계획에서 온라인 기반의 도시디자인 기법을 제시	-7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기법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고 평가함	-온라인 기반의 참여방법은 일반인들의 계획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 -온라인 참여로 도시디자인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음을 증명함
Eliahu Stern et al. (2009)	하나의 사업에서 온라인기반 참여계획과 전통적인 방식의 참여계획의 차이에 대해 비교 연구를 수행	-사례 비교연구	-신뢰도, 몰입도, 권한부여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 -온라인기반의 참여계획이 공공의 참여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보완 기능을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음을 설명
김주락 (2012)	대중교통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커뮤니티 활동이 지역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함	-사례 비교분석 -관련 주체 심층 면담을 통한 참여자의 특성 파악	-남양주시 지역 기반 SNS 특징을 분석 -기타 커뮤니티와의 차이점 분석 -지역 대중교통체계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에 대해 분석
이자성 (2013)	일본의 새로운 행정협의 시스템인 지역SNS의 도입의도를 파악하고 4개소의 지역SNS 사례분석을 통해 행정참여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정부보고서를 통한 문헌조사	-관리에서 소통으로 : SNS 인식전환 교육의 필요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SNS운영방식의 적용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 주민·행정기관간 지역거버넌스 체제 마련 -지방정부 SN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윤주선 외 (2014)	일본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마치즈쿠리 플랫폼인 지역 SNS의 등장배경과 현황을 개괄하고, 이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주민참여 도시계획에서 지역 SNS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츠루가시마 지역 SNS 타운팁의 주요주체 인터뷰 및 현장 사례조사	-일본 지역SNS의 도입 배경 및 정책화 과정 분석 -42개 일본 지역SNS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 통계 조사를 토대로 일본지역SNS에 대한 일반적 특성 파악 -대상지역의 범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일본 지역 SNS의 유형화 -일본의 대표적 지역SNS 중 하나인 사이타마현 츠루가시마시의 타운팁에 대한 사례조사
윤주선 (2015)	일반적인 주민참여 방법에서 가장 참여가 어렵다고 분석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SNS를 통한 주민참여 방식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특히 마을 재생에 지역SNS를 활용한 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성공적 지역SNS 마을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문헌조사를 통한 한국지역SNS의 발생 및 경과 파악 -관련주체 심층면담 -사이트 가입 및 운영진으로의 참여를 통한 참여 관찰	-일본의 지역SNS는 한 공무원의 실험을 통해 시작 -국가의 4년에 걸친 실증실험 지원 사업을 통해 확산 -3.11 대지진을 계기로 축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주요 지역SNS는 국토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발전적 진보 중 -지역SNS를 통해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주도를 통한 새로운 공공의 가능성 확인
최재문 (201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융복합화로 스마트서비스 프레임 워크를 연구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도출 -서비스 유형화, 단계별 구축 스마트서비스 프레임 워크 구성

8) 본 연구의 차별성

마을 공동체 형성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와 참여 거버넌스 간 사업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정리하고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 워크샵을 통한 현재 운영 방향성 파악 및 도시재생과의 접점 모색,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온라인 설문을 통한 참여 동기 및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결점 파악한 후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하는 연구 방법을 고려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정립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유형 분석 실시하고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도시재생과의 점점 파악, 다양한 지역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통한 의견 공유 및 사회적 파급 유도,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 전문가와 도시재생 사업지역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O2O 서비스 파일럿 테스트,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구체화 방안 도출하고자 한다.

4. 연구 추진 방법

□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헌조사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분석하는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가입자 워크숍 및 온라인 설문조사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 및 가입자 대상 워크숍, 심층면담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방식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의 운영방식 및 활동범위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형식의 워크숍 진행을 진행한다.

□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관찰 모니터링

오프라인 주민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온라인 지역카페가 연계하여 지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 남양주시의“화도사랑”, 신도시 개발 직후 온라인상에서 지역 공공공간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닷컴”등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여 참여관찰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도시재생 관련 부서 및 도시재생 지원기구 대상 실증 연구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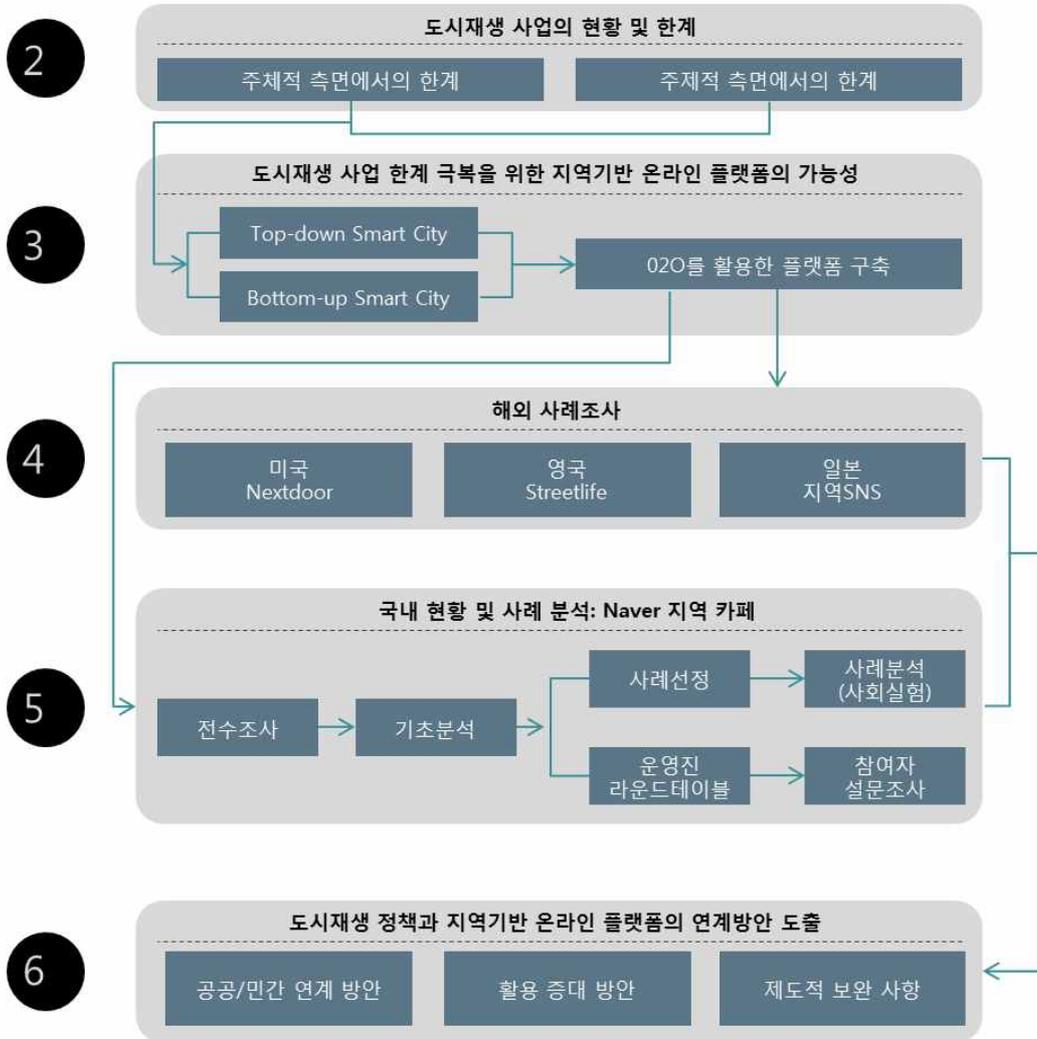
국내 참여자 분석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 방식 등의 유형별 도시재생 온라인 플랫폼의 기초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파악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과, 건축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등 도시재생 관련 담당자와의 연구

협의 진행한다.

관련부서 및 도시재생 지원기구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온·오프 융합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도시재생 사업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한다.

□ 연구 흐름도



[그림 1-4] 연구흐름도

제2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한계와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

1.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2.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한계
3.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개념정립
4.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
5.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사례

1.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1)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근린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남겨진 자원이 적고 쇠퇴의 흐름이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역 사정과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지속적인 관여가 가능한 주민과 상인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 된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¹⁾

Creighton(2005; pp.18~19)는 주민참여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의사결정의 질 향상
- 투입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의 최소화
- 합의 형성
- 용이한 실행
- 최악의 대립상황 방지
- 신뢰도와 적합성 유지

1) 변창홍(2012), "새로운 사회모델과 도시비전", 「창작과 비평」, v.40 n.1., p.236., 이영은·장옥연(2012),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 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 연구」, 도시재생사업단, p.36., 강현수 외(2012), 「도시와 권리」, 라움, p.330.

- 대중의 고민과 대응 자세의 예측
- 시민사회의 발전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여 2013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및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2013.12.24 국무회의 의결)

2.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원칙

2.2 도시재생의 목표

- (1) 창조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2)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4)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살고 있는 도시의 쇠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한다.

2.3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1)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 (2)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 자원에 기반한 **자율적 재생**을 추진한다.
- (3)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 (4)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 (5)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2.4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1) 주민의 역할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정부·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3.1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1.1 기성시가지 위주로 도시·공간계획 수립

- (1) 도시계획 제도 개선
- (2) 신규 외곽개발 이익의 도시재생 환원
- (3)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제도화**

주민이 스스로 도시재생 등 마을 현안을 도출·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 단위 재생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4년 6월 23일 배포하고, 2016년 3월 7일 전면 개정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으로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6.3.7. 전면 개정)

제2절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1-2-1.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과 **상인, 전문가, 공무원 등 지역공동체의 구성원과 지역기업·금융기관·조합·상인·상권관리기구·사회적 기업지원센터 등 이해당사자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2-2. (지역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주체들이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잠재력 있는 지역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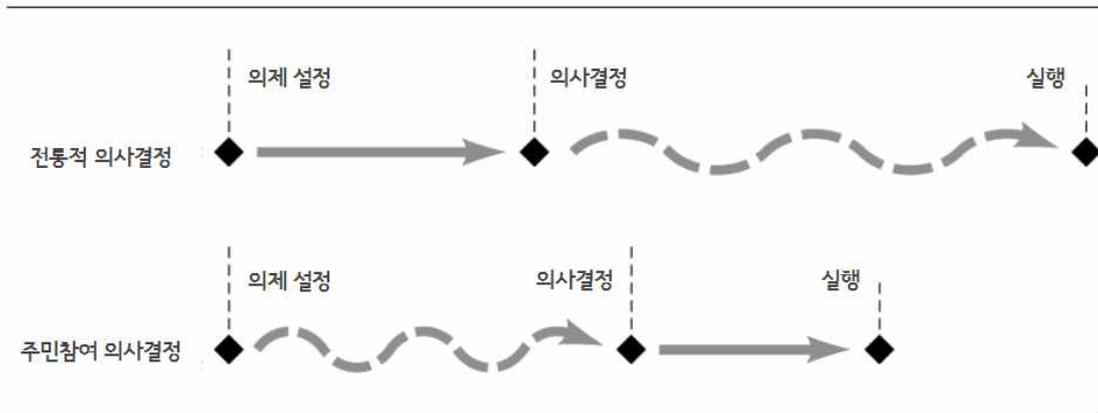
2)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로

최근에는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를 도시재생의 핵심가치로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참여는 주민의 참여 수준에 따라 주민참가, 주민참여, 주민주도라는 개념은 구분할 수 있다. 주민참가는 행정이나 전문가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 설문이나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최소한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보전달 방식의 참여이다. 주민참여는 행정이나 전문가가 기획한 자리에서 행정이나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가운데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의 협력적 참여 방식이다. 주민주도는 주민이 기획하고 계획한 방안
에 대해 행정이나 전문가가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공’이라는 논의를 통해 주민 혹은 민간주도의 개념이 등장하며 주민과 민간의 역할이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은 2008년 수립된 제6차 국토계획인 국토형성계획에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공공’이라는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다. 행정과 민간이라는 이분법적 분할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나 NPO, 기업의 CSR활동 등의 역할이 더해지며 시장경제와 행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를 새로운 공공이라 지칭한다(오쿠노

노부히로, 구리타 타쿠야, 2015:p.32). 새로운 공공의 등장배경은 시장경제의 실패와 행정의 실패가 있다. 시장경제의 실패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이 최대한 발휘한다 해도 해결이 어려운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지칭한다. 행정의 실패는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자체의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등장한 행정 재량권의 축소를 말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실패와 행정의 실패에 대한 대안인 새로운 공공의 활동영역은 행정기능의 대체와 공공영역의 보완을 들 수 있다(오쿠노 노부히로, 구리타 타쿠야, 2015:p.32). 행정기능의 대체는 행정의 전통적 영역인 업무를 새로운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며, 공공영역의 보완은 행정의 전통적 영역 이외의 업무를 새로운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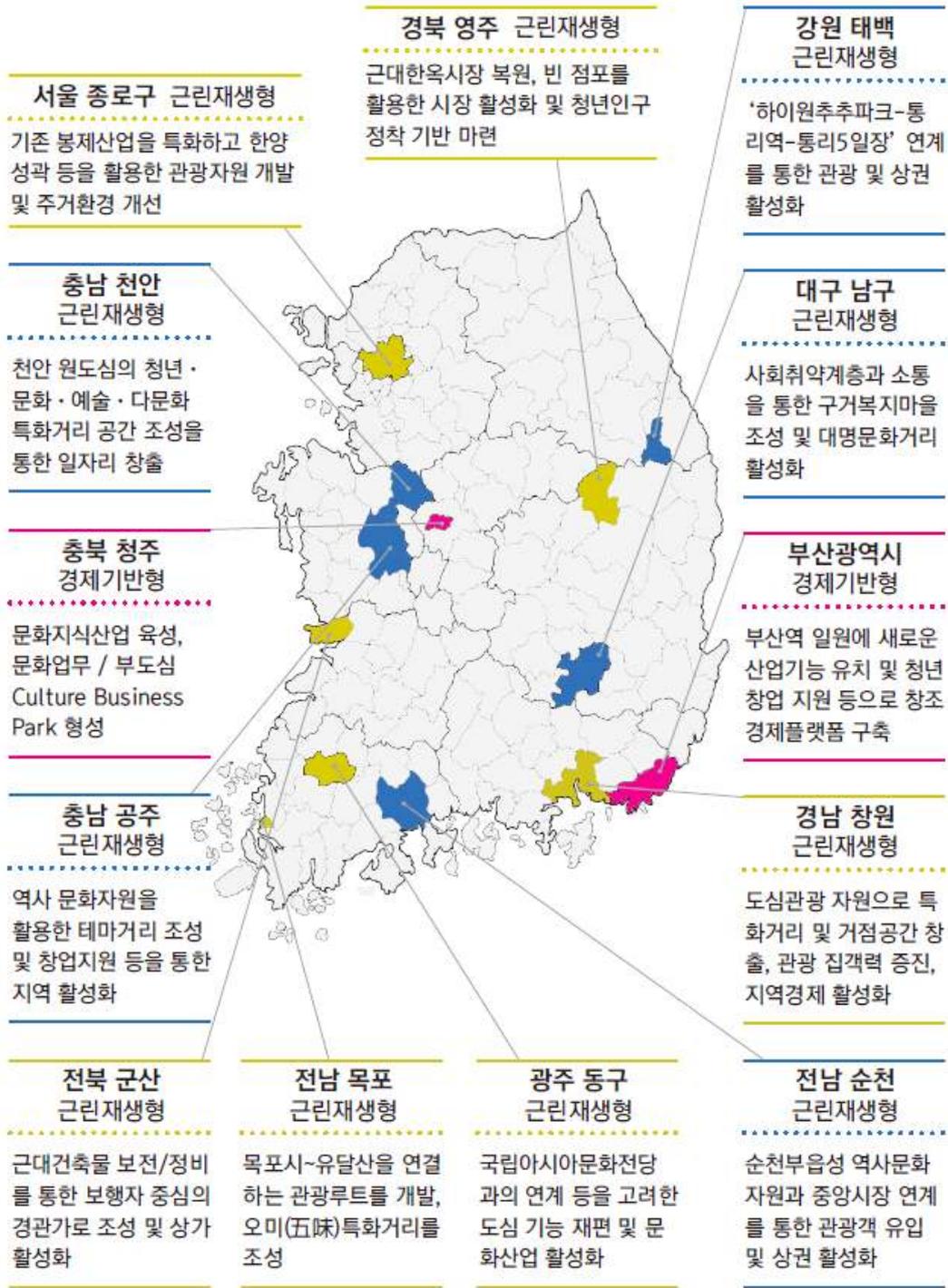
주민주도나 새로운 공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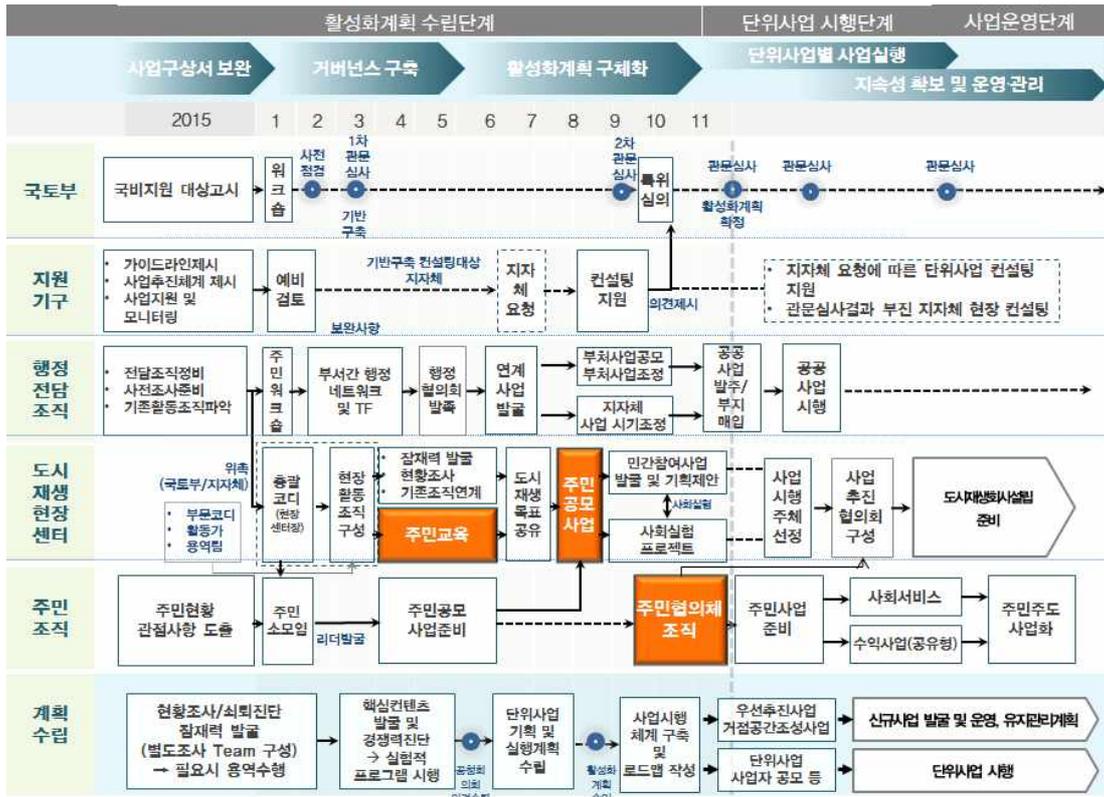
[그림 2-1] 주민참여 의사결정과 전통적 의사결정의 시간흐름에 따른 비용 비교
 ※ 출처: Creighton(2005, p18)

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유형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2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13개소의 국비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는 모든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특히 주민교육, 주민협의체 활동, 주민제안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중점적으로 발생한다.



[그림 2-2] 도시재생선도지역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리플렛 (2016)



[그림 2-3] 도시재생사업단계에 따른 주민참여의 유형
 ※ 출처 : 서수정(2016),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수정 및 보완

□ 주민교육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의제를 스스로 이끌어 내며 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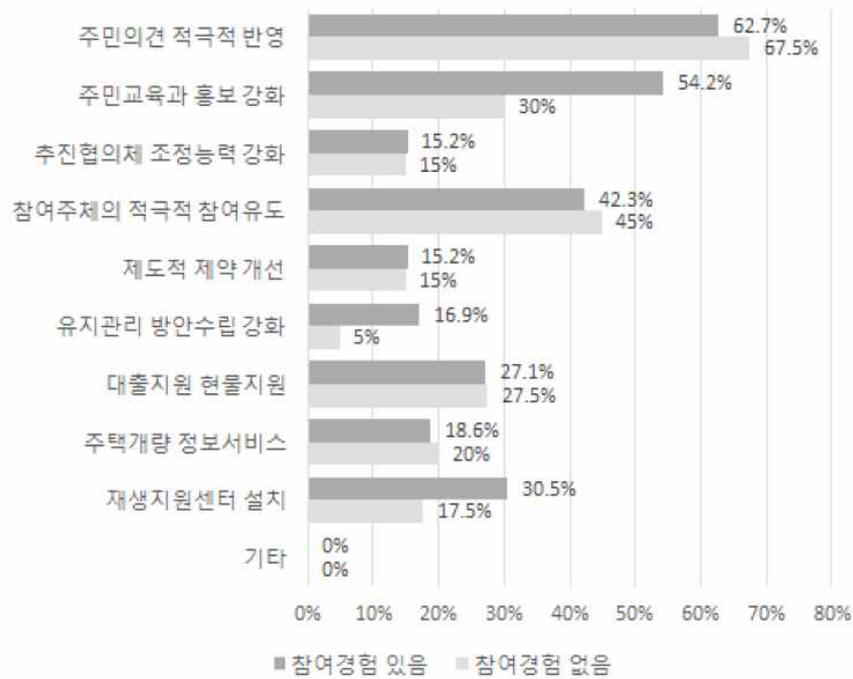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3-1-6. (주민참여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준비) ① 현장지원센터는 지역주민·상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표 2-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5년 12월 기준)

지자체	프로그램	기간	인원
부산	2015 1기 도시재생대학	4.18~7.25	62명
청주	미정-계획수립중	-	-
서울 종로	마을배움터 계획중	-	-
경남 창원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6.1~7.31 9.1~11.30	40명 60명
경북 영주	제1기 도시재생대학 (총 7회 예정)	6~8월(7회차)	15명 내외
광주 동구	도시재생대학	7월중	30명
전남 목포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하반기 마을학교	3.25~5.6 6~7월(5주간)	29명 완료 미정
전북 군산	도시재생대학 (총 8회 예정)	6~8월(8회차)	50명
충남 천안	4기 도시재생대학 5기 도시재생대학 6기 도시재생대학	5.13~6.18 7~9월(7주간) 10~12월(7주간)	34명 미정 미정
전남 순천	도시재생대학(4기) 운영 하반기 추가운영 검토	4.7~5.26 미정	49명 완료 미정
대구 남구	2015 대명행복문화마을 도시대 학-주민마을학교(총 5회)	4.17~5.1	30명 완료
강원 태백	태백 통리 도시재생 주민학교 제1기(총 8회)	3.7~3.28	33명 완료
충남 공주	도시재생대학	7~11월	40명 예정
합계	완료 : 175명, 진행중 : 104명, 예정 : 195명 이상 총 합 : 472명 이상		

* 출처 : 도시재생지원기구 내부자료(2015)



[그림 2-4] 마을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

※ 출처: 정성규·문건주·유길준(2015, p36)

주민교육은 대체로 1주일에 1차례씩 4-8주에 걸쳐 강사가 2시간 내외로 교육을 진행하는 집체식 교육방식이 사용된다. 주민워크숍이나 디자인대학 등으로 연계해서 참여 디자인 단계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 평일 오후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자영업자나 주부, 고령자가 주를 이룬다. 또한 교육방식이 강의식이 많고 주민워크숍도 충분한 피드백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표면적 교육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실제 [그림2-2] 정성규 외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 마을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서 개선방안으로 도시재생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주민교육과 홍보 강화였다. 피상적으로 그치는 주민교육과 주민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대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한정된 계층의 참여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반영한다.

□ 주민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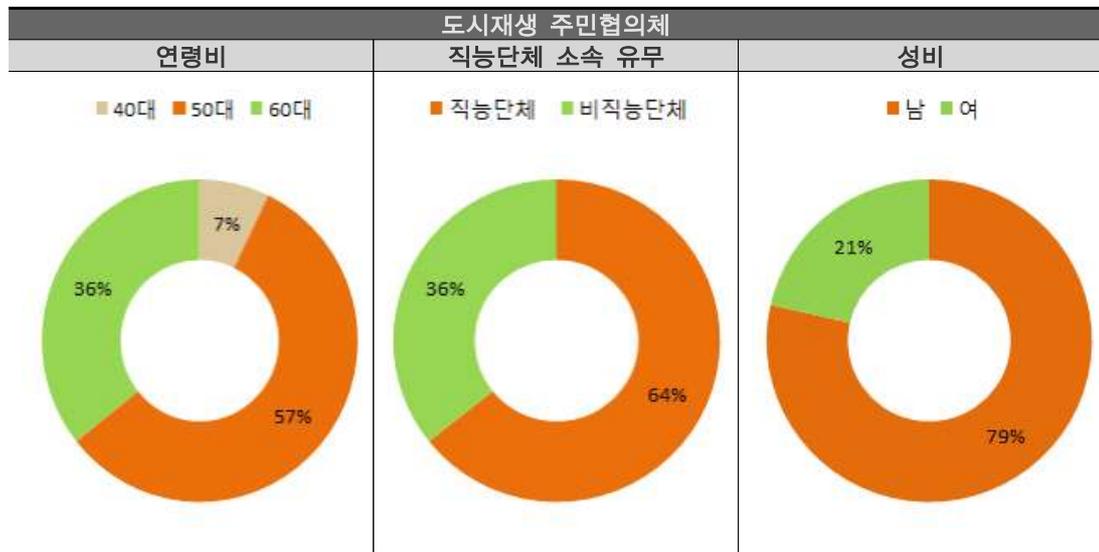
주민협의체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4절에 구성 및 운영,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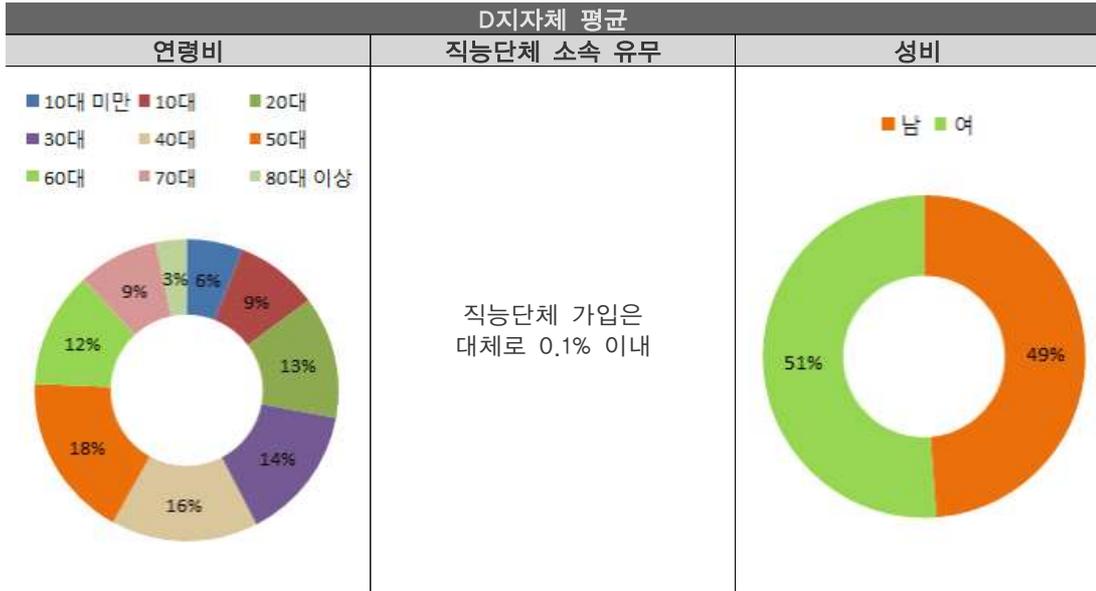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과 주민·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 D 지자체의 사례

D 지자체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구성 비율을 보면 과잉 대표성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D 지자체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지자체 도시재생 조례에 의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년을 임기로 구성했다. 주민협의체의 연령비율을 보면 50대와 60대가 전체의 93%에 달하며, 직능단체 소속인 비율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79%로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활동가의 여성 과잉 대표성과 의사결정 단체의 남성 과잉 대표성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표 2-2] D지자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요소별 구성비율





* 출처: 도시재생지원기구 내부자료(2016)

□ 주민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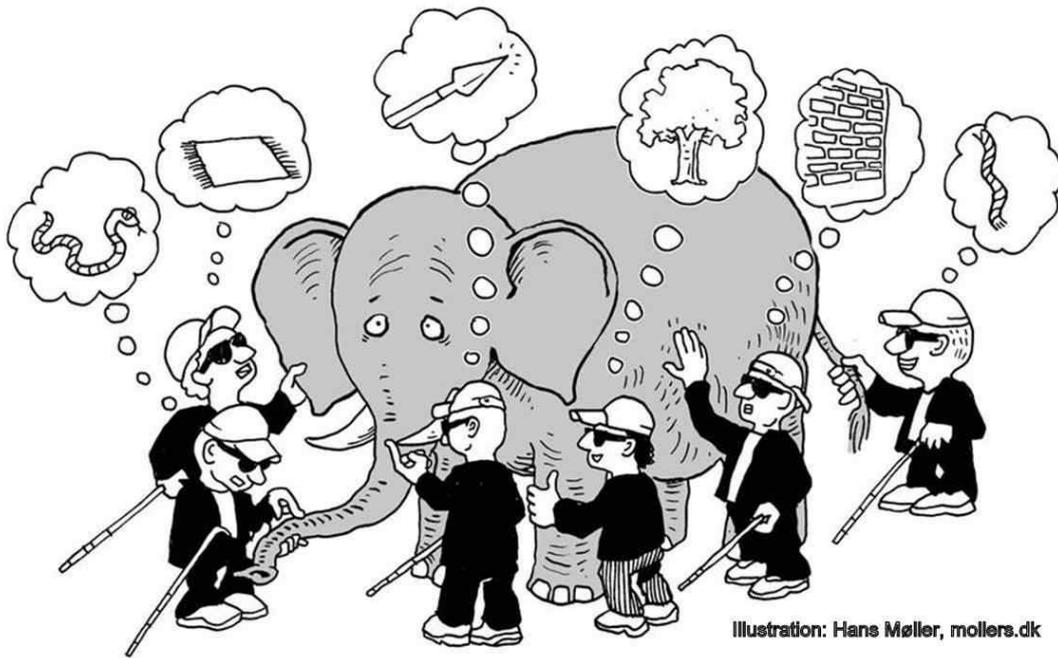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민공모사업을 전체 도시재생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 방안의 대표적 통로이다. 그러나 실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공모사업은 전문성의 부족과 참여 확산의 부재로 주민공모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되거나 실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정착되는 사례가 적은 한계가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한계

근대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주민참여를 강조한 협력적 계획은 도시 계획에 새로운 전환(Communicative turn)을 불러왔다. 하지만 주민참여 방법은 적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

① 대표성의 문제

일반적으로 주중 일과시간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특정 성별, 연령, 성격,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²⁾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민은 특별 이익을 대표하는 주민 엘리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 구성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인은 자원과 기술의 편중된 배분 때문이다.³⁾ 노르베르트 보



[그림 2-5]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참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출처: [http://scn.sap.com/community/business-trends/blog/2014/10/03/the-cloud-the-~~elephant~~-and-the-blind-men](http://scn.sap.com/community/business-trends/blog/2014/10/03/the-cloud-the-elephant-and-the-blind-men)

2) Verba &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Campbell Richard(2000), Media and culture : an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Bedford/St. Martin's, Abram, Simone A(2000). "Planning the Public: Some Comments on Empirical Problems for Planning Theor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9, n.4., pp.351~57.

비오는 주민참여에서 평범한 주민들의 참여 통로는 극히 제한적인데 반해 일반 주민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이지 않는 권력(invisible power)’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⁴⁾

예를 들어 공청회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므로, 평범한 직장인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이 장시간 노동조건과 거주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주거조건 하에서 지역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⁵⁾ 그래서 유관기관 등 특정 집단이 주민참여 행사에 동원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며, 이는 과잉 대표성의 문제를 초래하여 주민참여의 신뢰도와 권한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② 전문성의 문제

노인과 주부가 다수를 구성하는 주민모임은 전문가 및 공무원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기연구원(2005)에 의하면 공무원 중 주민자치위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현실성 부분에서 행정실무가 및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점이 시민의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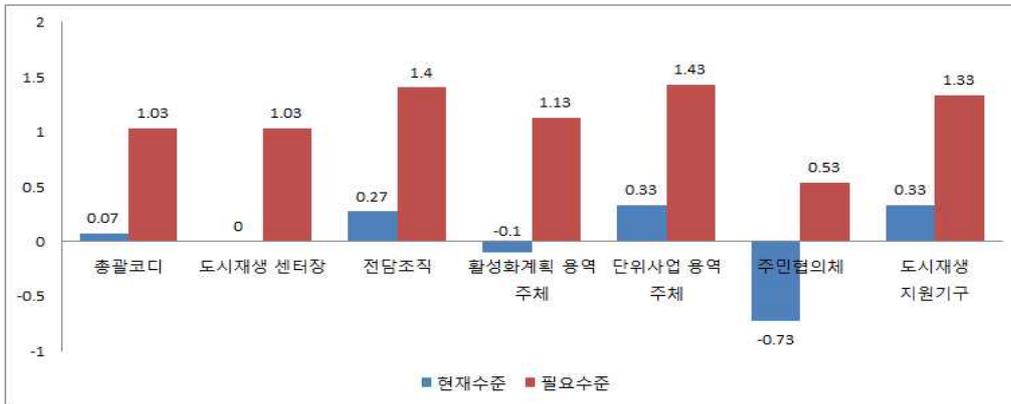
서수정·윤주선·심영선(2015; pp.92~95)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총괄코디네이터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민협의체의 단위사업 분야별 전문성과 단위사업 기획 및 시행능력, 전문가 네트워킹 능력은 다른 주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3) 이승중·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pp.508~509.

4) 한국공간환경학회·강현수 외(2011),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 p.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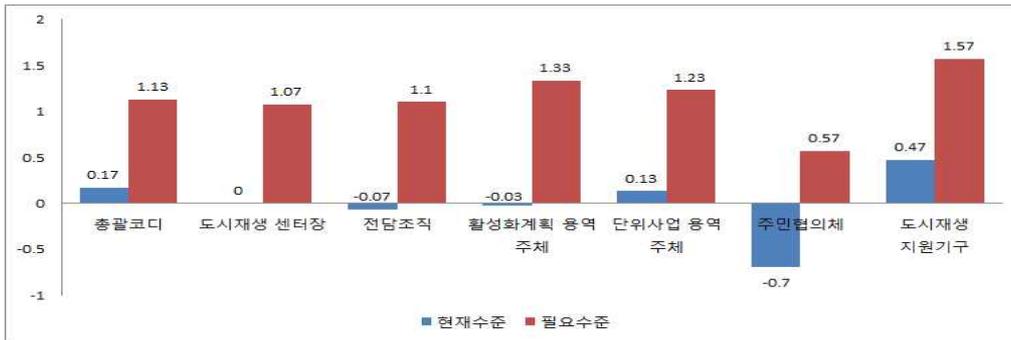
5) 상계서

6) 이승중·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p.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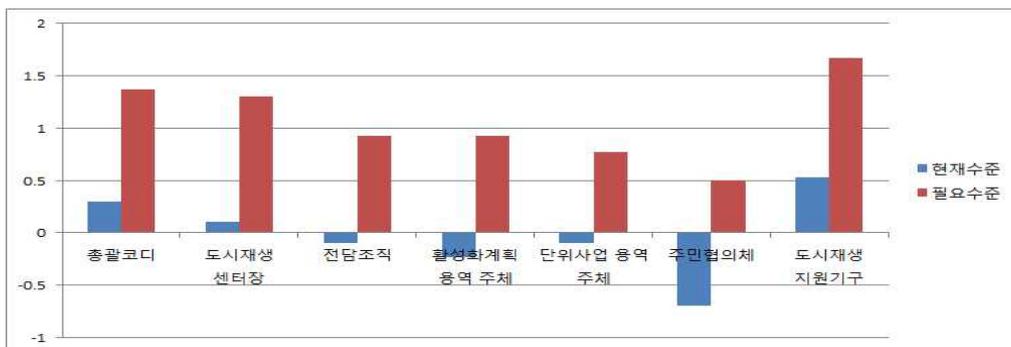
[그림 2-6] 단위사업 기획 및 시행능력에 대한 인식수준

※ 참고: 설문은 매우낮음을 “1”, 매우 높음을 “5” 점으로 하는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변별력이 낮아, 가독성 향상을 위해 보통을 “0” 으로 두고 매우 높음을 “2”, 매우 낮음을 “-2” 로 변환 (n=30)



[그림 2-7] 문화, 사회적 경제, 관광 등 단위사업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인식수준

※ 참고: 설문은 매우낮음을 “1”, 매우 높음을 “5” 점으로 하는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변별력이 낮아, 가독성 향상을 위해 보통을 “0” 으로 두고 매우 높음을 “2”, 매우 낮음을 “-2” 로 변환 (n=30)



[그림 2-8] 적재적소에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는 네트워킹 능력에 대한 인식수준

※ 참고: 설문은 매우 낮음을 “1”, 매우 높음을 “5” 점으로 하는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변별력이 낮아, 가독성 향상을 위해 보통을 “0” 으로 두고 매우 높음을 “2”, 매우 낮음을 “-2” 로 변환 (n=30)

③ 발언권 불평등

대체로 하버마스가 상정했던 이상담화의 상황은 마련되기 어렵고, 연령과 직종, 성별에 따라 발언권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속설이 있을 만큼 나이 많은 남성이 주로 발언 주도권을 가지는 상황이 자주 보인다.

④ 주민 권한 부족

주민참여는 절차상의 참여에 그치거나 참여를 위한 참여에 불과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Arnstein(1969)이 주장한 “권한 이양”을 이룬 지역 공동체가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민참여에 의해 합의된 결과는 실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개념정립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다대다(many-to-many)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지리적 공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온라인(online)상에서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그에 비해 실제 세계(offline)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주거·도시부문에 온라인 참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합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地域SNS)”가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성(總務省)의 실증실험을 계기로 활성화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2014년 2월 기준 전국 26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비단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2010년 출범한 미국의 대표적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neighborhood social network) “Nextdoor”는 2014년 12월 기준 49,000여 개의 미국 커뮤니티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커뮤니티의 1/4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Daum, Naver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민 주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왔으나, 일본, 미국과 달리 행정과의 협력이 미비한 한계가 있다(윤주선, 2008). 일본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총무성 실증실험 대상지 및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주요사례 44개소 중 15개소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행정 홈페이지에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링크가 있다. 미국 Nextdoor의 경우 2013년 6월 뉴욕시를 시작으로 250개 이상의 지자체와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00년대 후반 마을만들기 도입과 함께 시작된 마을넷 등 NPO주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역시 참여자가 100명 내외에 머무는 등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⁷⁾ 일본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연구자에 따라 통계가 다르나 대체로 1,200명 가량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⁸⁾ 또한 한국의 경우 주민주도, NPO주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모두 행정 협조하에 마을만들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지역의 공동체 강화와 정보교류,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벌이는 소셜네트워크를 말한다⁹⁾.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가능성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Community)는 이웃(Neighborhood)과 분리되어 발전되어 왔다. 특히 조직 내 네트워크로 시작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점차 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Facebook, Twitter 등의 SNS 시대에 접어들며 결국 전 세계가 하나의 동일한 플랫폼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간의 범위를 이웃과 지역으로 축소하여 연결이 없던 다양한 지역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온라인을 매개로 연결시키는 현상이 벌어졌다.

농경사회에서 실내공간은 야간이나 농한기 이외에는 거의 사용이 없고, 생산활동 역시 거의 외부공간에서 협동작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산업사회 이후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분리되고 도시화에 따른 거주지 재편현상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는 위기를 맞게 된다.

7) 서울시 마을넷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서대문 마을넷, 중랑마을넷 등 24개 자치구에 개설되어 있으나, 회원수가 100명 내외이고 게시물 조회수 역시 30건 내외로 참여가 저조하다.

8)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평균 멤버수는 쇼우지(2008)의 연구에서는 1,328명, 와사키(2010)의 연구에서는 1,287명이다.

9) 쇼우지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지역의 SNS로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일정 범위 지역에서 이용자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인터넷 서비스로 가시화 및 공유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용자간 정보공유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서비스’로 정의(庄司昌彦, 2007). 오누마는 SNS가 일기나 프로필 공개, 게시판에서 의견교환 등의 기능으로 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회원제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한다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특정지역의 주민을 이용자 대상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大沼健太郎, 2008). (이 자성, 2013 재인용)

Durkheim, Marx, Weber, Simmuel, Putnam 등 다수의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게마인셰프트(Gemeinschaft)의 약화, 커뮤니티의 붕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감소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¹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며 온라인 공동체가 약화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낙관론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며 디지털 기기, 정치, 중고거래 등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그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하지만 전통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장소의 공유가 아니라 관심의 공유로 조직되었다.¹¹⁾

때문에 온라인 공동체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연결되지는 않았다. Melvin Webber(1963)와 같은 미래학자는 일찍이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발달하면 밀집의 장점이 사라지며 도시(City)가 사라지게 될 거라 예측했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자 Frances Cairncross(2001)은 The death of distance라는 책을 통해 커뮤니티에서 실제 공간과 장소의 의미가 희석될 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온라인의 활성화가 오히려 실제 생활 속 인간관계를 약화시켜 사회적 자본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증가했다.

반면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융합할 때 가장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¹²⁾ 특히 2006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 참여의 장점과 온라인 참여의 장점을 융합하고, 주민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마을만들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0) 게마인셰프트란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회사, 국가, 정당 등 이해타산적 목적으로 모인 게젤셰프트와 대비되는 가족, 친척, 이웃 등 혈연과 지연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한다.

11)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Touchstone Books by Simon & Sch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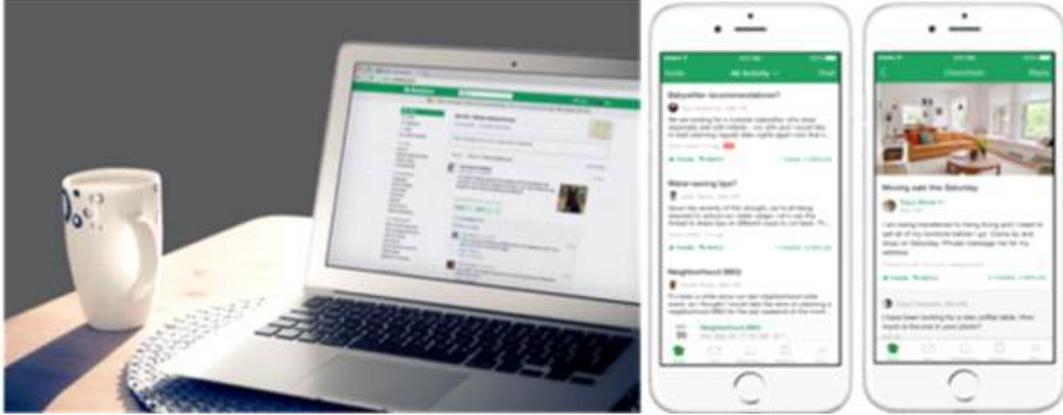
12) William Mitchell(1999), E-topia: Urban Life, Jim-But Not As We Know It, MIT Press., 윤주선(2008), 「아파트 사이버공동체를 통한 주민 준전문가의 마을만들기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Wellman, Barry, Anabel Quan Haase, James Witte, and Keith Hampton(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n.3.

[표 2-3] 성격에 따른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개념도

분류	특징	예시
전통적 주민참여	<p>대표성 ↓ 주로 30명 내외 소수의 참여자가 참여</p> <p>전문성 ↓ 주로 고령자와 전업주부가 참여</p> <p>적극성 ↑ 강한 동기나 사명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p> <p>편의성 ↓ 전지, 우드락 등을 통한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생활밀착형 온라인 커뮤니티	<p>대표성 ↑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p> <p>전문성 ↓ 생활 정보 교환이 많아 전문성은 낮음</p> <p>적극성 ↓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가벼운 참여</p> <p>편의성 ↑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의견 개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지역 카페 페이스북 지역 그룹
목적성 온라인 커뮤니티	<p>대표성 ↓ 모집을 통한 소수의 참여자</p> <p>전문성 ↓ 모집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음</p> <p>적극성 ↑ 흥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적극 참여</p> <p>편의성 ↑ GPS기능을 활용한 편리한 입력과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맵핑 (맵플러) 썸맵
+ 생활밀착형 온라인 커뮤니티	<p>대표성 ↑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p> <p>전문성 ↑ 각 분야 전문가가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롭게 참여</p> <p>적극성 ↓ 소극적 참여자의 참여 기회 확대</p> <p>편의성 ↑ GPS기능을 활용한 편리한 입력과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지역카페 + 커뮤니티 맵핑

5.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해외사례

1) 미국 Nextdoor



[그림 2-9] 넥스트도어 소개
※ 출처 : www.nextdoor.com

① 주요 내용

미국의 넥스트도어(www.nextdoor.com)은 무료로 제공되는 웹 및 모바일 기반 근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소셜 네트워크로,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여 근린 지역 공동체에 관련된 다양한 지역 이슈를 다루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와는 달리 넥스트도어는 사용자를 주소지에 기반한 실거주자에 한정함으로써 사용자간의 친밀도, 안전성 및 정보의 신빙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정보 및 활동은 ‘주거 침입 등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정보 알림’, ‘동네 방범대 운영’,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보 공유’, ‘해당 지역의 우수한 인력 찾기 (예: 페인트업자, 배관공 등)’, ‘실종된 반려동물 찾기’, ‘중고품 (자전거, 가전제품 등) 매매’, ‘동네 사람들과의 친목 도모 (블록 파티¹³⁾ 등’이 있다.

② 개요

□ 설립일: 2010년 10월 샌프란시스코

13) 블록 파티 (block party)란 미국의 주택가에서 한 블록 내에 있는 동네 주민들끼리 어느 하루를 지정하여 골목길의 차량 통행을 막고 여는 파티를 일컫음. 주로 주민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위해 조직되며, 아이들의 놀이터, 바베큐 파티, 바자회, 밴드 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가 열림

□ 운영진

Nirav Tolia가 공동설립자이며 CEO로 있으며 Sarah Leary는 공동설립자이며 마케팅 및 운영팀 부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Prakash Janakiraman은 공동설립자이며 개발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Dan Clancy는 기술 및 상품 개발부 부대표에 있다.

③ 사업 규모

2016년 3월 12일 현재 1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2월 16일 기준으로 미국 내 92,164개 근린지역의 공동체가 넥스트도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미 절반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¹⁴⁾

2010년 벤치마크 캐피탈 (Benchmark Capital)과 샤프스타(Shasta Ventures)로부터 2-3년간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 금액인 1,000-1,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¹⁵⁾ 넥스트도어의 성공에 따라 투자 회사는 창업 초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넥스트도어는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근린 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들과의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근린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넥스트도어의 효과 및 전망

넥스트도어는 미국 내 성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2016년 3월 현재 네덜란드에서 약 93개 근린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¹⁶⁾ 해당 자료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의 동네 공동체 참여율이 미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이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영국에서도 실시할 예정에 있다.¹⁷⁾

지역 내에 다양한 행사 및 소식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범죄 예방에 대한 넥스트도어의 가치가 입증되어,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own Watch로부터 효과적인 마을 방법대로 인정받았다.¹⁸⁾

14) "Nextdoor Expands Internationally, Starting with the Netherlands," Nextdoor News, February 16, 2016.

15) Sarah McBride, "Nextdoor Introduces Neighborhood Social Network," Reuters, October 26, 2011. Accessed on March 12, 2016 (<http://www.reuters.com/article/nextdoor-idUSN1E7902BP20111026>)

16) Ibid.

17) Ibid.

18) Nextdoor for Public Agencies," Nextdoor.

⑤ 공공기관과의 협업 관계

2016년 현재, 넥스트도어는 근린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미국 내 약 900개의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

넥스트도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은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재난 실시간 대비 및 경고, 일기예보, 교통 정보, 각종 사건사고 알림, 워크샵 개최, 정책 홍보 및 관련 의견 청취, 범죄 예방, 마을 주민에 의한 방법대 구성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own Watch (NATW)와의 협업을 통해 National Night Out™(NNO: 미국 전 지역에서 매년 진행되는 마을 단위 범죄예방 행사)에도 참여했다.¹⁹⁾

보다 구체적인 예시로,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²⁰⁾ 들에 대해 경찰서가 주민들과 함께 넥스트도어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한 사용자가 본인의 주택 감시 시스템에 포착된 관련 정보를 경찰서에 제보하여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오스틴 경찰서는 이와 같이 주민에 의한 마을 방법 체제를 범죄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인정하였다.²¹⁾

다른 예시로, 2015년 2월에는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 시의 동물 지원부 (Animal Services Department)가 관련 부서로서는 미국 최초로 넥스트도어와 협업을 시작하였다. 달라스의 해당 부서는 넥스트도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의 동물 보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 "National Night Out Partners with Nextdoor to Help Build Stronger and Safer Neighborhoods Year Round," Nextdoor News, June 12, 2012.

20) 이는 미국에서 car break-ins라는 불리는 용어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 차내의 소지품 및 부속품을 훔쳐가는 행위에서부터 차체를 훼손하거나 심지어 자동차 차체를 절도하는 행위까지를 폭넓게 일컫는다. 따라서 이는 해당 동네의 안전도에 대한 지표로서 흔히 사용된다.

21) "Nextdoor for Public Agencies," Nextdoor.



[그림 2-10] 달라스 Animal Services Dep. 와 넥스트 도어의 업무협약

2) 영국 Streetlife

① 서비스 일반사항

영국의 스트리트 라이프(Streetlife)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정보 및 활동은 ‘근린 지역의 소식, 범죄,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토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소모임 구성’, ‘이웃들과 생활용품 나누기 및 기술, 일손 공유’, ‘지역 내 상점들에 대한 정보 공유’, ‘근린 지역과 관련한 제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 조직’ 등이 있다.

② 설립일: 2011년 3월 21일

③ 사업 규모

2006년 현재 영국 내 4천여 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1백만 여명의 사용자가 스트리트 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다.

④ 비전

스트리트 라이프는 이웃들과의 소통 증진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해 거주하는 동네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요 비전이며 지역 주민 및 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역 상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⑤ 우수사례



[그림 2-11] 깨끗한 동네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활약



[그림 2-12] 동네 도서관을 구하라



[그림 2-13] 주민손에 의한 강 생태계 복원



[그림 2-14]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만들기

깨끗한 동네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활약²²⁾, 동네 도서관을 구하라²³⁾, 우리 고양이가 돌아왔어요²⁴⁾, 주민 손에 의한 강 생태계 복원²⁵⁾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만들기²⁶⁾ 등이 있다.

⑥ 지역기반 커뮤니티의 효과 분석

스트리트 라이프는 연구 기관(YouGov)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체 의식, 주민 참여에의 장애 요소와 주민 참여 증진, 공공 서비스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

22) “Community Comes together to clean up,” from Streetlife’s website. Accessed on March 15, 2016 (<https://www.streetlife.com/about/case-studies/litter/>)

23) “Streetlifers help save threatened library,” from Streetlife’s website. Accessed on March 15, 2016 (<https://www.streetlife.com/about/case-studies/library>)

24) “Poorly Pip returns home safely,” from Streetlife’s website. Accessed on March 15, 2016 (<https://www.streetlife.com/about/case-studies/pip>)

25) “River clean scheme finds help,” from Streetlife’s website. Accessed on March 15, 2016 (<https://www.streetlife.com/about/case-studies/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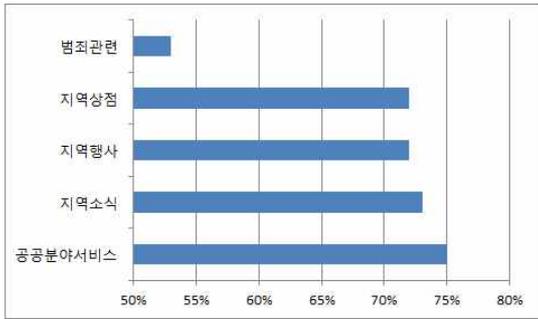
26) “Streetlifers campaign to save local pub,” from Streetlife’s website. Accessed on March 15, 2016 (<https://www.streetlife.com/about/case-studies/wheatsheat>)

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런던의 원즈워스 (Wandsworth) 지구에서 18세 이상 1,892명 성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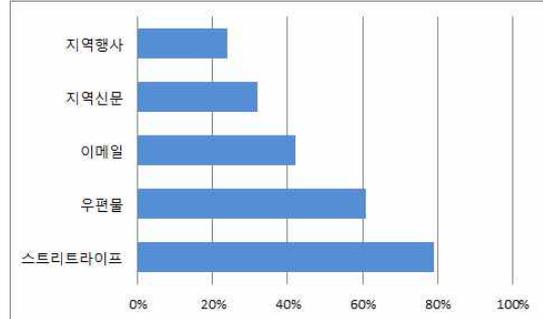
□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방안 1_시당국

응답자 중 87%는 지역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81%는 스트리트 라이프에 참여한 이후 지역 공동체에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스트리트 라이프에 참여한 이후 예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분야는 공공 서비스 (75%), 지역 소식 (73%), 지역 행사 (72%), 지역 상점 (72%), 범죄 관련 (5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5] 스트리트 라이프 참여 이후 획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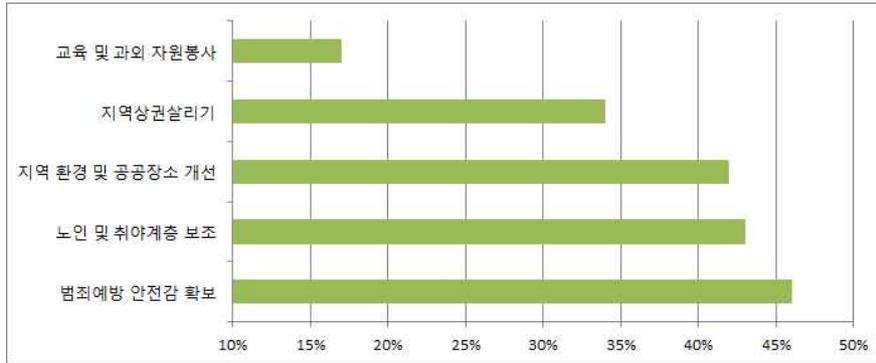
[그림 2-16] 공공기관 정보 획득 신뢰 경로

공공 기관으로부터 지역 관련 소식을 접할 때 선호하는 방법은 스트리트 라이프 (79%), 우편물 (61%), 이메일 (42%), 지역 신문 (32%), 지역 행사 (24%) 순으로 조사. 이는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획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방안 2_경찰서

응답자 중 70%가 지난 1년간 지역에서의 치안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받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55%가 경찰서의 서비스나 관련 지역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고 대답했다.

경찰서로부터 지역 관련 소식을 접할 때 선호하는 방법은 스트리트 라이프 (79%), 우편물 (61%), 이메일 (42%), 지역 신문 (32%), 지역 행사 (24%) 순으로 조사. 이는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획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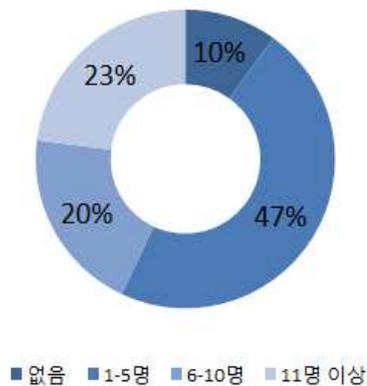


[그림 2-17] 주민참여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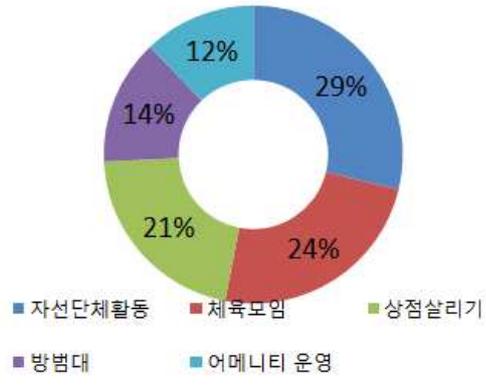
⑦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킹의 기능

응답자 중 51%가 거주 지역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약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가 지역 공동체에 더욱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더 많은 주민 참여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범죄 예방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감 확보 (46%), 마을 내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 (43%), 더 나은 지역 환경 및 공공장소 (42%), 동네 상점에서의 구매를 통해 지역 상권 살리기 (34%),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과외활동을 위한 자원 봉사 (17%) 순으로 대답했다.



[그림 2-18] 대화하는 이웃 수



[그림 2-19] 참여하고 싶은 지역공동체 활동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1-5명이 47%로 가장 많았고 6-10명이 20%, 11명 이상은 23%,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10%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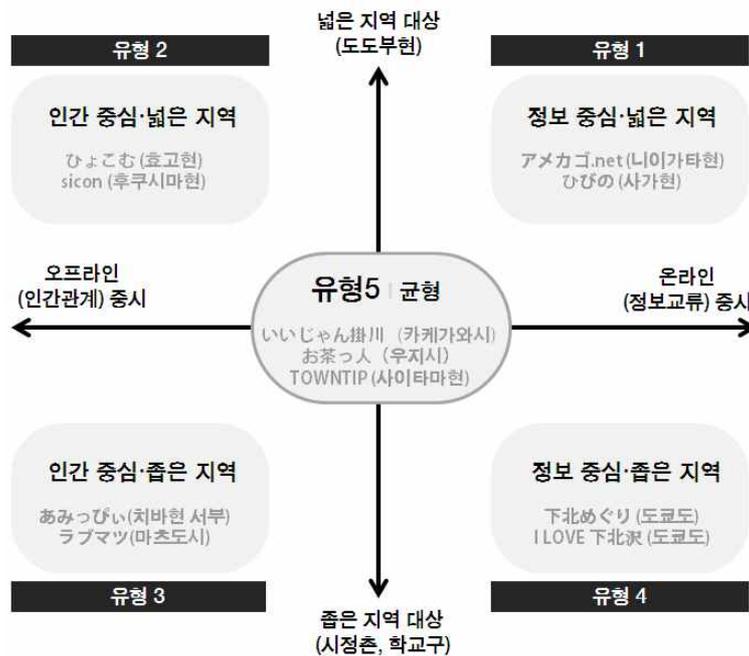
참여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는, 지역 자선 활동 및 단체 (19%), 지역 체육 모임 신설 및 참여 (16%), 소규모 지역 상점을 살리는 캠페인 (14%), 지역 방범대 신설 및 참여 (9%), 펍, 우체국, 도서관과 같은 지역 어메니티 운영 보조 (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기회를 찾거나 만들 시간 부족 (48%), 동네에 아는 사람 부족 (22%),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 부족 (20%), 기회를 찾을 방법 부족 (16%), 규칙이나 규제에 대한 걱정 (16%) 순으로 나타났다.

3) 일본 지역SNS

① 지역SNS

일본 지역SNS의 출발은 2004년 12월 구마모토현의 공무원 고바야시씨가 방치되어 있던 지자체 전자게시판을 당시 유행하던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믹스에서 영감을 받아 SNS형식으로 리모델링한 고롯토앗치로(<http://www.gorotto.com>)다.



[그림 2-20] 일본 지역SNS의 유형
 ※ 출처 : 윤주선 · 정일지(2014, p37)

리뉴얼한 고롯토얏치로는 2년만에 접속자수가 7배 이상 증가하며 대 성공을 거뒀다. 이를 눈여겨 보던 총무성에서는 2005년 2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SNS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1차년도 실증실험에서 지역SNS가 오프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이 59.6%에 이르는 등 순기능이 확인되자, 2008년까지 29개 지역으로 지역SNS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시범사업의 성공이 전국 매스컴에 보도되며 2010년에는 전국 519개 지역에 지역SNS가 개설되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SNS 붐이 일어났다. 일본 지역SNS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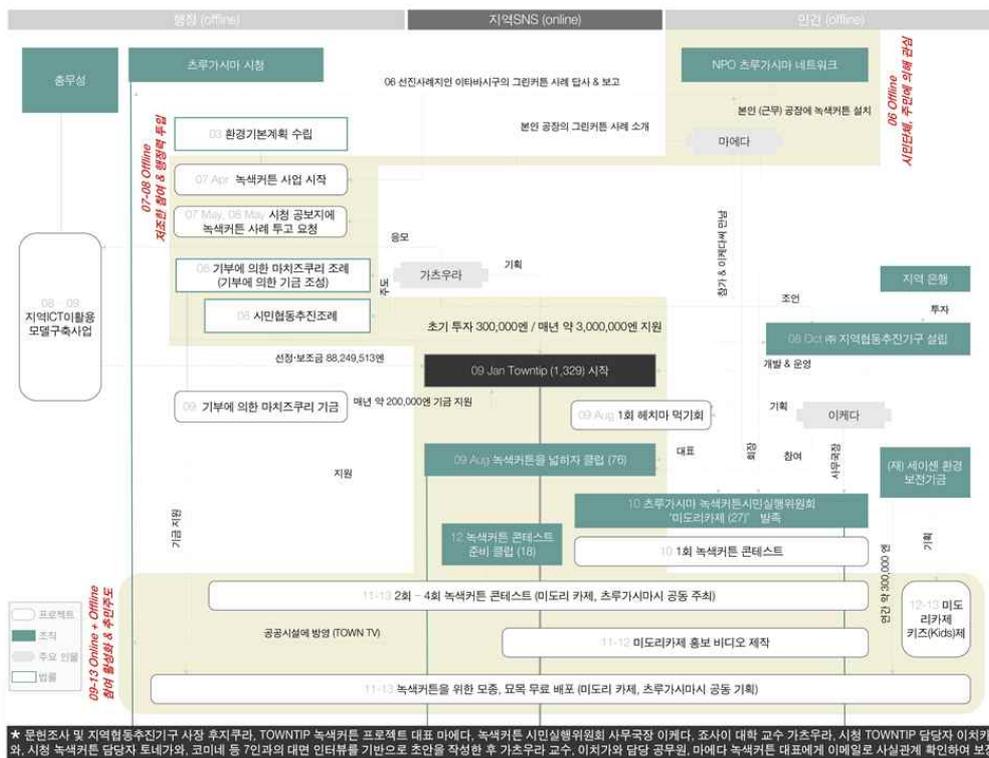


[그림 2-21] 일본 지역SNS의 경과
※ 출처 : 윤주선 · 정일지 (2014, p26)

은 행정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촉진시킨 영향으로 행정과의 연계도가 높다는 점과, 유료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② 지역SNS 활용 사례

지역SNS를 활용한 일본 마을만들기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사이타마현 츠루가시마시 타운치프의 녹색커튼 사업이다. 녹색커튼은 벽면녹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츠루가시마시에서도 2007년부터 일반 주택에 녹색커튼을 보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 대다수의 도시가 그렇듯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행정력이 약화되어 사업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타운치프에 개설된 “녹색커튼을 넓히자” 모임은 녹색커튼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곳곳에서 점적으로 녹색커튼을 설치한 개인들이 지역SNS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녹색커튼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혹은 실제 만남을 통해 교류하면서 조직화가 진행되었다. 녹색커튼을 설치한 주민에서 출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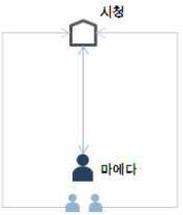


[그림 2-22] 츠루가시마 타운팁 그린커튼 사업 개요
※ 출처 : 윤주선 · 정일지 (2014, p87)

이 모임은 온라인을 매개로 지역의 다른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녹색커튼 콘테스트를 기획하거나 녹색커튼을 위한 씨앗, 모종 배포 사업을 전개하는 등 행정이 기획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공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새로운 공공”적 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 했다.

[표 2-4] 초루가시마 타운치프 시기별 흐름 분석

	1기 비연계기	2기 온라인 연계기	3기 온오프 연계기	4기 파트너십 형성기
시기	~2008	2009	2009 ~ 2010	2010 ~ 현재
주요 활동	·시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녹색커튼을 설치	·Towntip 내의 녹색커튼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 시작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던 녹색커튼 설치 시민간의 첫 네트워크 형성 (Online)	·Towntip을 매개로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거나, 오프라인의 인연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등 다양한 조직들이 연결됨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녹색커튼 시민실행위원회 (애칭: 미도리카제) 설립 ·녹색커튼 콘테스트 시작 ·미도리카제 키즈제 개최 ·모종 무료 배포 시작
참여 방식	·Offline	·Online	·Online + Offline	·Online + Offline
정보 교류	·시청 공보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됨	·Towntip 내의 녹색커튼 커뮤니티를 통해서로의 노하우 공유 ·Towntip내에 녹색커튼 부산물인 과실, 열매 조리법 연구를 위한 커뮤니티 생성 ·정보교류는 아직 온라인에 한정	·Towntip 내에서 형성된 인연이 Offline으로 확대되어 실제 공간에서도 자주 만나며 녹색커튼에 대한 정보 공유 ·녹색커튼에서의 부산물인 과실, 열매를 같이 먹으며 친밀감 향상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녹색커튼 시민실행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요 행사 정보 교류 ·녹색커튼 콘테스트를 위해 Towntip내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 생성
예산	·별도 예산 책정 없음	·별도 예산 책정 없음	·시민으로부터의 시청으로의 기부금에서 녹색커튼을 위한 금액이 할당됨 ·자선공연단과 공동으로 커뮤니티 식당에서 공연을 펼치며 모금	·4회 녹색커튼 콘테스트부터 행정으로부터 예산 지원받음 ·(재) 세이센 환경보전기금으로부터 모종 무료 배포를 위한 예산 지원받음
주요 인물 (Key)	·마에다: 환경ISO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녹	·마에다: Towntip내에 녹색커튼을 퍼트리자 커뮤니티를 설립	·마에다: 평소알고 지내던 부모아이 극장 회원에게 Towntip내	·마에다: 녹색커튼 시민 실행위원회 회장 역임

	1기 비연계기	2기 온라인 연계기	3기 온오프 연계기	4기 파트너십 형성기
시기	~2008	2009	2009 ~ 2010	2010 ~ 현재
person)	<p>색커튼을 본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설치</p> <p>·마에다씨가 공장에 설치한 녹색커튼은 2008년 환경서 주최 제 2회 eco선언단체부문에서 환경대신상 수상</p>		<p>녹색커튼 사업을 소개하여 함께 미도리카제 키즈제 기획</p> <p>·이케다: 국제교류모임에서 활동하던 이케다씨가 Towntip에서 녹색커튼 사업을 보고 합류, 주요멤버로 활동하기 시작</p>	<p>·이케다: 녹색커튼 시민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역임</p>
조직연계				
행정	<p>·시민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녹색커튼을 찾아서 설치주민에게 하락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p> <p>·녹색커튼 생육정보를 시청 공보지에 수록</p>	<p>· 행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녹색커튼 설치 시민을 취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던 것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Towntip에 사진을 올리도록 유도</p>	<p>·기부금 카테고리 중 친근한 녹색의 보존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업에서 녹색커튼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금 마련</p>	<p>·행정에서는 온라인에서 글을 쓰기보다 가능한 많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서 공감대 형성 시도</p> <p>·녹색커튼 콘테스트 장소, 예산 지원</p> <p>·모종 무료배포 사업 장소 지원</p>
시민(개인)	<p>·지인에게 정보를 얻거나 우연한 기회에 녹색커튼을 알게 되어 설치</p>	<p>· 개인적으로 녹색커튼을 설치하던 주민 중 일부가 Towntip을 통해 서로 교류를 시작</p>	<p>·Towntip을 활용하지 않은 시민들도 TOWN TV 등 다양한 매체로 녹색커튼 정보 취득</p> <p>· 녹색커튼 콘테스트 참가</p>	<p>·온라인만 사용하는 시민은 온라인에서 녹색커튼 활동 내용 모니터, 기부</p> <p>·오프라인만 사용하는 시민은 이벤트 혹은 콘테스트에 참여</p>
시민단체	<p>·초루가시마환경네트워크 등의 환경단체가 타 지역의 녹색커튼 보고</p>	-	<p>· 자 선 공 연 단 이 Towntip에서 녹색커튼 사업을 보고, 협력을 제안하여 공동으로 모금 공연을 펼침</p>	<p>·실행위원회와 협력</p>

	1기 비연계기	2기 온라인 연계기	3기 온오프 연계기	4기 파트너십 형성기
시기	~2008	2009	2009 ~ 2010	2010 ~ 현재
Tow ntip	·개설 전	· 녹색커튼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설치됨	·녹색커튼에 관심 있 는 다양한 주체 연결	·주요 정보 교류 수 단으로 활용
미도 리카 제	·설립 전	·설립 전	·설립전	·매달 월례 회의 개최 ·녹색커튼 콘테스트, 미도리카제 키즈제, 모 종 무료 배포 등 추진

* 출처 : 윤주선·정일지(2014, pp.90~91)

[표 2-5] 일본의 주요 지역SNS

연번	설립	지역		지역SNS 명	회원 수 [회원 번호를 근거로 한 추정치]	행정연계
1	2007	홋카이도	키타히로시마시	KitahiroshimaRegionalSNS 「Shabenet」	불분명 (2011/1/10) [1612]	○
2	2007	홋카이도	오타루시	Otaru City Regional SNS	-	-
3	2006	아오모리	하치노헤시	HachinoheRegionalSNS 「Hachim-i-tsu」	2,001 (2010/6/1) [3492]	×
4	-	아키타		SNS 「commit」	-	-
5	2007	이와테	모리오카시	MoriokaRegionalSNS 「MorioNet」	1,101 (2011/1/11)	○
6	-	미야기		「Huratto」	5,000 이상 [2,012]	-
7	2005	니가타	나가오카시	NagaokaRegionalSNS 「Okokonago-ka」	불분명 (2011/1/10) [1,782]	-
8	-	니가타		「Amerigo.net」	-	-
9	2006	군마	마에바시시	MaebachiCitizenNetworkSystem 「Maeria」	2,100 (2010/2/25) [3,933]	-
10	-	치바	서부치바지역	「NishiChibaAmippy」	3,123 (2009/03)	-
11	2005	도쿄	치요다	ChiyodawardRegionalSNS 「Chiyoppi」	불분명 (2011/1/10) [3,147]	-
12	2007	도쿄	미타카시	MitakaRegionalSNS 「Pokinet」	1,900 (2011/1/4) [3,247]	○
13	-	카나가와		「Kanacoco」	-	-
14	2006	사이타마	치추부시	ChichibuCitizenNetwrokService 「Chichi」	불분명 (2011/1/10) [1,814]	-
15	2006	기후	오가키시	Ogaki Regional SNS	-	-
16	2007	시가	타카시마시	「Takashimakitenet !」	불분명 (2011/1/10) [1,452]	○
17	2008	시가	야수시	YasucityRegionalSNS 「Yasumaru」	400 (2010/9/17) [1,588]	-

연 번	설립	지역		지역SNS 명	회원 수 [회원 번호를 근거로 한 추정치]	행 정 연 계
18	2008	시즈 오카	미시마시	MishimacitizenPortalsite 卜 RegionalSNS 「MishimaLife」	-	-
19	2006	시즈 오카	카케가와 시	「e-jangKakegawa」	3,567 (2014/3/01)	○
20	-	시즈 오카	이와타시	「IwatacityRegionalSNS」	-	-
21	2008	아이 치	안조시	AnjocityRegionalSNS 「An-mitsu」	875 (2009/12/16) [2,653]	-
22	2006	교토	우지시	「Ochattbito」	2,001(2010/12/31) [3,636]	○
23	2007	미에	마츠스카 시	RegionalSNS 「Matsusakabelnet」	740 (2010/3/31) [2,120]	-
24	-	와카 야마	타나베시 남동지역	「Mican」	-	-
25	-	효고	사사야마 시	TanbanoSasayamaRegionalSNS 「Hot ! Sasayama」	326 (2008/2/28) [1,720]	○
26	2007	효고	사요초	SayoSNS 「Sayocchi」	542 (2011/1/11)	○
27	2008	효고	시소시	shisoSNS 「E-Shiso」	170 (2011/01/10)	×
28	2006	효고		citizenofpref. Exchange Plaza SNS 「Hyocom」	4,876 (2009/03)	
29	2006	오사 카	토요나카 시	「Machikanet」 ToyonakacityReg ionalSNS	불분명 (2011/1/10) [2,061]	○
30		카가 와	타카마츠 시	TakamatsucityRegionalSNS 「Na ngadekkyonna」	-	-
31	-	가카와		「EverybodyInfantCareCheeringParty」	-	-
32	2007	시마 네	마추시	MatsueSNS 「MatsueSNS」	758 (2011/1/11)	-
33	2011	후쿠 오카	치쿠고, 오무타, 쿠루메 지역	ChikugoRegionalSNS 「Waiwaichi ggo」	-	○

연 번	설립	지역		지역SNS 명	회원 수 [회원 번호를 근거로 한 추정치]	행 정 연 계
34	2006	후쿠 오카	오쿠타시	SNS	불분명 (2011/1/10) [2,826]	-
35	2007	후쿠 오카	쿠루메시	KurumeRegionalSNS 「Tsusuji-net」	1,000 (2010/1/15) [2,689]	-
36	2007	후쿠 오카	마에하라 시	Maehara city Regional SNS	-	-
37	-	사가		「HibinoCommunity」	9,503 (2009/03)	-
38	2006	나가 오카	고토시	GotocityRegionalSNS 「GotoKatar anNet」	불분명 (2011/1/10) [2,372]	○
39	-	나가 오카	오무라시	KyusyuNorthAreaInformationPro motionCouncilSNS 「HanashiteMy-ka」	-	○
40	2004	쿠마 모토	야츠시로 시	「GorottoYacchiro」	-	○
41	2006	오이 타	오이타시	OitacityRegionalSNS 「Daikinrin」	불분명 (2011/1/10) [1,238]	×
42	2006	카고 시마	아마미시	「Ma~jinma」 AmamicityRegiona ISNS	불분명 (2011/1/10) [1,180]	-
43	2008	사이 타마	츠루가시 마	Towntip	1,329 (2014/01/26)	○
44	-	카고시마		KagoshimaRegionalSNS 「NikiNiki」	-	-

제3장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특성 분석

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2. 도시재생사업지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3. 주민참여 참여자의 구분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특성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 조사 방법

국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대체로 Daum카페와 네이버카페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전후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대다수 네이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고, Daum카페의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카페를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는 2016년 2월 16일 ~ 2016년 3월 7일, 2016년 8월 5일 각각 수행했으며, 전국 76개 행정시와 69개 자치구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했다.²⁷⁾ 검색된 네이버카페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며 상업목적, 음란, 도박 목적이 아닌 친목도모, 지역문제 해결, 마을만들기, 맘스카페를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조사된 지역기반 네이버 카페 수는 행정시 기반 1,522개, 자치구 기반 46개였으며, 전체 지역기반 네이버 카페 멤버 수 총합은 9,241,034명으로 전체 인구(2016년 7월 기준)의 14.84%에 이른다.

27) 키워드 검색은 네이버 카페명 검색을 활용했으며, 예를 들어 “구리시”인 경우 검색어는 “구리”와 “구리시”로 검색했다.

[표 3-1] 전국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 통계

	총 커뮤니티 수	총 멤버수	전체글 수	인구대비 멤버수
행정시	1,522	5,924,838	37,441,376	12.63%
자치구	46	1,579,590	8,077,341	8.04%
합계	1,568	9,241,034	42,320,345	14.84%

* 출처 : 네이버 카페

행정시 기준의 각 지역기반 네이버 카페 당 1일 평균 게시글수는 12건, 검색 수는 578.2건, 댓글 수는 101.4건, 신규가입 회원은 1.3명이었다. 자치구 기준의 각 지역기반 네이버 카페 당 1일 평균 게시글 수는 86.5건, 검색 수는 5,321.6건, 댓글 수는 613.3개, 신규 가입회원은 10.5명이었다.

[표 3-2] 전국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 통계

	1일 평균게시물	1일 평균 검색수	1일 평균 댓글수	1일 평균 신규가입
행정시	24.3	1,175.8	206.2	2.6
자치구	176.0	10,820.6	1,247.1	21.3
합계	28.8	1,458.7	236.8	3.2

* 출처 : 네이버 카페, 자체 통계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 취합, 온라인 커뮤니티별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1 달간의 통계를 사용

전체 인구 대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멤버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은 과천시(69.03%), 구리시 (40.23%), 군포시(40.45%), 김포시 (38.77%), 용인시 (53.41%), 의정부시(39.85%), 파주시(61.10%), 진주시(35.17%), 통영시(35.69%), 세종특별자치시 (38.86%)이다. 신도시가 밀집된 지역이 주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속한 지역은 인구대비 지역 온라인 플랫폼 멤버수가 2%대에 머무는 지역도 다수 있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시, 광주광역시, 순천시 등 인구 대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가입자수가 10% 이상인 지역이 우선 적용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표 3-3] 지자체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초 통계

시	인구 수	총 멤버수	전체글 수	인구대비 카페멤버수 (%)	1일 평균 게시물	1일 평균 검색수	1일 평균 댓글수	1일 평균 신규가입
고양시	1,027,546	12,797	22,482	1.25	63.50	1,187.70	1,187.70	34.63
과천시	68,946	47,594	83,251	69.03	48.67	5,476.37	257.60	25.43
광명시	344,978	94,813	612,777	27.48	737.30	208,658.13	6,184.70	72.37
광주시	312,579	78,464	414,810	25.10	511.93	13,402.67	2,173.43	55.77
구리시	186,721	75,110	419,639	40.23	569.30	17,125.03	3,196.10	67.43
군포시	287,519	116,302	687,032	40.45	505.57	21,915.73	1,701.93	43.40
김포시	349,990	135,681	1,127,925	38.77	1,659.63	83,849.97	14,715.63	302.00
남양주시	653,454	79,233	227,440	12.13	293.17	13,838.90	1,706.80	8.40
동두천시	97,974	15,748	168,282	16.07	252.53	3,977.43	1,988.47	14.67
부천시	848,987	171,066	952,319	20.15	857.43	99,651.03	9,478.67	60.53
성남시	971,424	61,726	198,433	6.35	145.73	3,419.33	1,373.03	37.63
수원시	1,184,624	134,932	419,814	11.39	350.17	12,256.03	2,463.87	88.33
시흥시	398,256	38,523	181,969	9.67	188.97	11,130.33	1,663.23	37.27
안산시	697,885	69,109	227,176	9.90	219.63	5,965.60	1,564.33	24.87
안성시	180,199	44,480	326,607	24.68	614.07	26,619.00	4,094.00	50.67
안양시	597,789	136,367	793,384	22.81	829.03	56,759.03	7,732.93	90.93
양주시	205,184	25,791	249,688	12.57	224.77	13,151.07	2,174.20	15.70
여주시	111,033	9,851	7,049	8.87	19.13	62.23	105.57	11.37
오산시	206,828	58,854	644,044	28.46	660.87	29,597.53	3,969.37	38.50
용인시	975,746	521,140	632,906	53.41	285.67	8,867.37	1,356.27	93.93
의왕시	157,740	1,603	9,415	1.02	4.73	213.77	15.23	0.43
의정부시	433,937	172,929	643,931	39.85	587.70	30,130.60	5,561.00	90.43
파주시	423,321	258,637	1,915,183	61.10	1,616.87	99,689.73	14,324.97	141.40
평택시	460,532	32,295	89,551	7.01	135.80	2,191.63	980.33	21.57
포천시	155,192	19,895	33,652	12.82	89.67	4,510.47	768.07	9.83
하남시	166,713	9,893	28,688	5.93	9.80	313.17	27.77	6.43
화성시	596,525	13,114	44,862	2.20	13.07	298.97	28.77	5.03
공주시	111,261	2,962	111,661	2.66	91.07	2,585.50	889.20	6.50

시	인구 수	총 멤버수	전체글 수	인구대비 카페멤버수 (%)	1일 평균 게시글	1일 평균 검색수	1일 평균 댓글수	1일 평균 신규가입
논산시	124,232	10,526	111,753	8.47	166.87	8,149.30	1,145.93	11.77
당진시	165,122	47,503	293,999	28.77	297.80	11,120.17	1,301.83	28.70
보령시	104,754	12,291	92,749	11.73	100.63	4,363.67	636.17	6.97
서산시	170,099	40,294	347,460	23.69	227.80	16,094.73	1,830.67	30.27
아산시	297,737	8,516	31,406	2.86	65.00	414.47	492.43	9.33
천안시	605,776	98,063	744,066	16.19	1,228.93	16,827.07	9,832.00	102.50
충주시	207,913	10,025	17,248	4.82	324.47	5,812.13	1,758.50	18.90
청주시	831,912	234,278	680,137	28.16	355.93	20,480.03	2,614.07	94.63
거제시	255,828	36,780	256,015	14.38	315.33	7,890.10	1,593.63	20.47
김해시	528,865	74,485	689,616	14.08	941.37	31,694.30	5,060.97	65.60
밀양시	107,896	7,749	87,096	7.18	126.83	5,943.27	1,116.73	5.33
사천시	115,452	2,729	5,019	2.36	1.53	58.53	3.63	0.33
양산시	301,291	34,870	79,303	11.57	93.70	4,145.57	381.03	24.63
진주시	344,426	121,119	677,193	35.17	1,136.33	36,058.20	6,315.80	118.23
창원시	1,070,064	129,290	756,545	12.08	695.03	25,961.67	4,923.97	57.83
통영시	139,168	49,668	121,381	35.69	251.80	12,058.13	2,058.90	75.17
경산시	256,888	4,387	12,538	1.71	4.93	394.60	9.87	1.00
경주시	259,773	3,249	3,480	1.25	3.10	91.13	2.27	1.40
구미시	419,915	75,084	1,168,488	17.88	1,496.27	78,166.93	11,746.23	58.13
김천시	140,132	23,107	141,924	16.49	206.20	9,422.23	1,344.10	25.60
문경시	75,784	1,725	5,033	2.28	4.57	296.57	30.10	1.80
안동시	169,221	3,710	4,018	2.19	11.83	61.97	13.43	7.40
영천시	100,648	2,207	215	2.19	7.10	48.23	17.90	6.07
포항시	519,584	49,414	939,742	9.51	1,200.63	72,115.53	10,128.87	43.33
나주시	98,182	2,665	18,589	2.71	51.90	295.87	324.57	5.77
목포시	238,382	46,509	374,226	19.51	539.97	33,572.63	3,959.90	29.00
순천시	278,765	53,802	1,112,540	19.30	935.03	56,282.47	10,597.40	25.97
여주시	290,168	47,079	395,331	16.22	368.77	20,309.40	3,024.00	22.20
군산시	278,398	20,872	752,288	7.50	498.23	16,278.53	2,788.60	19.17

시	인구 수	총 멤버수	전체글 수	인구대비 카페멤버수 (%)	1일 평균 게시글	1일 평균 검색수	1일 평균 댓글수	1일 평균 신규가입
김제시	88,721	1,405	5,851	1.58	1.87	9.13	0.30	0.10
익산시	302,061	10,258	29,146	3.40	19.57	799.20	34.13	4.60
전주시	652,282	103,324	1,523,049	15.84	1,584.70	64,666.83	11,054.97	96.03
정읍시	115,977	2,723	5,922	2.35	30.07	139.00	117.37	7.07
춘천시	277,997	16,108	42,498	5.79	50.77	1,130.23	192.73	14.53
원주시	332,995	6,082	89,673	1.83	148.50	655.77	1,337.90	7.83
강릉시	214,560	15,645	246,691	7.29	209.57	12,847.90	1,671.07	19.07
동해시	93,895	9,509	230,789	10.13	196.97	8,022.10	1,436.87	10.53
속초시	81,992	13,299	103,371	16.22	102.47	4,029.43	444.97	11.30
삼척시	70,839	4,157	52,237	5.87	72.83	2,928.23	602.17	3.90
세종특별자치시	210,884	81,947	437,343	38.86	968.33	44,345.70	6,769.87	108.97
서울특별시	10,022,181	350,519	2,348,690	3.50	580.93	13,007.17	3,309.83	142.83
인천광역시	2,925,815	351,506	2,346,127	12.01	3,083.97	92,137.33	53,952.27	331.50
대전광역시	1,518,775	331,282	2,248,058	21.81	2,547.23	123,635.73	19,496.47	212.67
부산광역시	3,513,777	301,724	2,113,797	8.59	2,153.87	47,910.57	10,177.73	331.90
울산광역시	1,173,534	249,927	1,841,814	21.30	138.30	4,037.03	326.33	28.30
대구광역시	2,487,829	73,779	415,603	2.97	1,764.93	98,831.13	21,800.50	140.60
광주광역시	1,482,199	285,474	2,046,195	19.26	410.93	5,941.97	5,304.23	72.83
제주특별자치도	624,395	25,265	121,154	4.05	247.90	14,998.77	1,721.00	73.20
합계	46,899,966	5,924,838	37,441,376	12.63				

* 출처 : 네이버 카페, 자체 통계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 취합, 온라인 커뮤니티별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한달간의 통계를 사용

2. 도시재생사업지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

1) 도시재생 사업지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유형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구성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은 폐쇄성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은 가장 높은 폐쇄성과 신뢰 [표 3-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플랫폼 유형별 특성

	폐쇄성	신뢰도	대표성
네이버 BAND,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음 내부자의 초대로만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음 외부에 공개가 까다로운 논점에 대한 내밀한 논의 가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고, 지속적 협의를 해온 대상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호간의 신뢰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낮음 오프라인 참여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열성적 참여자만이 참여하게 되어 대표성이 낮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높음 가입신청이 필요하며, 미리 설정된 답변을 마친 후 관리자가 가입 결정 대체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가입 가능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높음 지역 주민만을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대표성 높음 등급제도를 통한 게시물 접근권한 설정과 회칙을 통한 강제탈퇴 규정이 있어 과격한 논쟁에 대처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높음 접근성이 높고 자료들의 흥미도가 높아 많은 회원수를 가지므로 대표성이 높은 편임
페이스북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낮음 가입신청이 필요하며, 설정에 따라 관리자 혹은 멤버가 가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낮음 지역 주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낮음 페이스북에 대한 중장년층의 친숙도가 아직 높지 않음
페이스북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낮음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낮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게시판으로, 광고의 비율이 높고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낮음 지역주민 이외에 사람들이 다수 참여 페이스북에 대한 중장년층의 친숙도가 아직 높지 않음

도를 가지나 핵심 참여자 이외의 그룹은 전체 정보를 초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어 오프라인 모임과 동일하게 대표성 획득에는 한계를 보인다. 네이버나 다음카페는 다소 높은 폐쇄성과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접근성이 높고 회원가입절차가 어렵지 않아 높은 대표성을 가진다. 회원관리와 게시판 관리를 할 경우 신뢰도와 대표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의 경우 가입절차가 별도로 없어 가장 낮은 폐쇄성을 가져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누구든 글을 쓸 수 있고 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가 드물어 신뢰도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유형은 가장 폐쇄성이 높은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선택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접근성이 어려워 표3-5와 같이 회원수가 100여명 내외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활발히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목적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가입회원수는 평균 124.7명이었다. 한편 표3-6과 같이 포털사이트 기반의 커뮤니티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회원수는 평균 46,671.1명으로 346배 많은 회원수를 보였다. 목적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도시재생만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고 도시재생 이외의 이슈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슈의 도달성 측면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표 3-5] 국비지원 도시재생지역 목적형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2016.08.08. 기준)

유형	지자체	커뮤니티 유형	커뮤니티 명	회원수/좋아요(like)
경제기반('14)	충북 청주시	네이버 밴드	제2기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운천신봉동 활성화팀)	9명
경제기반('14)	부산 동구	네이버 밴드	2016부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협의	21명
근린일반('14)	서울 종로구	페이스북 페이지	창신송인도시재생	850명
근린일반('14)	서울 종로구	페이스북 그룹	낙산과 동망봉이 품은 행복마을, 창신송인	255명
근린일반('14)	서울 종로구	네이버 카페	낙산과 동망봉이 품은 행복마을 - 창신송인	38명
근린일반('14)	전북 군산시	다음 카페	군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17명

28) 해당지역 거주자로 가입조건을 제한하고 있으나, 검증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음

유형	지자체	커뮤니티 유형	커뮤니티 명	회원수/좋아요(like)
근린일반('14)	광주 동구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 동명동 / 동밖거리 트레킹	100명
근린일반('14)	전남 목포시	네이버 밴드	목포도시재생 서포터즈	64명
근린일반('14)	전남 목포시	페이스북 페이지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08명
근린일반('14)	경남 창원시	페이스북 그룹	창원 도시재생지원센터	50명
근린 소('14)	충남 천안시	네이버 밴드	천안도시재생	11명
근린 소('14)	충남 천안시	네이버 밴드	복지여중 우리마을바로알기 「우리들의 천안원도심 이야기」	-
근린 소('14)	충남 천안시	네이버 밴드	원도심을 사랑하는 사람들	54명
근린 소('14)	충남 천안시	페이스북 그룹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22명
근린 소('14)	충남 천안시	네이버 카페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80명
근린 소('14)	충남 공주시	페이스북 페이지	공주다운 도시재생 이야기	156명
근린 소('14)	강원 태백시	페이스북 페이지	통리 도시재생지원센터	13명
근린 소('14)	전남 순천시	네이버 밴드	순천시 도시재생(통합밴드)	272명
근린 소('14)	전남 순천시	네이버 카페	순천 도시재생 '천가지로' 커뮤니티 카페	5명
경제기반('16)	서울 도봉, 노원구	네이버 밴드	희망지사업지구 동민모임 돌리두레	22명
경제기반('16)	인천 중, 동구	페이스북 페이지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577명
경제기반('16)	인천 중, 동구	네이버 카페	인천 도시재생사업지	2,134명
경제기반('16)	대전 중, 동구	네이버 밴드	대전 도시재생아카데미 1기	19명
경제기반('16)	대전 중, 동구	네이버 밴드	대전 재생기자단	21명
경제기반('16)	대전 중, 동구	네이버 카페	대전 도시재생 지원센터 시민기자단&서포터즈	32명
근린중심('16)	전북 전주시	네이버 밴드	전주도시혁신센터 협동사무실	18명
근린중심('16)	전북 전주시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시 도시재생 서포터즈 '온고을리'	210명
근린중심('16)	충북 충주시	네이버 밴드	성서동중심상권도시재생추진협의회	112명
근린중심('16)	충북 충주시	네이버 밴드	충주 도시재생대학	63명

유형	지자체	커뮤니티 유형	커뮤니티 명	회원수/좋아요(like)
근린중심('16)	충북 제천시	네이버 밴드	도시재생3기 생활환경개선	7명
근린중심('16)	충북 제천시	네이버 카페	제천시도시재생 커뮤니티	39명
근린중심('16)	울산 중구	네이버 밴드	울산 도시재생연구회 (울산 중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297명
근린중심('16)	울산 중구	네이버 카페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15명
근린일반('16)	서울 용산구	페이스북 페이지	해방촌 도시재생	319명
근린일반('16)	서울 용산구	네이버 카페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190명
근린일반('16)	서울 구로구	페이스북 페이지	가리봉 도시재생	103명
근린일반('16)	인천 강화군	네이버 밴드	강화군도시재생대학4팀새시장	9명
근린일반('16)	인천 강화군	네이버 밴드	도시재생대학 새시장팀	14명
근린일반('16)	인천 강화군	네이버 밴드	2016 강화군 도시재생대학_길상면 관광활성화팀	17명
근린일반('16)	인천 강화군	네이버 카페	강화군 도시재생 서포터즈	33명
근린일반('16)	인천 강화군	네이버 카페	강화읍 도시재생지원센터	24명
근린일반('16)	인천 강화군	네이버 카페	강화군 도시재생대학	44명
근린일반('16)	경기 부천시	네이버 밴드	부천도시재생대학 운영진모임	9명
근린일반('16)	경기 수원시	네이버 밴드	2016년 시민도시재생대학	46명
근린일반('16)	경기 수원시	네이버 밴드	우리마을을 우리손으로	63명
근린일반('16)	경기 수원시	페이스북 페이지	수원 마을만들기 시민연구모임-대동계	79명
근린일반('16)	경기 수원시	다음 카페	사단법인 수원시도시재생협의회	8명
근린일반('16)	충남 아산시	네이버 밴드	배방원도심재생	157명
근린일반('16)	충남 아산시	네이버 블로그	꿈자을 배방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근린일반('16)	충남 아산시	다음 카페	배방 원도심 재생 주민회의	25명
근린일반('16)	충남 아산시	페이스북 페이지	꿈자을센터 "배방도시재생현장지원"	35명

유형	지자체	커뮤니티 유형	커뮤니티 명	회원수/좋아요(like)
근린일반('16)	광주 광산구	네이버 밴드	광주 도시재생대학 2기 (2조)	10명
근린일반('16)	전남 나주시	네이버 밴드	나주 도시재생지원센터	317명
근린일반('16)	전남 나주시	네이버 밴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운영위원회	16명
근린일반('16)	전남 나주시	네이버 블로그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근린일반('16)	강원 춘천시	페이스북 페이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18명
근린일반('16)	울산 동구	네이버 밴드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	11명
근린일반('16)	부산 강서구	페이스북 페이지	신장로일원 도시재생	299명

[표 3-6] 국비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포털 카페 기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도·광역시	시·구	카페명	URL	운영규칙			운영진 선출 방식	공공기관 연계 여부	대상지역범위	회원수 (2016.08.08 기준)
				가입조건	등업조건	운영목적				
부산	동구	★☆☆부경맘(부산맘/경남맘) ☆☆	http://cafe.naver.com/pusanmom	부산, 경남 거주 예비엄마나 아이 엄마가 아닌 경우도 누구나 가입 가능	부경,태아,영아,유아,슈퍼,감사등급 게시글,댓글,드림횟수충족시 등업	상업, 친목, 정보교환, 육아세대 친목, 정보 교환	매니저, 부매니저, 스텝 4인	N	부산, 경남, 양산, 김해, 창원 등 경남지역 대부분	114,456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맘모여라(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 증평괴산진천 음성세종	http://cafe.naver.com/hig2	여자만 가입 가능	엄마,미녀,꽃미녀,특급미녀,친구업체 자기소개,게시글,댓글수,웹인증샷게시 등급에따라참여게시판이다름	가족, 육아 관련 정보교류, 친목도모, 공동구매 등	매니저, 부매니저, 스텝 4인	N	충북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증평,괴산, 보은,진천, 세종시	141,234
서울	성북	세클맘 in 성북/동대문/종로	http://cafe.naver.com/3gumomclub	성북, 동대문, 종로 거주자	새싹-상급-행복-으뜸-달인 게시글,댓글,출석횟수	육아/지역 생활 정보 교류, 친목도모	매니저,부매니저:카페설립자와외의남편 운영진의 임기는 당해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 1년 단위로 연장	N	성북구,종로구,동대문구	8,846
광주	동구	광주다모임★광역/광주맘/맛집/부동산/웨딩/중고/휴대폰/중고차	http://cafe.naver.com/levnosprism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	나무, 열매, 가지, 잎새, 새싹, 씨앗	무료 생활광고 부동산 구인구직 학원 과외 자동차 중고가전 생활서비스 맛집 여행	매니저, 스텝 1인	N	광주광역시	42,482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익산맘아이[미아방지,적성검사,임신,태교,출산,육아]	http://cafe.naver.com/gunsanmomi	전북 군산, 익산 예비맘, 아이맘을 비롯해 출산, 육아, 교육 등에 관심있는 사람	일반,성실,열심,우수,감사 게시글,댓글수,출석횟수	아이미아방지,태교,적성검사,영상제작등무료서비스제공 임신출산육아교육모임,아기엄마,맛집맛집,요리,여행,미용정보교류	매니저, 부매니저 1인	N	전북 군산, 익산	1,457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엄마들이됐다	cafe.naver.com/gunsanmom	여자만가입가능 1960~1996이전출생자만 가입가능		친목도모, 임신, 육아, 교육 베틀 등 을 운영	매니저, 부매니저1인, 스텝 9인	Y 경찰서,지방경찰청,보건소,자	군산 전 지역	18,117

도·광역시	시·구	카페명	URL	운영규칙			운영진 선출 방식	공공기관 연계 여부	대상지역범위	회원수 (2016.08.08 기준)
				가입조건	등업조건	운영목적				
				운영진승인후가입				원봉사센터등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맘들의수다방!!!	http://cafe.naver.com/mokpomam	목포, 무안, 삼호, 해남, 강진 거주 중인 아이엄마		엄마들의생활정보교류,제휴업체활용,공동구매,나눔,친목도모	매니저 1인, 스텝 9인	N	목포, 무안, 삼호, 해남, 강진	46,509
경남	창원시	『창원맘스베베』 임신,출산,육아,친목,태교교실,프리마켓,정모	http://cafe.naver.com/littleiggystudio	예비맘,아가맘 초등맘 누구나 상관없이 굳이 창원,경남사시는분이 아니라도 편하게 이용	초보,센스,프로,파워,수퍼맘 게시,덧글,출석(정모등오프라인모임참석도포함),행사참석여부,vip핑크멤버십	정모를위주로친목을도모하고,육아정보를공유 MBC임신육아교실,창원대표프리마켓,풀만호텔태교교실운영	매니저1인, 부매니저1인, 스텝 135명	N	창원,마산,진해(경남)지역	33,037
대구	남구	대구맘365-결혼,임신,출산,육아,돌잔치커뮤니티	http://cafe.naver.com/dgmom365	여자만가입가능/1940이후1997이전출생자만가입가능	새싹,정회원,우수회원,최우수회원,VIP 게시,덧글,출석횟수,가입기간	대구,경북맘들의 휴식공간 결혼,임신,태교,이유식,임산부교실,육아교실,출산준비물,대구돌잔치장소,웨딩홀 등 정보교환, 프리마켓, 친목도모, 제휴업체 소개	매니저1인, 부매니저1인, 스텝 9명	N	대구, 경북지역	78,695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아산줌마렐라	http://cafe.naver.com/no1cheonan	1955이후1998이전출생자만가입가능	옹알이,뒤집기,걸음마,주부9단,여왕렐라 게시,덧글,출석횟수,가입기간	매달 정모&예비맘교실개최/지역 커뮤니티 정보/ 결혼, 임신, 육아 출산 정보 모음, 친목도모, 제휴업체 소개	매니저, 부매니저, 부매니저 스텝 1인, 스텝 8인	N	천안, 아산	31,33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맘들의사랑방	http://cafe.naver.com/gongju2008	여자만가입		충남공주의 임신부와 아기엄마들의 임신,육아,교육이야기,인테리어,요리,도자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 정보교환, 친목도모, 장터 운영, 협력업체 연계	매니저 1인, 스텝 3인	Y 문화센터,사회복지센터,공주시청등	충청남도 전체	2,962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맘(순천,광양맘)	http://cafe.naver.com/cjsam	여자만가입 1970년이후1996년이전출생자만가입		지역생활정보교환,육아,교육,살림정보교환,중고직거래,주택거래,친목도모,제휴업체연계	매니저, 부매니저, 스텝 1인	N	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고흥, 보성	40,920

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행정과의 협업

2016년 들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약(MOU)체결이 급증했다. 2016년 8월 현재 총 21개 지자체에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개소는 경찰서이다. 이는 지역 내 커뮤니티 강화를 통한 치안 확보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NEXTDOOR와 유사한 구조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대체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에 별도의 행정기관 게시판을 설립하고 홍보 및 알림 내용을 이곳에 게시하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주민은 행정의 신속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취득하고 의견을 줄 수 있다. 행정 게시판은 여타 게시판에 비해 조회수가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규모가 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A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시청의 공식 회의에서 실국장급의 대우를 받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한다(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인터뷰, 2016.04.22.). 경기도 B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도 수시로 시장과 각 실국장 및 경찰서장 등과 면담을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의 전달사항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는 등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인터뷰, 2016.04.22.). 행정에서는 기존의 팜플렛, 리플렛, 벽보, 현수막 등의 방법보다 정보의 도달성이 높고 지역예의 파급력이 강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행정 조직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자에게 바로 건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인터뷰, 2016.04.22.).

“시장, 각 부서의 실국장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의사 소통이 용이하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성이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오프라인 주민참여의 경우 주무관-팀장-과장-국장-실장-부시장-시장 등 행정라인을 거쳐 올라가다 한 군데서만 틀어져도 의사전달이 실패했는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나니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A 지역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2016.04.22.)

[표 3-7] 행정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업무협약(MOU) 현황

지자체명	공공기관명	온라인 지역카페명	회원수	전체게시물수	협약개요	업무협약 체결일	업무협약 이후 추진 개요
1. 이천시	이천경찰서	네이버 이천맘스토리	6,517 (160801 23:48 기준)	352,300 (160808 11:16 기준)	체감 안전도 향상, 4대 사회악 등 효율적 홍보	2016.02.19	“이천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5.07.27. - 2016.07.30. 21개 게시물 등록 2016.02.19. - 2016.07.30. 13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12.7회 (160801 23:48 기준) 평균 댓글수 5.9개 (160808 11:22 기준)
2.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네이버 천안아산준마렐라	37,969 (160802 15:34 기준)	498,027 (160808 11:23 기준)	4대 사회악 근절 및 아동학대사건 예방	2016.04.06	“천안동남경찰서” 게시판 신설 2016.04.19. - 2016.08.03. 9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69.6회 (160803 17:43 기준) 평균 댓글수 15.5개 (160808 11:25 기준)
3.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네이버 동백엄마들의 사랑방	15,286 (160802 15:54 기준)	424,315 (160808 11:26 기준)	4대 사회악 근절 및 체감안전도 향상	2016.02.26	현재 신규 가입 신청 금지(2016.12.31.까지)
4. 파주시	파주경찰서	네이버 파주맘	162,944 (160802 15:57 기준)	1,518,444 (160808 11:27 기준)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2016.03.08	“파주 경찰서” 게시판 신설 2016.03.14. - 2016.08.03. 50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86.1회 (160803 17:51 기준) 평균 댓글수 10.5개 (160808 11:30 기준)
5.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수원맘 모여라	156,581 (160802 16:14 기준)	1,661,847 (160808 11:36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경찰소식방” 게시판 운영 2015.07.16. - 2016.08.08. 142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33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04.3회 (160808 13:24 기준) 평균 댓글수 2.4개 (160808 13:27 기준) 우리동네 바꿔주세요 메모란 신설
6. 성남시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분당판교따라잡기	28,176 (160802 16:25 기준)	108,833 (160808 13:31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분당 POLICE와 함께” 게시판 운영 2016.02.23. - 2016.08.08. 28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6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68.9회 (160808 13:35 기준) 평균 댓글수 6.5개 (160808 13:36 기준)
7. 군포시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산사모	110,710 (160808 16:36 기준)	670,934 (160808 14:55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군포 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5.07.30. - 2016.08.08. 130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26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57.6회 (160808 14:40 기준) 평균 댓글수 4.4개 (160808 14:43 기준)
8. 부천시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부천맘 애솔나무	57,032 (160802 16:39 기준)	844,902 (160808 14:56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부천경찰서소식” 게시판 운영 2015.07.22. - 2016.08.08. 94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16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86.4회 (160808 14:51 기준) 평균 댓글수 4.6개 (160808 14:53 기준)
9. 용인시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동탄맘들 모여라	154,480 (160802 16:57 기준)	1,831,688 (160808 14:56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무엇을도와드릴까요?(화동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6.02.05. - 2016.08.08. 36개 게시물 등록(답글 17개 by화성동부경찰서) 2016.06.03. - 2016.08.08. 9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844.5회 (160808 15:01 기준) 평균 댓글수 8.7개 (160808 15:04 기준)

지자체명	공공기관명	온라인 지역카페명	회원수	전체게시물수	협약개요	업무협약 체결일	업무협약 이후 추진 개요
							“생활정보!이건 모르셨죠?” 게시판 운영 2015.09.15. - 2016.08.08, 120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21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479.4회 (160808 15:12 기준) 평균 댓글수 2.4개 (160808 15:14 기준)
9. 안산/시흥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안산 시흥 맘 모여라	66,131 (160802 17:37 기준)	1,254,494 (160808 15:17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폴리스 뉴스” 게시판 운영 2015.07.23. - 2016.08.08, 100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28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341.4회 (160808 15:25 기준) 평균 댓글수 24.3개 (160808 15:28 기준)
10. 용인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용인엄마들의 모임	27,660 (160802 17:42 기준)	173,285 (160808 15:31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용인서부경찰서(협약)” 게시판 운영 2015.07.27. - 2016.08.08, 45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5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193.4회 (160808 15:38 기준) 평균 댓글수 3.4개 (160808 15:39 기준)
11. 안양/의왕	경기남부경찰청	네이버 ♥맘스홀릭♥ 안양평촌군포의왕 맘들의 카페	28,470 (160802 18:00 기준)	105,935 (160808 15:41 기준)	범죄·사고로부터[여성이 안전한 경기남부 치안]	2016.06.03	“경기남부경찰청” 게시판 신설 2016.06.14. - 2016.08.08, 2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55회 (160808 15:43 기준) 평균 댓글수 10개 (160808 15:43 기준)
							“안양만안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5.08.12. - 2016.08.08, 77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12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8.6회 (160808 15:56 기준) 평균 댓글수 3.3개 (160808 15:57 기준)
							“경기의왕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6.02.25. - 2016.08.08, 12개 게시물 등록 2016.06.03. - 2016.08.08, 1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42회 (160808 15:58 기준) 평균 댓글수 0.5개 (160808 15:59 기준)
12. 경기 광주	광주경찰서	네이버 경기 광주맘들의 행복만들기	43,303 (160802 18:09 기준)	286,661 (160808 16:00 기준)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한 광주 등을 도모	2016.02.18	“광주경찰서 소식방” 게시판 신설 2016.02.22. - 2016.08.08, 14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30.2회 (160808 16:05 기준) 평균 댓글수 2.3개 (160808 16:06 기준)
13.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	네이버 다고은	15,286 (160803 10:58 기준)	46,183 (160808 16:07 기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4대 사회악 근절	2015.08.07	“안양동안폴리스” 게시판 신설 2015.08.13. - 2016.08.08, 90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93.6회 (160808 16:14 기준) 평균 댓글수 5.7개 (160808 16:17 기준) 2016.06.23, 서장 및 소속경찰관과 카페회원 간담회(우수 회원 4명 감사장 수여)
14. 광명시	광명경찰서	네이버 나눔카페	58,939 (160803 11:19 기준)	525,898 (160808 16:18 기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	2016.02.23	“e-광명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5.08.21. - 2016.08.08, 50개 게시물 등록 2016.02.23. - 2016.08.08, 28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18.2회 (160808 16:25 기준) 평균 댓글수 3.1개 (160808 16:26 기준)

지자체명	공공기관명	온라인 지역카페명	회원수	전체게시물수	협약개요	업무협약 체결일	업무협약 이후 추진 개요
15. 고양시	고양경찰서	네이버 삼원지맘	12,882 (160803 11:22 기준)	119,210 (160808 16:28 기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치안 강화	2016.03.08	“덕양구 치안소식방” 게시판 신설 2016.03.08. - 2016.08.08. 40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60.6회 (160808 16:30 기준) 평균 댓글수 4.2개 (160808 16:31 기준)
16. 진주시	진주경찰서	네이버 진주아지매	30,074 (160803 11:32 기준)	399,924 (160808 16:32 기준)	4대 사회악 근절 사항 공유	2016.04.27	“진주경찰서” 게시판 운영 2015.07.09. - 2016.08.08. 20개 게시물 등록 2016.04.27. - 2016.08.08. 11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14.7회 (160808 16:34 기준) 평균 댓글수 4.7개 (160808 16:35 기준)
17. 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	다음 대구맘	134,220 (160803 11:37 기준)	비공개	온라인 참여치안과 예방치안을 위한 업무협약	2016.03.28	“달서경찰서” 게시판 신설 2016.03.24. - 2016.08.08. 26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612.5회 (160808 16:45 기준) 평균 댓글수 3.6개 (160808 16:47 기준)
							“남부경찰서” 게시판 운영(익명) 2013.08.22. - 2016.08.08. 180개 게시물 등록 2016.03.28. - 2016.08.08. 17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437회 (160808 17:00 기준) 평균 댓글수 1.8개 (160808 17:03 기준)
18. 안산시	안산평생학습 원	네이버 안산 시흥 맘 모여라	66,150 (160803 13:36 기준)	1,254,618 (160808 17:13 기준)	평생학습원 교육홍보 협약	2016.07.18	“안산시 평생학습원 교육” 게시판 신설 2016.07.11. - 2016.08.08. 10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514.2회 (160808 17:17 기준) 평균 댓글수 10.2개 (160808 17:18 기준)
19. 부천시	부천소사경찰 서	네이버 날스	30,016 (160803 13:52 기준)	95,337 (160808 17:18 기준)	4대 사회악 근절 업무협약	2015.08.26	“부천소사경찰서” 게시판 신설 2015.08.25. - 2016.08.08. 1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497회 (160808 17:20 기준) 평균 댓글수 6개 (160808 17:20 기준)
20. 시흥시	시흥경찰서	네이버 시흥맘들의 수다방	10,972 (160803 14:01 기준)	102,167 (160808 17:21 기준)	체감안전도 향상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2015.08.10	“시흥경찰알림e” 게시판 신설 2015.08.03. - 2016.08.08. 32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285.5회 (160808 17:24 기준) 평균 댓글수 9.5개 (160808 17:25 기준)
21.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 청	울산맘's 모여라~	41,535 (160803 14:10 기준)	340,320 (160808 17:26 기준)	여성이 안전한 울산을 위한 업무협약	2016.06.17	“경찰청 소식보기” 게시판 운영 2016.04.06. - 2016.08.08. 25개 게시물 등록 2016.06.17. - 2016.08.08. 5개 게시물 등록 평균 조회수 77.8회 (160808 17:28 기준) 평균 댓글수 1.4개 (160808 17:29 기준)

3. 주민참여 참여자의 구분

1) 전통적 관점에서 참여자 특성 분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책대상자인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 구분 방식을 검토했다.

참여의 전체적 특성에 대한 단계별 구분은 아른스타인의 참여의 사다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참여자는 참여분야, 참여의 곤란도, 참여의 자발성, 정책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참여분야에 따른 참여자 유형

Verba와 Nie(1972; pp.73~81)는 참여자의 유형을 참여 분야에 따라 비참여자(The Inactives), 투표만 하는 자(The Voting Specialists), 민원인(The Parochial Participants), 공동체주의자(The Communalists), 선거운동인(The Campaigners), 완전체 활동가(The Complete Activists)로 구분했다. Milbrath와 Goel(1977; pp.18~19)는 미국인의 참여 유형을 비참여자형(Inactive), 투표자형(Voters), 공직자 접촉형(Contact specialists), 의사소통형(Communicators), 정당·선거운동원형(Party and Campaign Workers), 지역사회활동형(Community Activists), 항의형(Protestors)으로 구분했다.

[표 3-8] 미국인의 참여 유형 구분

참여 형태	참여 유형	항목 정의	비고	수요 형태
적극형	비관습적 항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두시위 참석 (3%) 필요하다면 폭동 (2%) 강력한 항의(정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경우) (26%) 항의집회 참석 (6%) 부당한 법률에 대한 복종거부 (16%)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매우 적극적인 정부 요구; 특히 시민권 보호와 경제적 기회 제공 요구
	관습형 지역사회 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제에 관하여 타인과 일함 (30%) 지역 문제를 위한 집단을 구성 (15%) 지역사회 내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 	이들은 정기적으로 투표에 참가	정부의 직접적 복지제공보다는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이용

참여 형태	참여 유형	항목 정의	비고	수요 형태
		(8%) •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직자 접촉 (14%)		
	정 당·선거운동원형	•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함 (26%) • 투표에 있어 타인을 설득 (28%) • 정치적 집회에의 참석 (19%) • 정당이나 후보자에 헌금 (35%) •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임 (3%)	정규적으로 투표	특별한 형태가 없음
	의사소통형	• 정치에 관한 정보 제공 (67%) • 정치 토론에 참석 (42%) • 신문 편집자에 투고 (9%) • 정치 지도자에게 지지 또는 항의 서한을 보냄 (15%)	투표에 상당히 참여함	정부성과를 관찰, 토론, 비판, 감시
	공 직 자 접촉형	• 특정문제에 관하여 지방, 주, 국가 공직자와 접촉 (4%)	이외의 활동에는 비참여적임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보다는 개인의 수요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추구
수 동 지 원형	투표자형	• 선거에 정규적으로 투표 (63%)		
냉 담 형	비참여자형	• 투표 또는 여타 활동을 하지 않음 (22%)		

* 출처 : 이승중·김혜정(2011, p.121) 재인용, Milbrath and Goel(1977)

□ 참여 곤란도에 따른 참여자 유형

Milbrath(1965; pp.18~19)는 참여의 정도(activism)또는 곤란도(difficulty)에 따라 참여활동을 투사형 활동, 과도형 활동, 관객형 활동, 무관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활동의 예시를 15가지로 구분했다. 관객형 참여자들은 참여활동에 수동적이고 참여한다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형 활동가들은 투표, 토론, 선호도 표현 등의 활동을 한다. 공격적 활동가는 각종 단체에 가입하거나 직접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공격형 활동으로 갈수록 참여의 곤란도와 기회비용(cost)가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참여자의 수도 적어지게 된다.²⁹⁾ Milbrath(1965; pp.18~19)의 조사 결과 관객형 참여자의 비율은 60%, 과

29) 이승중·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p.112.

도형 참여자의 비율은 10-15%, 공격형 참여자의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표 3-9] 참여 곤란도에 따른 참여자 유형 구분

참여활동의 예	참여 유형	비중
각종 지역 단체에 임원으로 활동	공격적 활동(gladiatorial activities)	5-7%
지역 유관 단체에 회원으로 활동		
지역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활동		
지역 봉사단체에 회원으로 활동		
지역 문화, 스포츠 동호회에 회원으로 활동		
공청회에 참가	과도형 활동 (transitional activities)	10-15%
주민참여 워크샵에 참가		
지역 축제에 참가		
반상회에 참가		
지자체 설문조사에 참여	관객형 활동 (spectator activities)	60%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		
지역 문제에 대해 이웃과 논의		
비참여	무관심형 (apathe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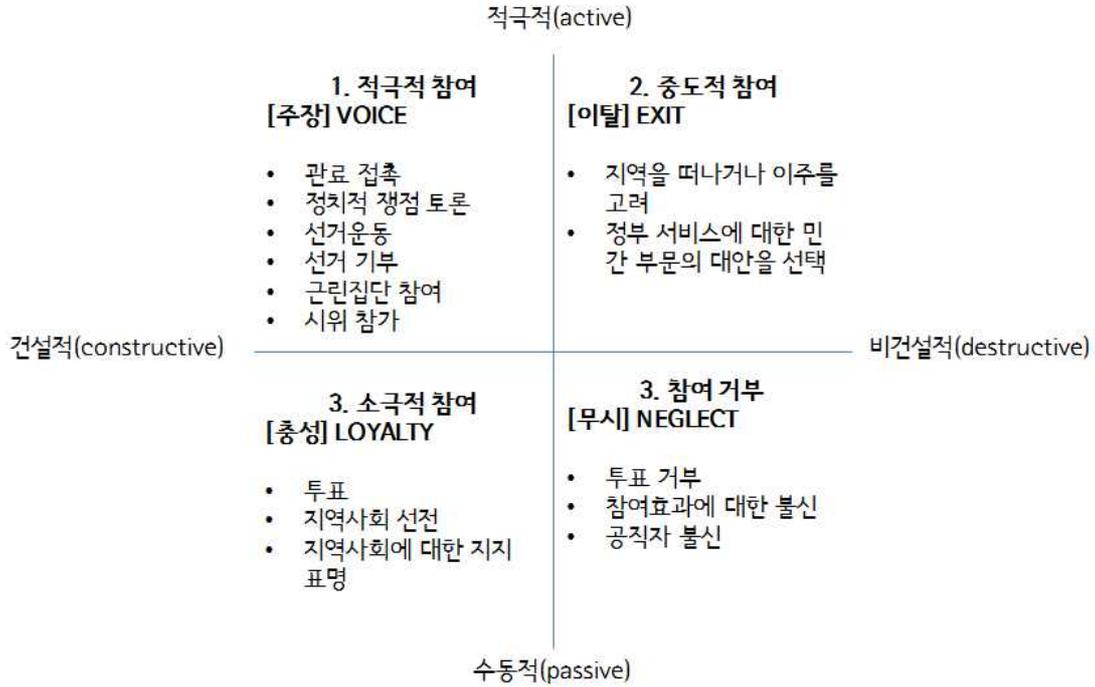
* 출처: Lester Milbrath(1965), 18-19 재구성

□ 참여 자발성에 따른 참여자 유형

짐머맨(Zimmerman(1986; pp.6~13))은 참여자를 참여 자발성에 따라 능동적 참여(active form)와 수동적 참여(passive form)으로 구분했다. 수동적 참여는 행정이 시민에게 문제 자체나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각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과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행위로서 PR, 정보공개,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다. 반면 능동적 참여는 주민총회(town meeting), 공청회(public hearing), 민간자문위원회(citizen advisory committees), 시민현장의 제정과 수정(charter drafting and amendment),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발안(initiative), 주민소환(recall), 자원봉사(volunteerism) 등이 있다.

□ 정책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른 참여자 유형

허쉬만(Hirschman,(1970))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대응방식을 기준으로 주민참여를 이탈, 주장, 충성으로 구분했다. 라이온스(Lyons)와 로워리(Lowery)는 무시를 추가하여 정책 불만에 대한 대응방식을 네 가지로 구분했고, 이승중·김혜정(2011; p.110)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림 3-1] 정책 불만에 대한 대응 국면

※ 출처 : 이승중 · 김혜정(2011) 재인용, (원출처: LYONS AND LOWERY(1989; p.843))

□ 참여의 궤도

Creighton(2005; p.53)는 로렌츠 아젠스의 공공 참여의 궤도(The orbits of public participation)를 일부 수정하여 참여 궤도 모델을 제안했다.



[그림 3-2] 참여의 궤도 모델 Creighton(2005;53)

2) 온라인 참여자 특성 분류

□ 온라인 참여자의 참여유형 구분

가트너(Gartner, 2008)는 온라인 참여자를 개인 참여의 정도와 그룹 참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기여자(contributors), 창작자(creators), 방관자(the lurkers), 기회주의자(the opportunists)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3) 참여유형을 바라보는 관점

참여자가 참여를 결정하는 데에는 참여에 따르는 시간, 노력, 대인관계의 부담, 지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참여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여 방식마다 참여의 비용과 참여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여자는 이를 고려하여 본인의 참여 정도를 정한다. 참여자의 참여 정도 선택에 관해 단일차원 관점과 다중차원 관점이 존재한다.

□ 단일차원 관점(uni-dimensional view)

단일차원 관점에서의 참여는 어떤 참여활동에 참여한 자는 다른 참여활동에도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참여는 누적적(cumulative)또는 부가적(additive)인 행동으로 고단계 지역활동에 참여한 자는 저단계 지역활동에도 참여한다는 주장이다. 단일차원 관점은 참여의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참여를 한 사람은 참여의 난이도가 낮은 유형의 참여 활동에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이다.

□ 다중차원 관점(multi-dimensional view)

다중차원 관점은 참여유형은 참여자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여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참여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여 난이도가 낮은 유형의 참여활동에도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 데모에 참여한 참여자가 마을 반상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지역기반 온라인 참여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참여에서도 단일차원 관점과 다중차원 관점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열성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오프라인의 참여와 온라인의 참여는 별개라는 인식도 있다.

4.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특성과약을 위한 설문조사

1) 참여자 설문 개요

□ 설문의 목적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를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참여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했다.

□ 설문 대상

- 설문 대상지

1차 설문 대상은 국토부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에 위치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설정했다. 2차 설문 대상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언론기사에 소개된 적이 있는 대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설정했다.

- 설문 대상자

설문 대상자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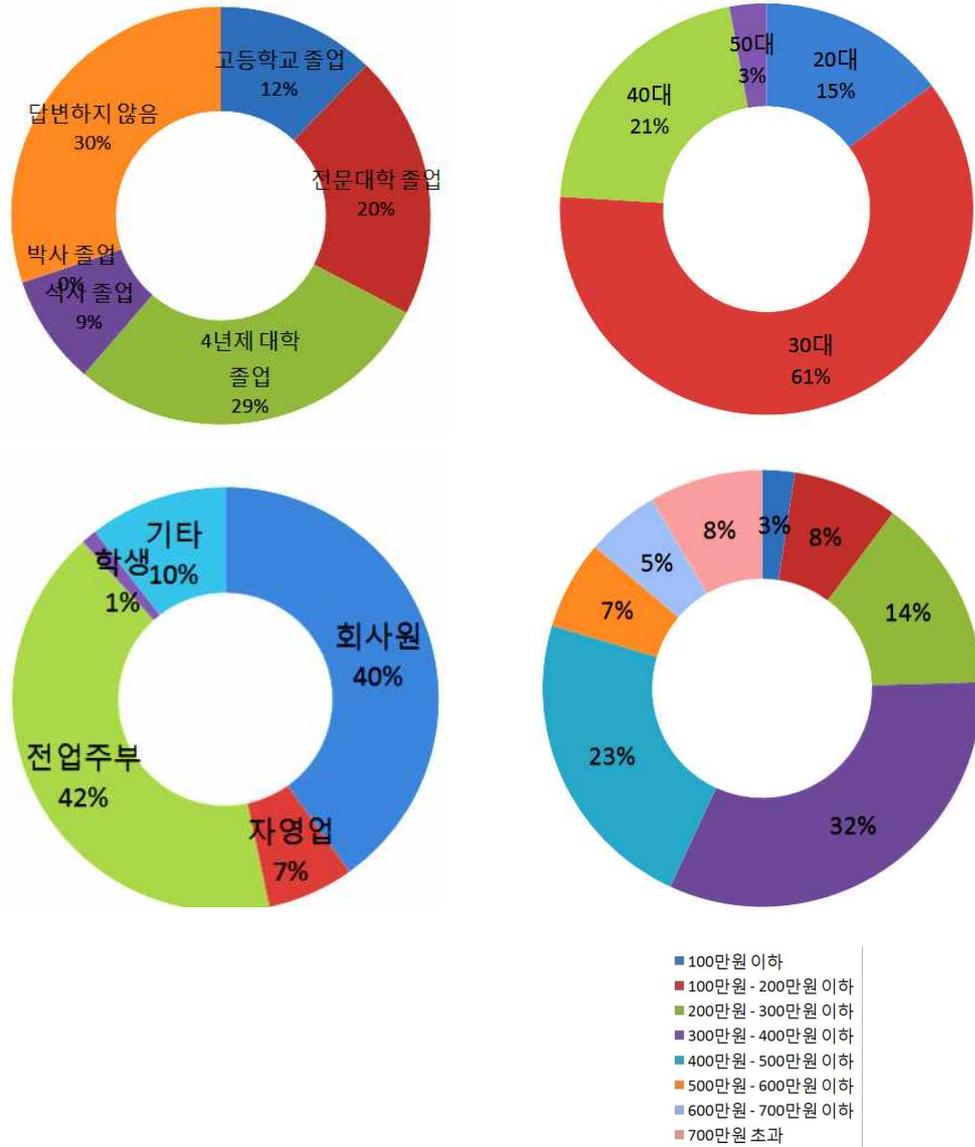
- 설문 방법

설문조사는 서베이몽키를 활용해서 진행했다. 국비지원 도시재생지역이 포함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51개소 및 대표적 지역기반 온라인 카페 7개소에 이메일과 쪽지로 연락을 취하여 이 중 답변이 온 7개 카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방식은 운영자와 사전 협의 후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했으며, 일부 카페의 경우 응답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응답률을 높였다.

- 설문 대상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 | | | |
|------------|---------|------------|
| 1. 안시모 | 2. 산사모 | 3. 파워부산맘 |
| 4. 부경맘 | 5. 부산마미 | 6. 창원 맘스베베 |
| 7. 김포맘 한아름 | | |

설문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총 470명이었다. 응답자는 대학졸업자 이상이 49%, 30대가 61%, 전업주부가 4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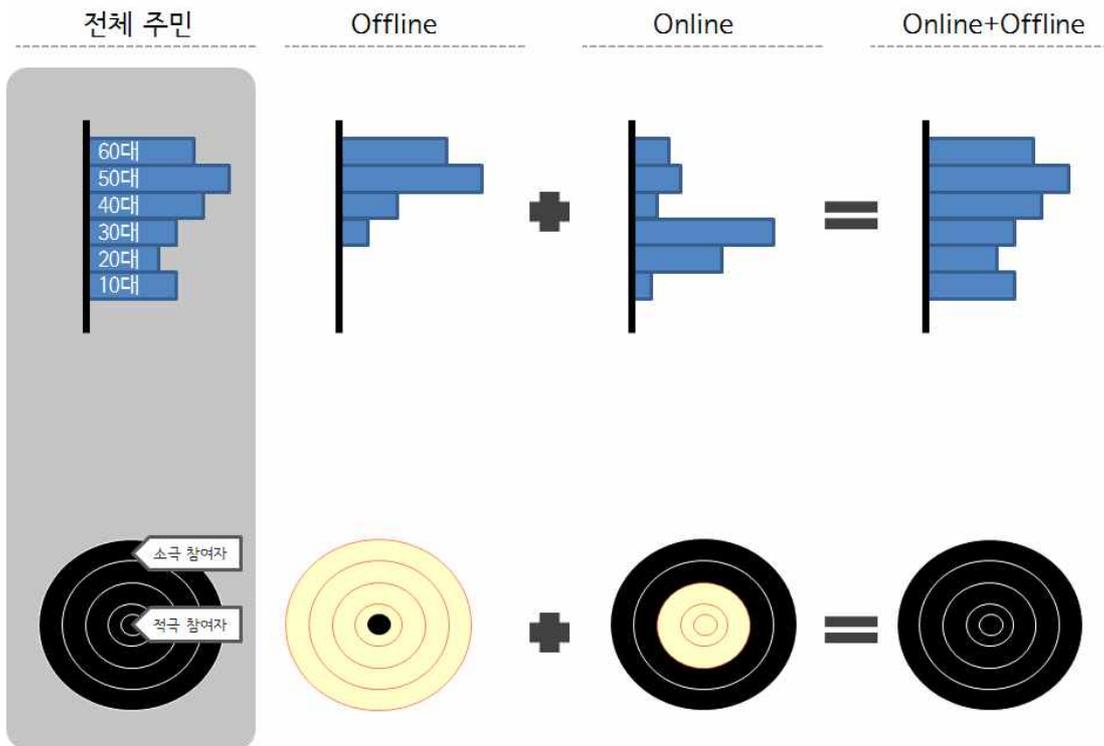
[그림 3-3]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속성

□ 설문 내용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오프라인 참여자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는 연령적인 차이가 있어 두 가지 참여 방식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닌 혼합의 방법을 활용하면 대표성의 보완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참여자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는 참여유형 혹은 참여 난이도 측면에서 계층이 구분되어 두 가지 참여 방식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닌 혼합의 방법을 활용하면 참여유형 측면에서의 보완이 가능하다.
-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도 적극적 참여자 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한연대보다 약한 연대가 증가할 것이다.



[그림 3-4] 설문조사를 위한 1차 가설 설정

2) 설문 설계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참여자 유형 중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주민참여의 과잉 대표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구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약한 연대를 통한 구

조직 공백(structural hole), 교량형 및 연결형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다.

□ 설문 목적

- 주민 대표성 파악
- 참여자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유형 파악
- 약한 연대 형성 정도 파악

3) 설문 결과 분석

① 참여자 설문

□ 오프라인 조직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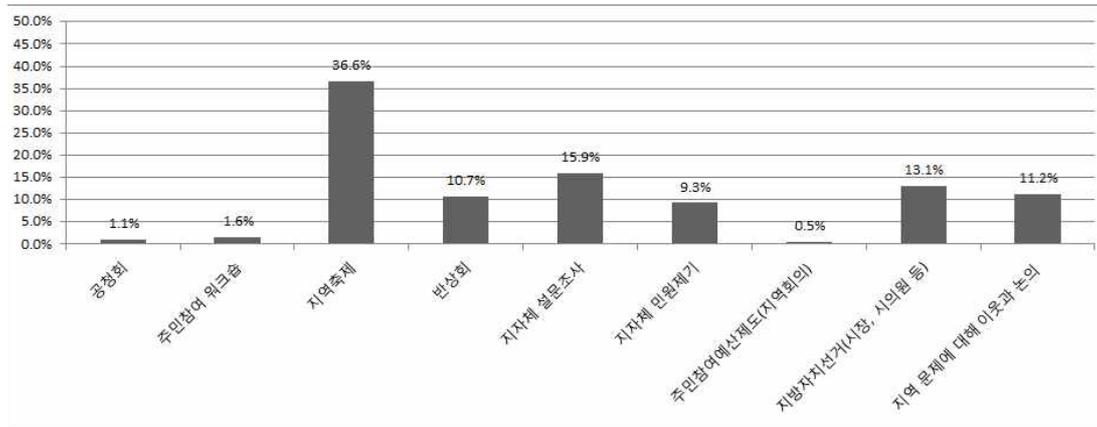
질문에 응답한 총 356명 중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동대표 등 직능단체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89.9%였으며, 지역봉사단체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비율이 80.1%,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 동호회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68.3%, 지역 시민단체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88.5%였다. 대부분의 온라인 설문 참여자는 오프라인에서는 비참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전/후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3-10]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참여한 적 없음	회원으로 간헐적활동	회원으로 적극활동	임원으로 활동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동대표 등 직능단체	321	27	7	2
지역 봉사단체	285	54	12	5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 동호회	243	76	32	5
지역 시민단체	317	33	6	2

□ 오프라인 행사 참여도

질문에 대한 응답 571회(중복 허용) 중 공청회에 참석해 본 사람은 1.1%, 주민 워크숍은 1.6%,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0.5%, 지자체 민원제기는 9.3%로 오프라인 행사나 활동



[그림 3-5] 오프라인 행사 참여도

참여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에 대한 참여도는 36.6%였다.³⁰⁾ Milbrath(1965; pp.18~19)에 의한 참여자 유형 분류에서 과도형에 해당하는 유형은 공청회, 주민참여 워크숍 참가, 반상회 참가, 지역축제 참여이다. Milbrath에 의하면 공청회나 주민참여 워크숍 참가는 통상 10~15%로 정리하고 있으나, 온라인 참여자 중에서 공청회, 주민참여 워크숍 참여자는 1.1~1.6%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프라인 주민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

오프라인에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³¹⁾로는 (1) 바빠서 참여할 시간이 없음: 145명, (2) 지역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정보 부족: 133명, (3) 정기적으로 참여할 여건이 안 됨: 125명, (4) 관심이 없음: 105명, (5) 관심은 있었으나 굳이 내가 나서서 참여하고 싶지는 않음: 87명, (6) 참여를 해도 행정이 바뀌지 않을 것: 58명, (7) 내성적인 성격: 53명, (8) 지역활동을 할 만한 능력 부족: 40명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참여 저조 이유로 가정한 시간부족과 정보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참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굳이 나서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이후 인적 네트워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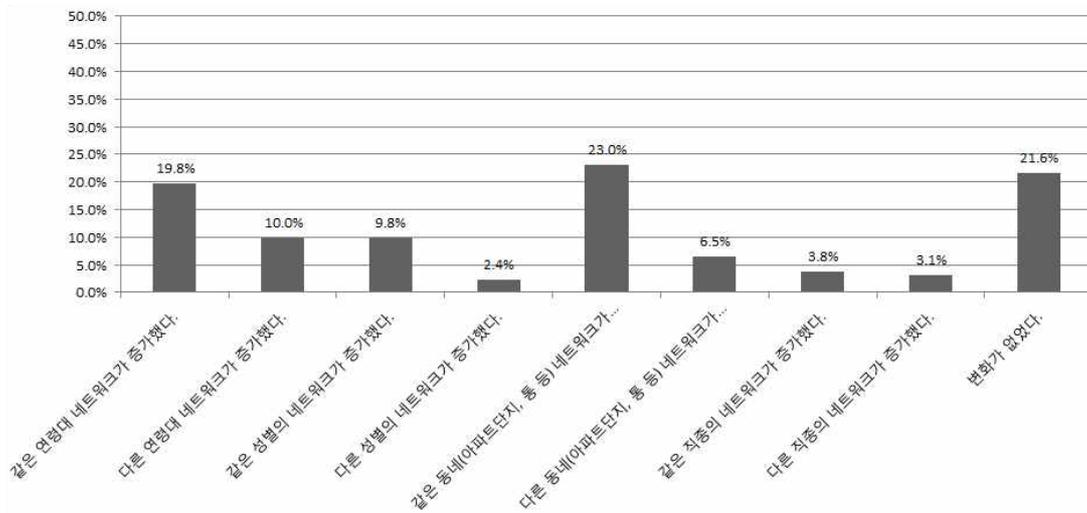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강한연대와 약한 연대 모두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30) 지역축제에 대한 참여는 설문에서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단순한 참가인 소극적 참여를 구분하지 못해 광의의 참여로 답을 한 이유로 높게 집계된 것으로 판단한다.

31) 중복응답 허용

다. 연령, 성별, 지역, 직종 모든 부분에서 강한연대의 증가율이 약한 연대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연령 및 성별은 젊은 아기 엄마가 주축을 이루는 맘스카페가 설문대상지에 다수 포함된 영향으로 보인다. 같은 지역 내의 네트워크가 강화된 것도 아이 때문에 이동성이 낮은 아기 엄마가 주요 구성원인 맘스카페의 특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유사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계기가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지만, 다른 연령, 성별, 지역 간의 네트워크도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최초 가설과 달리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은 약한 연대보다 강한 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생성되기 어려운 약한연대에 해당하는 다른 연대 네트워크 증가(10.0%), 다른 동네 네트워크 증가(6.5%), 다른 직종 네트워크 증가(3.1%)에서 알 수 있듯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약한연대 생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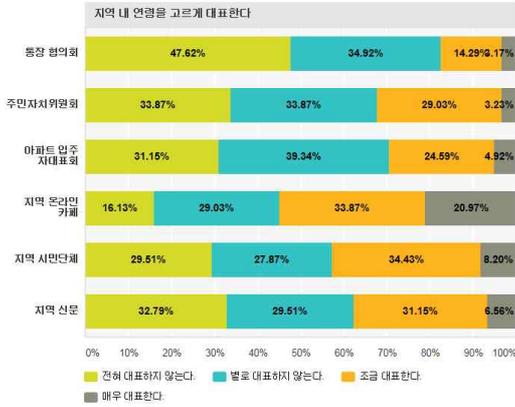


[그림 3-6]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전체 네트워크 확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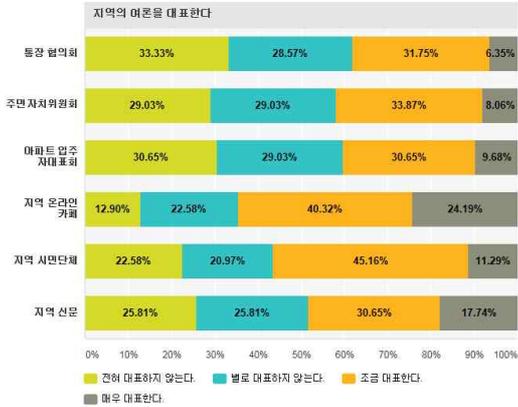
□ 대표성 인식

지역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연령, 여론, 성별, 직업에 대한 대표성 질문에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위원회는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50%를 상회했다. 한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여론을 대표한다고 답한 비율은 64.51%, 지역 연령을 대표한다고 답한 비율은 56.84%, 지역 성비를 대표한다는 의견은 54.4%, 지역 내 직업을 대표한다고 답한 비율은 47.8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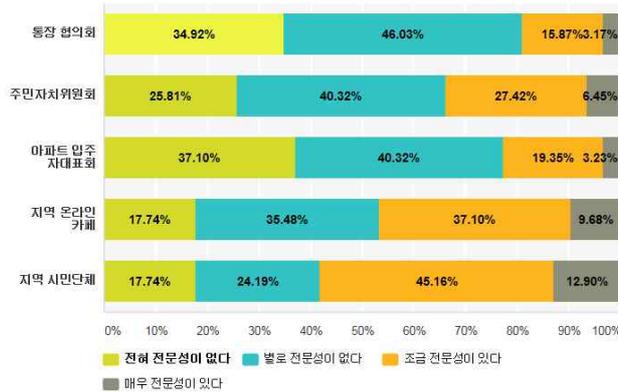
[그림 3-7] 연령 대표성 인식 조사결과



[그림 3-8] 여론 대표성 인식 조사결과

□ 전문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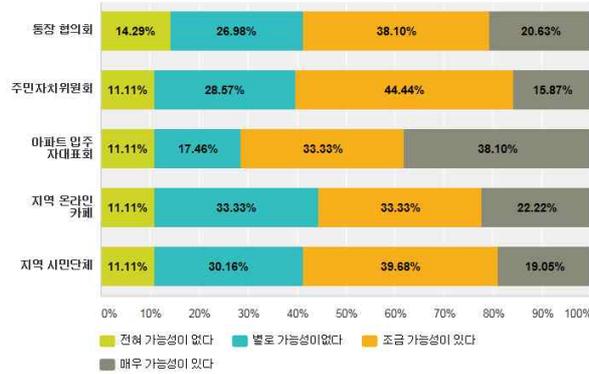
각 지역 단체의 전문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 시민단체 다음으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은 지역 온라인 카페 이외에도 지역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3-9] 전문성 대표성 인식 조사결과

□ 지역 이기주의 주장

지역 내 이기주의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지역단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71.43%가 가장 높은 위험을 보였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른 지역 단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른 답변에 비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경각심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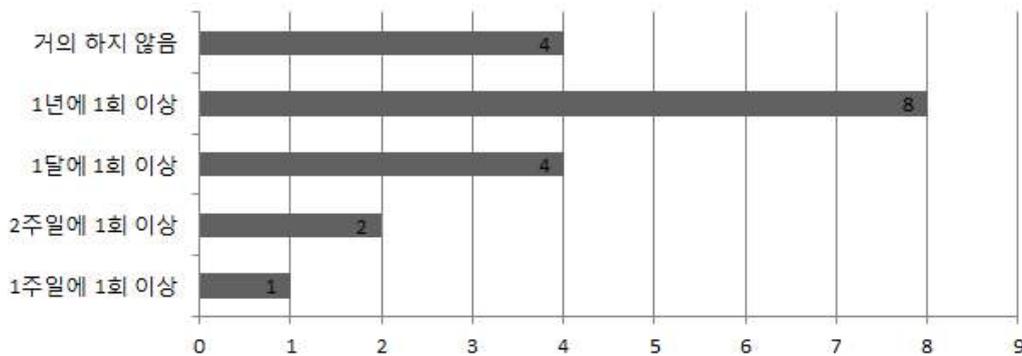


[그림 3-10] 지역 이기주의 인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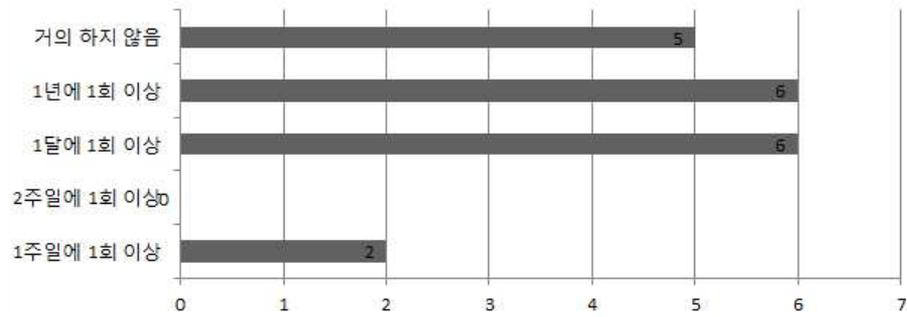
② 운영진 설문

□ 행정과의 공식적/비공식 만남

운영진이 행정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갖는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이 가장 많았지만, 운영진 중 36.8%는 1달에 1회 이상 행정과의 만남을 가졌다. 운영진과 행정 간의 2주일에 1회 이상의 밀접한 비공식적 만남은 공식적 만남의 횟수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직 행정과의 밀접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11] 행정기관과 공식적인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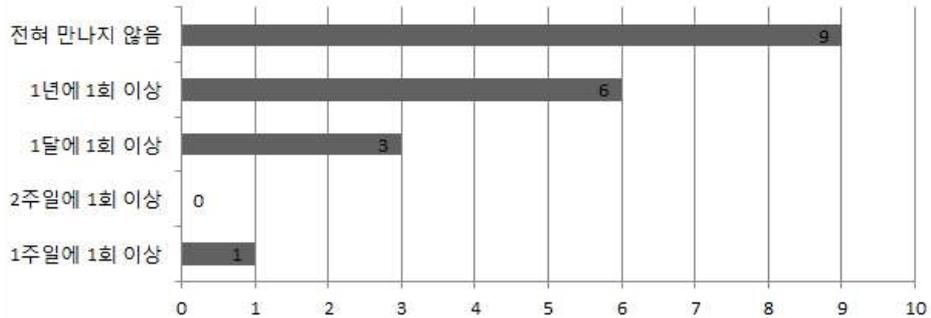


[그림 3-12] 행정기관과 비공식적인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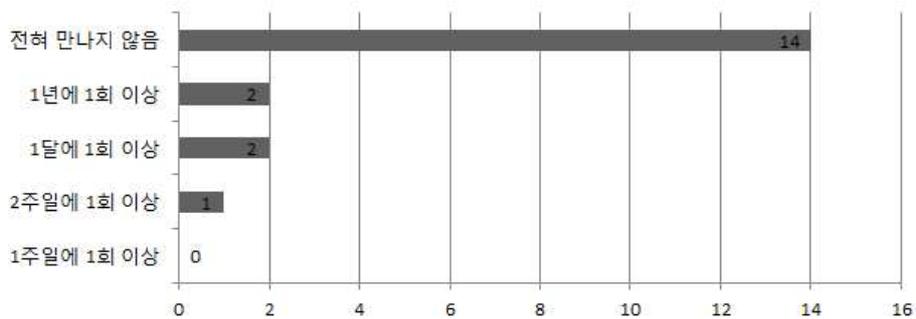
□ 지역 유관기관과의 만남

-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등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과의 접촉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에서 가정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핵심 참여층간의 괴리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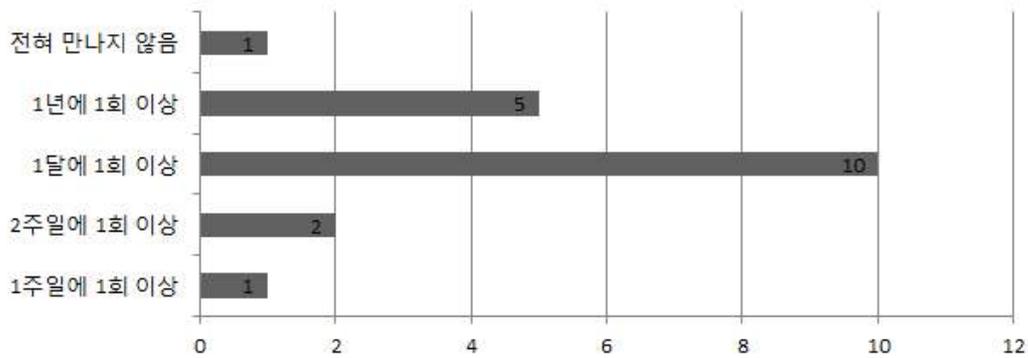
[그림 3-13] 주민자치위원과 교류



[그림 3-14] 통장과의 교류

- 봉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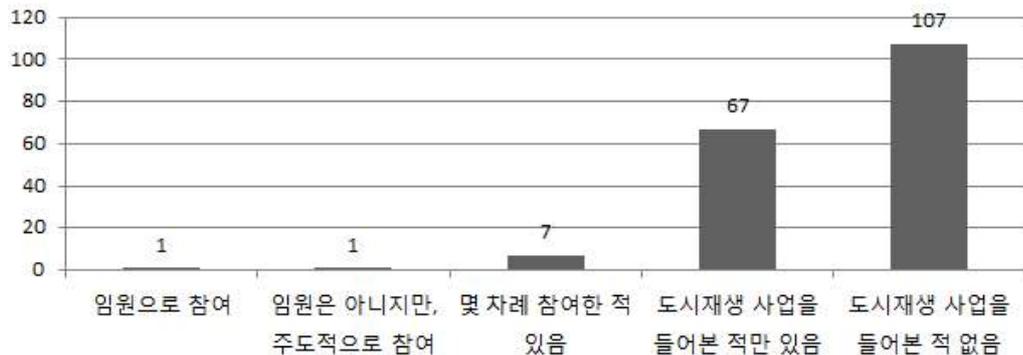
봉사단체와는 상대적으로 잦은 접촉 빈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모임 중 유관기관과의 괴리는 존재하나 봉사활동 등 진입장벽이 낮은 기관과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진 인터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봉사활동을 접한 후 이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2016.04.22. 경기도 소재 A 및 B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인터뷰).



[그림 3-15] 봉사단체 활동 횟수

□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

대다수의 응답자는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도시재생 사업 입장에서는 신규 유입자가 된다.



[그림 3-16] 도시재생 사업 참여 횟수

③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의 상관관계 분석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서의 활동강도와 오프라인 활동 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종속변인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게시물 작성, 댓글 달기, 게시물 읽기, 카페 방문 등 온라인 참여의 적극성(y23)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은 기존 직능단체의 참여 정도(x1_1), 기존 봉사단체의 참여 정도(x1_2), 지역 동호회 참여정도(x1_3)로 설정했다. 분석은 IBM SPSS 21버전을 활용했다.

□ 게시물 작성(적극적 참여)와 오프라인 모임의 활동 정도

통장, 주민자치위원, 동대표 등 직능단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유의확률=.076, 유의수준0.1에서유의미. 단, 유의수준이0.05인 경우는 x1_1이 y23_1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3-11] 직능단체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97 ^a	.009	.006	1.381		
a. 예측값: (상수), x1_1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6.047	1	6.047	3.172	.076 ^b
	잔차	638.617	335	1.906		
	합계	644.665	336			
a. 종속변수: y23_1 b. 예측값: (상수), x1_1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819	.204		13.819	.000
	x1_1	.296	.166	.097	1.781	.076
a. 종속변수: y23_1						

한편 지역봉사단체활동이 증가해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작성활동에는 영향이 없었다.(유의확률=.254, 유의수준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12]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63 ^a	.004	.001	1.380	

a. 예측값: (상수), x1_2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2.490	1	2.490	1.308	.254 ^b
	잔차	634.125	333	1.904		
	합계	636.615	334			

a. 종속변수: y23_1
b. 예측값: (상수), x1_2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967	.183		16.200	.000
	x1_2	.152	.133	.063	1.144	.254

a. 종속변수: y23_1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 온라인 카페의 게시물 작성 활동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754, 유의수준 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13]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 온라인 카페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17 ^a	.000	-.003	1.382	

a. 예측값: (상수), x1_3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87	1	.187	.098	.754 ^b
	잔차	636.428	333	1.911		
	합계	636.615	334			

a. 종속변수: y23_1
b. 예측값: (상수), x1_3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110	.172		18.091	.000
	x1_3	.034	.107	.017	.313	.754

a. 종속변수: y23_1

지역 시민단체 활동이 증가할수록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게시물 작성 활동은 증가했다.(유의확률=.074,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 단, 유의수준이 0.05인 경우는 x1_4이 y23_1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3-14]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작성활동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98 ^a	.010	.007	1.379

a. 예측값: (상수), x1_4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6.102	1	6.102	3.209	.074 ^b
	잔차	635.157	334	1.902		
	합계	641.259	335			

a. 종속변수: y23_1

b. 예측값: (상수), x1_4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2.805	.208		13.500	.000
	x1_4	.301	.168	.098	1.791	.074

a. 종속변수: y23_1

□ 댓글달기(비교적 적극적 참여)와 오프라인 모임의 활동 정도

통장, 주민자치위원, 동대표 등 직능단체 활동이 증가해도 지역 온라인 플랫폼 댓글 달기의 영향은 없었다.(유의확률=.231, 유의수준 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15] 직능단체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65 ^a	.004	.001	1.311

a. 예측값: (상수), x1_1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2.470	1	2.470	1.437	.231 ^b
	잔차	575.779	335	1.719		
	합계	578.249	336			

a. 종속변수: y23_2

b. 예측값: (상수), x1_1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283	.194		16.944	.000
	x1_1	.189	.158	.065	1.199	.231

a. 종속변수: y23_2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댓글달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유의확률=.082,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 단, 유의수준이 0.05인 경우는 x1_2이 y23_2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3-16]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95 ^a	.009	.006	1.302

a. 예측값: (상수), x1_2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5.167	1	5.167	3.048	.082 ^b
	잔차	564.576	333	1.695		
	합계	569.743	334			

a. 종속변수: y23_2

b. 예측값: (상수), x1_2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229	.173		18.685	.000
	x1_2	.219	.125	.095	1.746	.082

a. 종속변수: y23_2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동호회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008,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 단, 유의수준이 0.05인 경우는 x1_2이 y23_2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표 3-17]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144 ^a	.021	.018	1.294

a. 예측값: (상수), x1_3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1.798	1	11.798	7.042	.008 ^b
	잔차	557.945	333	1.676		
	합계	569.743	334			

a. 종속변수: y23_2
b. 예측값: (상수), x1_3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121	.161		19.390	.000
	x1_3	.266	.100	.144	2.654	.008

a. 종속변수: y23_2

지역 시민단체 활동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게시물 댓글달기 활동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유의확률=.008,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

[표 3-18]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댓글달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125 ^a	.016	.013	1.303

a. 예측값: (상수), x1_4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9.035	1	9.035	5.323	.022 ^b
	잔차	566.962	334	1.697		
	합계	575.997	335			

a. 종속변수: y23_2
b. 예측값: (상수), x1_4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075	.196		15.664	.000
	x1_4	.367	.159	.125	2.307	.022

a. 종속변수: y23_2

□ 게시물 읽기(소극적 참여)와 오프라인 모임의 활동 정도

통장, 주민자치위원, 동대표 등 직능단체의 활동과 게시물 읽기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유의확률=.849, 유의수준 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19] 직능단체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10 ^a	.000	-.003	.939	

a. 예측값: (상수), x1_1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032	1	.032	.037	.849 ^b
	잔차	295.309	335	.882		
	합계	295.341	336			

a. 종속변수: y23_3
b. 예측값: (상수), x1_1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423	.139		31.881	.000
	x1_1	.022	.113	.010	.191	.849

a. 종속변수: y23_3

지역 봉사단체 참여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유의확률=.398, 유의수준 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20] 지역 봉사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46 ^a	.002	-.001	.937	

a. 예측값: (상수), x1_2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628	1	.628	.716	.398 ^b
	잔차	292.309	333	.878		
	합계	292.937	334			

a. 종속변수: y23_3
b. 예측값: (상수), x1_2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355	.124		35.017	.000
	x1_2	.076	.090	.046	.846	.398

a. 종속변수: y23_3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동호회와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읽기 활동간에는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유의확률=.249, 유의수준 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21] 지역 동호회의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63 ^a	.004	.001	.930		

a. 예측값: (상수), x1_3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151	1	1.151	1.331	.249 ^b
	잔차	287.882	333	.865		
	합계	289.033	334			

a. 종속변수: y23_3
b. 예측값: (상수), x1_3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334	.116		37.486	.000
	x1_3	.083	.072	.063	1.154	.249

a. 종속변수: y23_3

지역시민단체 참여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유의확률=.497, 유의수준 0.05, 0.1에서 유의미하지 않음)

[표 3-22] 지역 시민단체 활동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읽기 활동과의 관계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1	.037 ^a	.001	-.002	.939		

a. 예측값: (상수), x1_4

분산분석 ^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407	1	.407	.461	.497 ^b
	잔차	294.629	334	.882		
	합계	295.036	335			

a. 종속변수: y23_3
b. 예측값: (상수), x1_4

계수 ^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357	.142		30.789	.000

	x1_4	.078	.115	.037	.679	.497
--	------	------	------	------	------	------

a. 종속변수: y23_3

□ 분석 종합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주체들은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활동성이 강한 사람은 온라인에서도 글쓰기나 댓글쓰기 등 강한 참여 경향을 보였다. 주민자치위원, 동대표, 통장 등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도 게시물 작성 등 강한 형태의 참여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활동 등 오프라인에서 비교적 가벼운 참여를 보이는 계층은 온라인에서도 게시물 쓰기 등의 적극적 참여보다 댓글쓰기 등의 비교적 가벼운 참여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에서의 가장 낮은 단계의 참여인 관찰자(Lurker)활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참여 경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온라인 참여의 가장 큰 특징인 “다수의 소극적 참여자”는 오프라인 참여행태와 무관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프라인에서의 적극적 참여자인 시민단체, 직능단체는 온라인에서도 적극적 참여를 보이고 오프라인에서 비교적 적극적 참여계층인 동호회, 봉사단체 참여자는 온라인에서도 비교적 적극적 활동인 댓글달기를 주로 하는 등 적극적 참여계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사한 경향성을 가진다. 반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극적 참여자의 경우 오프라인의 참여경향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오프라인에 등장하지 못했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제4장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형 주민참여 시범적용

1. 시범적용 개요
2. 분석 내용
3. 안산시 일동 마을계획 실천단 워크숍
4. 안산시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워크숍
5. 분석 종합

1. 시범적용 개요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시도된 적 없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주민참여 과정의 연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증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의 과잉 대표성 문제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의 보완에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연계형 주민참여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범적용하고 검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소수의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자 의견으로 설계된 실행계획의 낮은 실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형 주민참여 방안의 기본적인 적용방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기적인 연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의 대표적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안시모”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전문업체 “링크하우스”, 도시재생 스타트업 “마이너스플러스백”, 중간지원조직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실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를 검증했다. 링크하우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계를 돕는 역할을 하며, 정돈되지 않은 자료를 정리하고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잘못된 표기되었거나 카테고리가 잘못 설정된 오류 정보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를 대체 하는게 아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가정 하에, 오프라인에서만 참여하는 사람도 온라인만 참여하는 사람도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Feedback

[그림 4-1]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주민참여 과정 예시

1) 대상 지역: 안산시

대상지역으로 처음 고려한 지역은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6개소이다. 2014년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전체 공정의 약 70% 이상을 진행하여, 주민참여보다 사업시행단계에 접어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6년 신규 지정된 33개 지역의 경우 아직 주민참여 기반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형 주민참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차 관문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적용 수요조사를 실시했다.³²⁾ 그러나 1차 관문심사를 통과한 N시와 C시 두 지역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기 지역 주민협의회 및 주민대학 담당 용역사가 시범적용을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사업지에서 현재 사업 주요 추진주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다음으로 시범적용을 고려한 지역 선정 기준은 주민참여 과정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국비지원 도시재생 사업지와 유사한 도시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다. 연구를 위한 시범적용 지역으로 최종 선정한 지역은 안산시다. 안산시는 2008년부터 마을만들기를 수행해 온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 중 가장 오래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7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개 내외의 주민공모사업과 5종 내외의 주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2] 마을 거점공간 “와리마루”



[그림 4-3] 마을기업 “마을숲 카페”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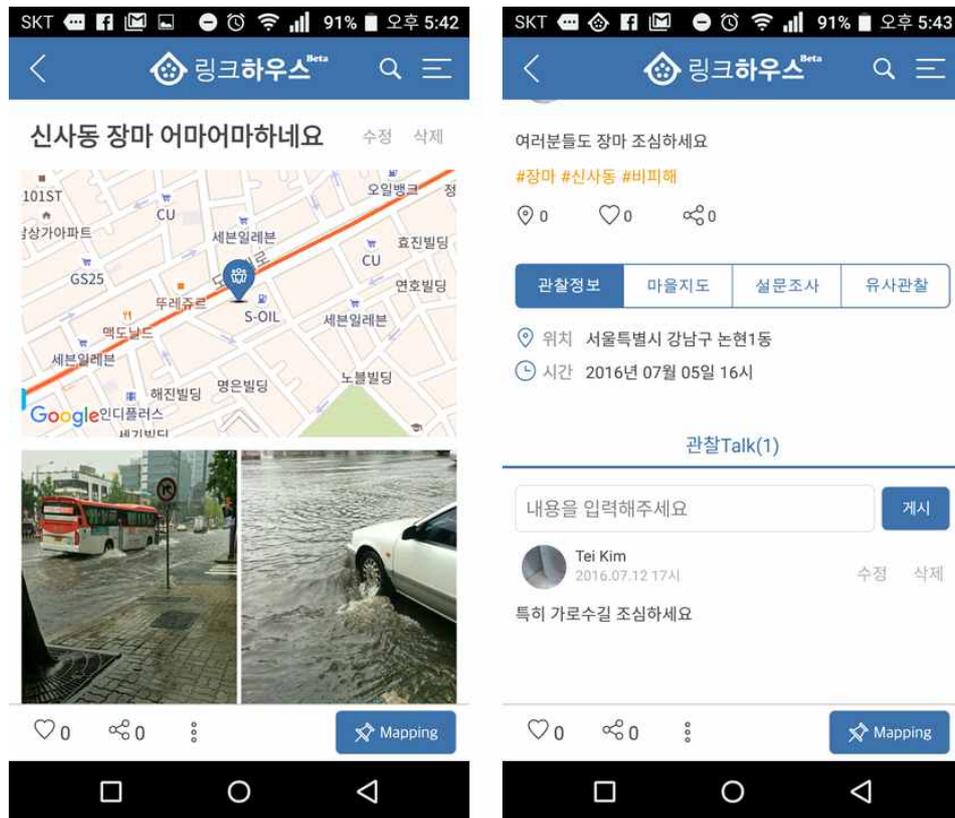
32) 관문심사는 거버넌스, 경쟁력 있는 콘텐츠, 구체화된 사업계획 등이 준비된 경우에만 예산지원 등 다음단계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심사는 기반구축에 대한 심사로 전담조직 구성, 주민역량 및 준비도, 협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총괄코디 임명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2단계 심사는 계획수립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2) 활용 프로그램: 링크하우스

링크하우스는 (주)링크하우스가 개발한 지역기반 온라인 참여 온라인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링크하우스와 공동기획하여 링크하우스 프로그램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했다. 링크하우스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마을관찰

마을관찰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이슈를 사진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기록하는 기능이다. 기록의 대상은 지역의 문제점이나 잠재력 등의 지자체 행정과 관련된 이슈, 동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고 물물거래, 잃어버린 물건 신고 등이다. 또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 설문조사 기능과 행정자치부와의 연계를 통한 사진과 위치정보 기반의 민원신고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4] 링크하우스 마을관찰 기능 예시
※ 출처 ; 링크하우스 제공 자료

□ 마을지도

마을지도 기능은 다양한 주제별로 개설할 수 있는 협력형 지도만들기 서비스다. 마을관찰이 개인이 피드(feed)형식으로 지역의 대소사를 공유하는 기능이라면, 마을지도는 각 마을관찰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지도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림 4-6] 링크하우스 마을지도 기능 예시
 ※ 출처 ; 링크하우스 제공 자료

마을관찰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도시, 우리마을 방방곳곳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기반 지역SNS입니다.



사진 한장! 도시(마을)를 변화시키다.

도시나 마을의 일상을 공간정보와 함께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나눔의 현장 등 이웃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마을관찰 #공간정보서비스 #GIS

설문조사를 통한 공간서베이 기능

행정 의사결정의 80% 이상이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을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협업체계가 중요합니다. 링크하우스 공간서베이 기능은 활발한 주민참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주민참여 #민원 #공간정보서비스

자동 민원신고 기능

우리마을 인도개선, 신호등 고장 등 주민과 지역문제를 지도와 사진을 통해 공유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에 자동 민원신고가 가능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좀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행정민원 #민원24 #민원처리 #현장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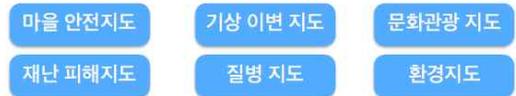
마을지도 (참여지도)

모바일로 손쉽게 참여지도를 제작 할 수 있는 커뮤니티매핑 솔루션입니다.



모바일로 손쉬운 지도 만들기

참여지도(Community Mapping)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지역의 사회, 환경, 문화 자원 등에 관한 지도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종이지도의 불편함을 해결합니다.

종이지도의 불편함을 해결하며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즉시 지도에 기록하는 편리성을 갖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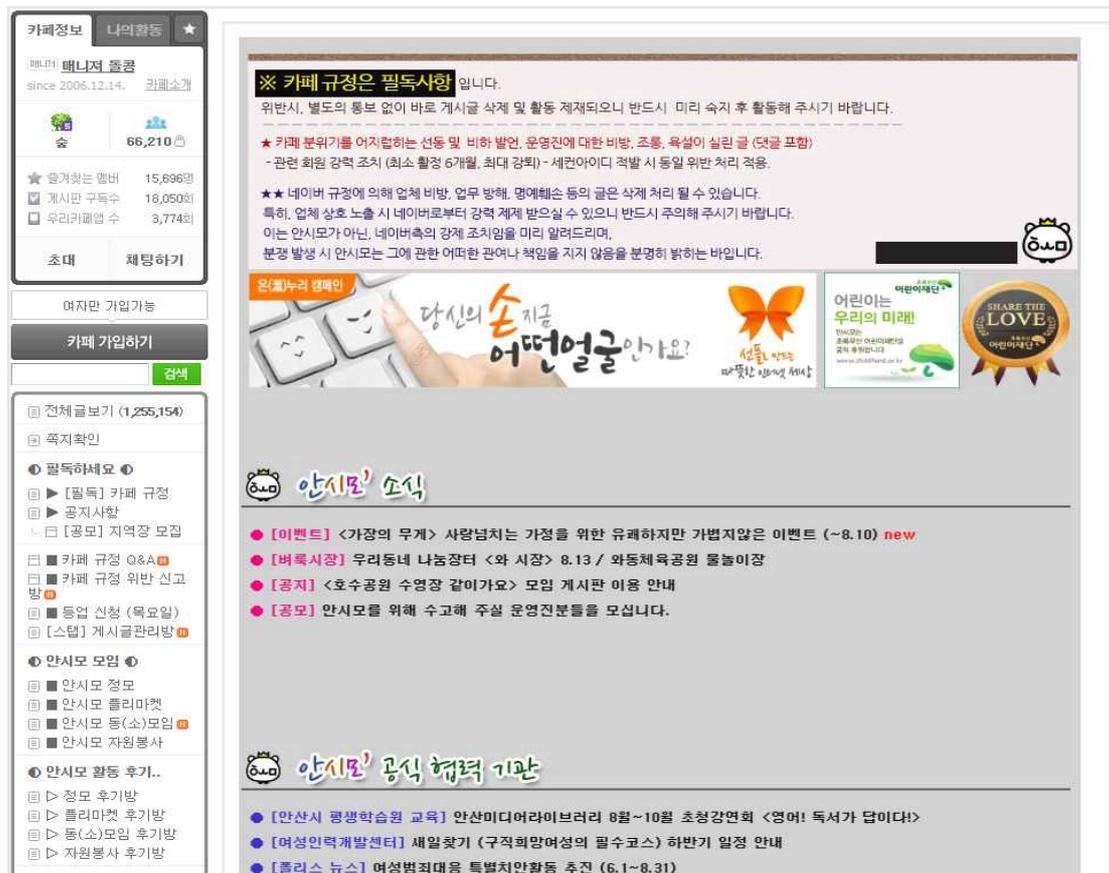
- + 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서버 저장으로 기록된 공간정보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 + 종이지도는 1회성 정보기록으로 공간정보의 낭비가 심합니다. 이제 공간정보 링크하우스에 영원히 보관하세요.

[그림 4-5] 링크하우스의 주요 기능

※ 출처 ; 링크하우스 제공 자료

3)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안시모 카페

네이버의 안산 시흥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인 안산 시흥 맘 모여라(안시모)는 2016년 8월 9일 기준 66,21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255,154개의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는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안산시 평생학습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경찰서 등 3개의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과의 연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³⁾ 또한 안산시에 위치한 홈플러스의 2층 주차장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플리마켓도 개최하고 있다.



[그림 4-7] 안시모 카페 이미지 (안산시 “안시모” 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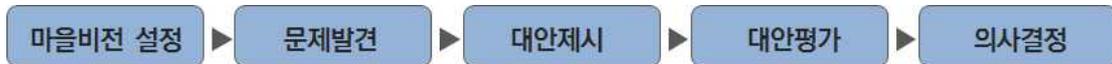
33) 2015년 말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넥스트도어처럼 지역의 안전, 안심 이슈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부담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분석 내용

1) 참여단계별 특성 효과 분석

주민참여의 단계는 마을비전 설정, 문제발견, 대안제시, 대안평가, 의사결정으로 참여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각 단계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구분하여 파악했다.

- 마을비전 설정: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과 관리 방안을 정리하는 단계
- 문제발견: 해당 지역의 문제점, 잠재력을 발굴하는 단계
- 대안제시: 해당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 대안평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 평가를 하고 시급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
- 의사결정: 다양한 주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



[그림 4-8] 주민참여 프로세스의 단계

2) 참여 주체의 적극성별 효과 분석

Milbrath(1965;18-19)는 참여 곤란도에 따라 주민을 무관심형, 관객형, 과도형, 공격형으로 구분했다. 이승종과 김혜정(2011;110)은 참여자를 참여거부, 소극적 참여, 중도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했다. Creighton(2005;53)은 참여주민을 무감각한 냉담자, 관찰자, 논평자, 기술적 검토자, 적극적 참여자, 공동의사결정자로 구분했다. Gartner(2008)는 온라인에서의 참여자를 제작자, 지원자, 기회주의자, 관찰자로 구분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참여주체의 적극성에 따른 구분은 비참여자, 소극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 리더로 구분한다.

[표 4-1]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Milbrath	이승중, 김혜정	Gartner	Creighton	본 연구
공격형 (gladiatorial activities)	적극적 참여	제작자 (creators)	공동의사결정자	리더
			적극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
과도형 (transitional activities)	중도적 참여	지원자 (contributors)	기술적 검토자	소극적 참여자
		기회주의자 (The opportunists)	논평자	
관객형 (spectator activities)	소극적 참여	관찰자 (lurker)	관찰자	
무관심형 (apathetics)	참여거부		무감각한 냉담자	비참여자

* 출처 : Lester Milbrath(1965, pp18~19), 이승중·김혜정(2011, p110), Creighton(2005, p53), Gartner(2008)

□ 분석의 틀

안산시의 주민참여 과정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를 분석할 시 다음의 참여단계별 및 참여주체의 적극성별로 구분한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효과를 평가했다.

분석은 참여주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 4-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 분석의 틀

	마을비전 설정	문제 발견	대안 제시	대안 평가	의사 결정
비참여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소극적 참여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적극적 참여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마을 리더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효과·장단점

3) 참여방법별 효과 분석

①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장단점 검증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오프라인 성격과 가상의 공동체라는 온라인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의 장단점을 토대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Carolyn J. Lukensmeyer, Lars Hasselblad Torres(2006; p.38)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참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4-3]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의 특성

	오프라인	온라인
정체성	(+) 참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본인을 소개하므로 신뢰가 쌓임	필요한 정보만을 한정적으로 공유
대화의 균형	다양한 참여자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	(-) 소수에 의해 논의가 주도되는 경향 발생
시간	실시간으로 논의 진행	(+) 시공간 제약 없이 편한 시간에 논의에 참가
기록화	(-) 기록화 작업이 어려우며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모든 논의가 글로 남겨지므로 기록화 작업이 용이
일정	고정된 일정으로 단기간에 참여를 종료해야 함	(+) 장기간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부담이 없음
장소	(-) 한정된 장소에서 논의가 이뤄지므로 비용이 발생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참여에서 배제	(+) 시공간의 제약없이 참여가 가능

* 출처: Carolyn J. Lukensmeyer, Lars Hasselblad Torres(2006, p38), 요약 보완

Robert D. Putnam(2000; pp.285~297)은 온라인 참여의 장점으로 익명성에 의한 권위의 수평화를 얘기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❶ 손쉬운 참여로 인한 가벼운 의견 난립, ❷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❸ 제스처, 표정 등이 배제된 풍부하지 않은 의사소통, ❹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는 사이버 분열(cyberbalkanization)을 들었다.

일본 총무성(2006)은 온라인의 장점으로 ❶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음, ❷ 행정과의 연속적인 공론장 형성 가능, ❸ 장애인 등의 참가 용이, ❹ 신속한 정보의 갱신, ❺ 시간과

경비 부담 적음, ⑥토론이 공개됨, ⑦연령, 직업, 거주지 등의 개인 특성이 토론에 영향 미치지 않음을 들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①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②신분 위조 가능, ③비방, 중상모략, ④행정의 대응 체계 미확립, ⑤주민제안 활용방법 미확립을 들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의 장단점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는 기록으로 남는 논의, 신속한 정보 갱신, 참여 경비 부담 적음 등의 온라인 참여 장점과 소수에 의한 논의 주도, 디지털 격차, 비방 및 중상모략 우려라는 온라인 참여의 단점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주민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지를 검증했다.

[표 4-4]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Carolyn J. Lukensmeyer, Lars Hasselblad Torres	Putnam, Robert D.	일본 총무성
온라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 제약 없음 • 기록으로 남는 논의 내용 • 장기적 논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의 수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 제약 없음 • 행정과 연속적 공론장 • 장애인 등 참가 용이 • 신속한 정보 갱신 • 참여 경비 부담 적음 • 토론 공개 • 평등한 참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에 의해 논의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볍고 무책임한 참여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풍부하지 않은 소통 수단 • 사이버 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신분 위조 위험 • 비방, 중상모략 우려 • 행정 대응 체계 미확립 • 주민제안 활용체계 미확립
오프라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상호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자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교육 불필요 • 행정담당자 대응 용이 • 주민의견 활용법 메뉴얼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가 어려움 • 참여 비용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적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 제약 • 정보갱신 어려움 • 경비 부담 • 일방향적 소통

* 출처 : Lester Milbrath(1965, pp18~19), 이승중·김혜정(2011, p110), Creighton(2005, p53), Gartner(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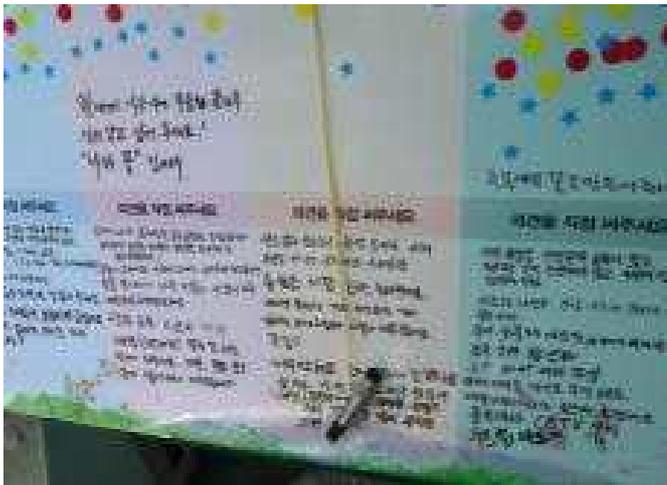
②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방법론 효과 분석 가설

온라인 참여의 장점과 온라인 매체 방법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주민참여 방식의 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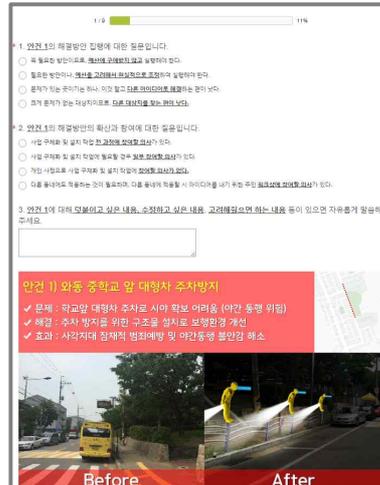
□ 시각 매체 활용

온라인에서는 큰 비용이나 준비 장치 없이 시각 매체를 보여주기 용이하기 때문에 시각매체를 활용한 참여 촉진 수단을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카드뉴스 (전체 단계)
 - 짧은 시간에 주민참여 워크샵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제공
 - 주민참여 중간 단계에서 유입되는 신규참여자 및 소극적 참여자(light user)에게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이해시키기 용이할 것이다.
- 시각적 결과물 소개 (대안 평가 단계)
 -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워크샵을 치른 이후 각 대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단계에서 많은 양의 워크샵 시각적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표현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주민으로부터 받기 용이할 것이다.



[그림 4-9] 오프라인에서의 대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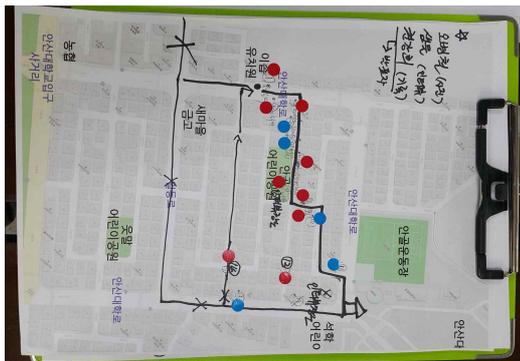


[그림 4-10] 온라인에서의 대안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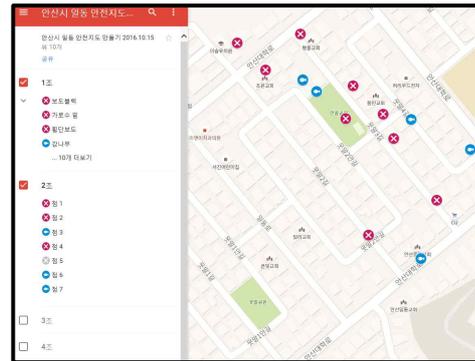
□ 기록화 용이

- 커뮤니티 맵핑 & 디지털 맵핑 (문제 발견 단계, 대안 제시 단계)

지역 문제 찾기 단계 및 대안 제시 단계에서 이슈 지역을 종이지도가 아닌 디지털 지도에 맵핑하는 기법이다. 오프라인 조사 시 함께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커뮤니티 맵핑 작업과 오프라인 조사를 정리하여 디지털로 기록하는 디지털 맵핑 작업이 있다. 현장에서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표기한 지역을 현장지원 인력이 재확인 후 보정하여 디지털화한 지도는 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며 자료의 보관과 갱신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림 4-11] 오프라인에서의 자료 보관
※ 출처 : 마이너스 플러스백 제공 자료



[그림 4-12] 온라인에서의 자료 보관
※ 출처 : 마이너스 플러스백 제공 자료

□ 시공간 제약 없는 저비용 소통

온라인 댓글이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보다 많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참여가 저조하거나 없었던 신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84.4%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 3월 기준 91%로 세계1위일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크지 않을 것이다.³⁴⁾

34) TNS, KT경제경영연구소(2016), “스마트폰 보급률 통계”, 미래창조과학부(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5호)”.

□ 가설 종합

- 카드뉴스는 주민참여 중간 단계에서 유입되는 신규참여자 및 소극적 참여자 (light user)에게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이해시키기 용이할 것이다.
- 시각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워크숍을 치른 이후 각 대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단계에서 많은 양의 워크숍 시각적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표현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주민으로부터 받기 용이할 것이다.
- 디지털 맵핑으로 현장에서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표기한 지역을 현장지원 인력이 재확인 후 보정하여 디지털화한 지도는 자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주며 자료의 보관과 갱신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 온라인 댓글이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보다 많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참여가 저조하거나 없었던 신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84.4%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 3월 기준 91%로 세계1위일 만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는 크지 않을 것이다

4) 효과 조사 방법

□ 관련 주체별 심층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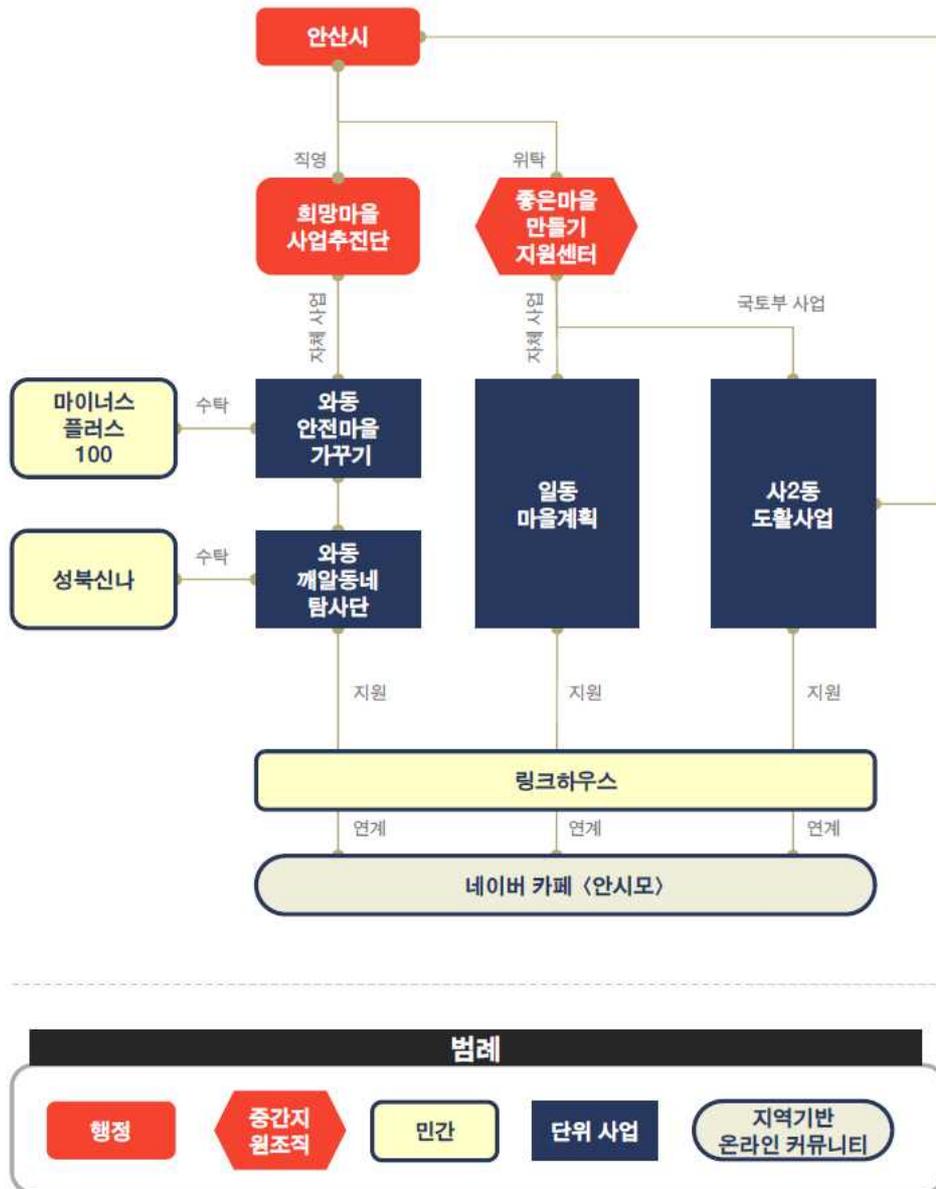
사업 진행에 참여한 그룹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2016년 8월 8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대면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했다.

- 심층인터뷰 대상자

[표 4-5]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심층인터뷰 대상자	담당 사례	역할	인터뷰 일시	인원
행정	• 안산시 희망마을 추진단 담당 공무원	• 와동	• 기획 • 홍보	2016.09.12 2016.10.19	1
	• 안산시 희망마을 추진단 활동가	• 와동	• 워크숍 주관 • 교육 • 중재	2016.10.19	1

구분	심층인터뷰 대상자	담당 사례	역할	인터뷰 일시	인원
중간지원조직	•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담당자	• 일동	• 기획 • 교육	2016.10.19 2016.09.12	4
민간	• M 업체	• 와동	• 워크숍 주관	2016.10.19	1
	• L 업체	• 와동 • 일동	• 디지털 톨 담당 • 온/오프 연계	2016.10.19. 2016.10.02. 2016.09.12	1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 안시모 운영진	• 와동 • 일동	•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담당	2016.10.19. 2016.09.13	1
주민	• 지역 주민	• 와동	• 참여	2016.10.19	2



[그림 4-13] 안산 프로젝트 관련 주체(인터뷰 대상자) 관계도

3. 안산시 일동 마을계획 실천단 워크숍

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전체 마을계획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프로젝트이며, 1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온라인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일동 마을계획 실천단 워크숍은 안산시 일동의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지역주민과 함께 도출하기 위한 마을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7월 16일부터 실천



[그림 4-14] 안산시 일동 마을계획 개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을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비전만들기 작업은 다른 어떤 작업보다 대표성이 중요한 절차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이 수립한 마을계획을 법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전 만들기 작업은 참여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작업으로 낮은 단계의 다수 참여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 작업이 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지역의 비전과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작업을 마쳤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워크숍 진행은 일동 구역을 일동공원을 중심으로 2개로 분할하여 마을의 이미지와 비전을 수립했다. 1구역과 2구역 각기 82명과 39명이 오프라인에서 참석했다. 마무리된 실천단 워크숍의 내용을 온라인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재작업한 후 5개의 단계를 그대로 온라인에 게시하여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작업을 진행한다.

① 키워드 설정

일동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119개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참여자의 선호도에 따라 의제를 묶고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그림 4-15] 워크숍 참여자 키워드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② 이미지 게임

미리 배포한 사진 중 일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골라서 각자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의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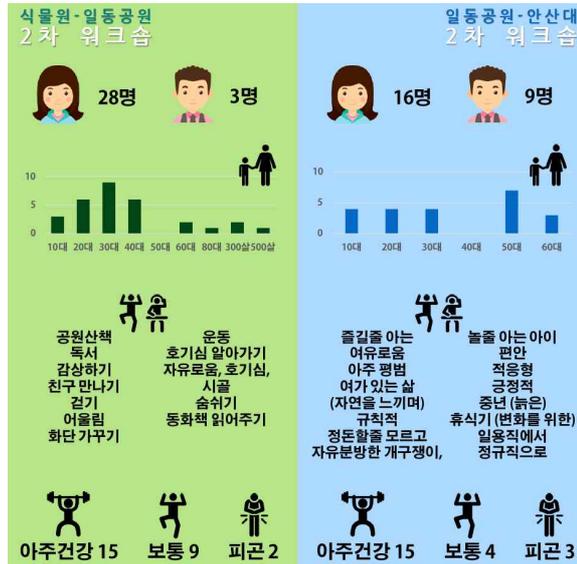


[그림 4-16] 이미지 게임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③ 마을 의인화로 이미지 구체화하기

이미지 게임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일동의 현재 이미지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한 다른 참여자들과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일동을 사람으로 의인화했다.



[그림 4-17] 이미지 구체화하기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④ 일동의 비전 추상화하기

일동에서의 비전을 추상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지, 이 지역에 온 이유는 무엇인지,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꿈꾸고 있는지, 마을의 변화를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림 4-18] 내가 이 마을에 사는 이유



[그림 4-19]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꿈꾸는가



[그림 4-20] 마을의 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⑤ 일동의 비전 및 의제 구체화하기

일동의 비전을 그룹핑하고 각 비전에 적합한 구체적인 의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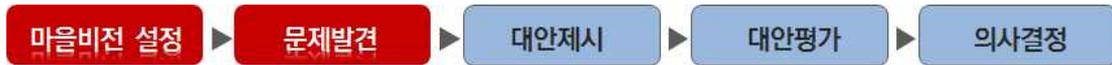
[그림 4-21] 비전 및 의제 구체화하기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2) 적용 경과

일동 프로젝트는 전체 일정 중 마을비전 설정 단계와 문제발견 단계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용했다. 일동 마을계획 프로젝트는 일동의 전체적인 마을 이미지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한 후, 주요 분과별로 마을의 장기적 계획을 주민들 스스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팀은 마을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시적 계획이므로 최대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필요했다.

그러나 마을계획 실천단 기획단 회의는 14명, 분과별 워크숍은 34명이 참석하여, 보다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다.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마을이미지를 객관식 보기로 제시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체크하는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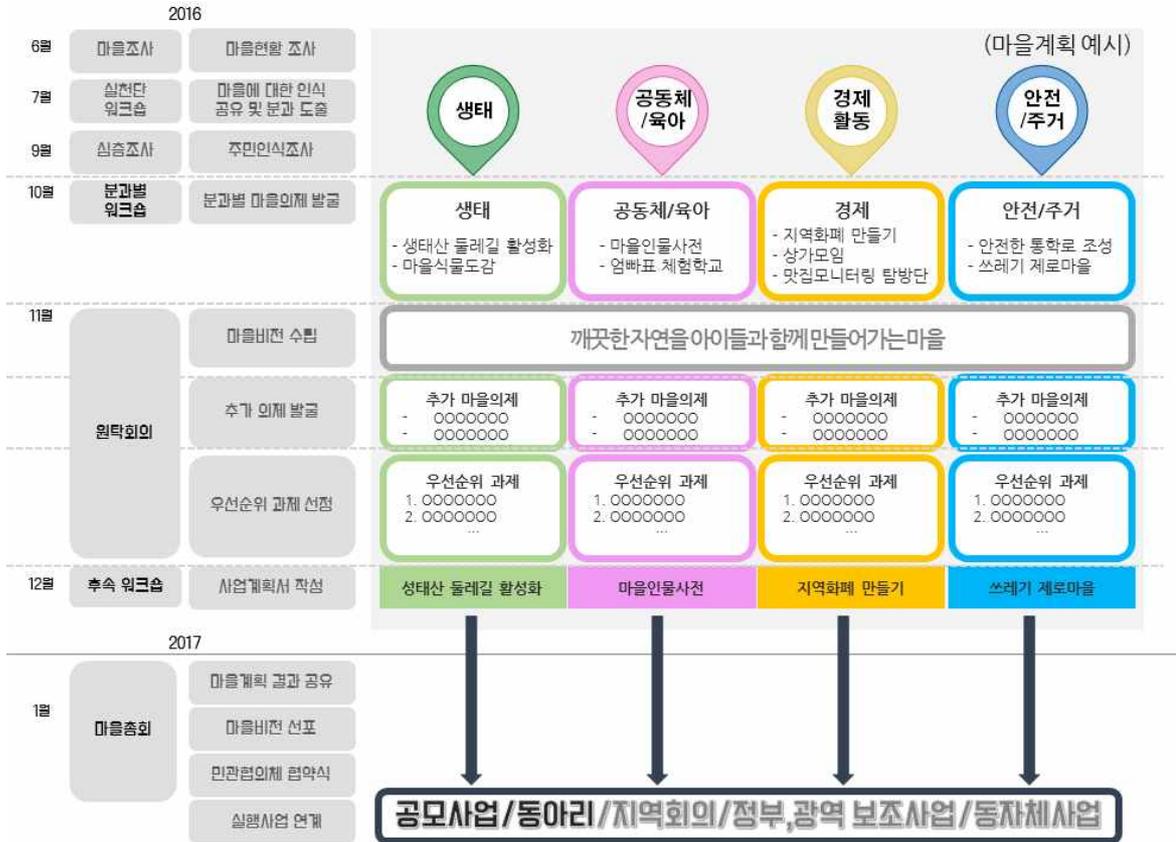


[그림 4-22] 일동 마을계획 실천단 워크숍 진행 과정

[표 4-6] 참여 적극성별 주민주체 구분

	일정	프로그램	목적
마을비전 설정	2016년 6월 18일	• 일동 마을박람회	• 마을만들기 센터 홍보 • 마을계획 실천단 모집
	2016년 6월 10일 - 2016년 6월 30일	• 마을계획 실천단 모집	• 마을조사를 통한 마을 이해, 관계 확장 • 수평적 토론문화 생활화
	2016년 7월 16일	• 마을계획 실천단 1차 워크숍	• 마을만들기 개념 설명
	2016년 7월 21일	• 마을계획 실천단 2차 워크숍	• 마을의 현재에 대한 이미지 게임 • 내친구 일동 상상하기, 표현하기 • 마을 속의 나 (마을에 사는 이유, 마을이 변했으면 하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2016년 7월 30일	• 마을계획 실천단 3차 워크숍	• 실천단 1,2차 워크숍 결과 공유
문제 발견	2016년 8월 26일	• 마을계획 기획단 회의	• 워크숍 미참석자 결과 공유 방안
	2016년 9월 10일	• 일동 마을 축제	• 마을조사 내용 공유, 마을 조사 관련 설문조사

일정		프로그램	목적
대안제시 / 대안평가	2016년 10월 7일 - 2016년 10월 27일	• 분과별 워크숍	• 안전/주거분과, 생태분과, 공동체/육아분과, 경제분과 등 4개 분과별 1-3회 워크숍 실시
의사결정	2016년 11월 12일	• 300인 원탁회의	• 주민참여형 마을계획 최종 의사결정



[그림 4-23] 일동 마을계획 전체 구상

※ 출처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공 자료

2016년 9월 6일 안산시 대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안시모”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마을만들기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후 2016년 9월 28일 일동의 지역특성 인식조사 관련 설문을 안시모에 게시했다. 설문조사는 서베이몽키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제안을 내세우기보다 기존의 제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비교적 낮은 난이도의 설문이었기 때문에 참여도는 높은 편이었다. 총 설문 응답자수는 206명이었고, 모든 질문에 응답을 한 설문 완료자는 128명이었다. 총 게시글 조회 수는 679명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동의 마을계획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안시모가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일동 주민은 206명의 참여자 중 5명에 불과했다. 설문 기획단계에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멤버와 안시모 운영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예상했고, 일동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일동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기획했다.

[표 4-7] 안시모 일동 설문 결과 개요 (2016.10.20. 기준)

게시글 조회수	게시글 댓글수	설문문항수	설문 참여자수	설문 완료자수
679	29	26문항	206	128

[그림 4-24] 안시모 카페 설문조사

※ 출처 : <http://cafe.naver.com/doorkong> (2016.10.20.검색)

□ 조사결과

전체 26개의 설문 문항 중 주요 설문문항과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맘스카페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여성 (99.2%)에 편중되어 있고, 30대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는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주민참여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실제 마을의 공공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보이는 아기와 아기엄마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 마을의 고유한 특성

마을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활환경이 쾌적한 마을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주민이용시설이 편리한 마을을 두 번째로 꼽았다.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한 수: 206 건너편 수: 0



보기	응답
공동체 활동이 다양한 마을	2.91% 6
주민이용시설이 편리한 마을	25.73% 53
생활환경이 쾌적한 마을	29.13% 60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한 마을	7.77% 16
아이를 키우기 좋은 마을	13.59% 28
기타	응답 20.87% 43
총계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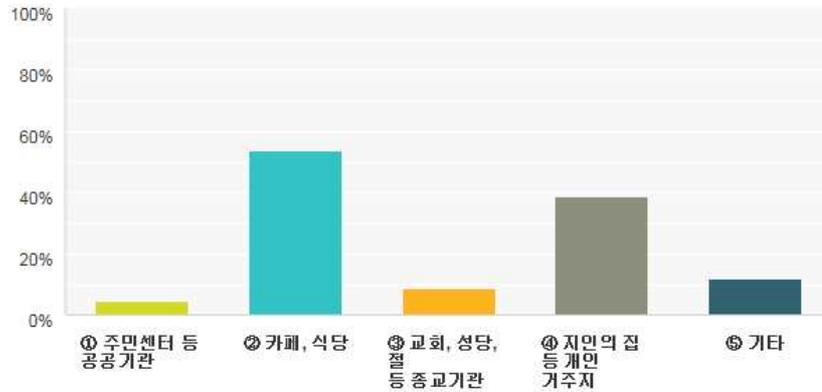
[그림 4-25] 마을의 특성에 대한 설문결과

- 일상적 모임을 하는 장소

일상적 모임을 하는 장소로는 카페와 식당이 5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인의 집 등 개인 거주지가 38.3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모임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장소의 이름을 써주세요)

답변한 수: 188 건너뛴 수: 18



보기	응답
①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4.26% 8
② 카페, 식당	53.72% 101
③ 교회, 성당, 절 등 종교기관	8.51% 16
④ 지인의 집 등 개인 거주지	38.30% 72
⑤ 기타	12.23% 23
총 응답자 수: 188	

[그림 4-26] 일상적 모임 장소에 대한 설문결과

3) 적용 효과 분석

□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은 오프라인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설문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온라인 설문 의 긍정적 효과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민간 업체 J씨>

온라인 카페의 댓글은 의견을 가장 내놓기 편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S씨>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민원을 넣으려면 공인인증서 인증도 해야하고 전화번호 인증도 받아야 하고 복잡하다. 카페 댓글이나 온라인 설문을 행정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다양한 각도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C씨>

온라인 설문 의 한계

진행 내용을 충분히 설명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얻기 곤란했다.
 <안산시 공무원 K씨>

양적으로 많은 설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카페 성격에 따라 참여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중간지원조직 K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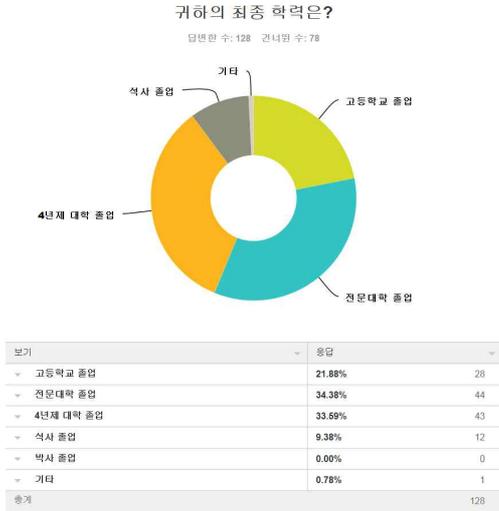
□ 새로운 계층 유입

[표 4-8] 새로운 참여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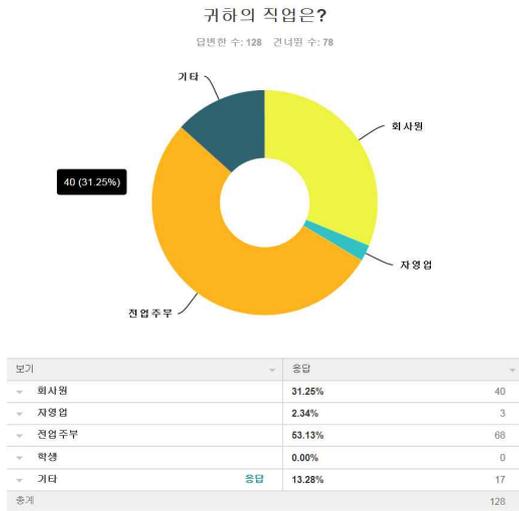
	참여한 적 없음	회원으로 간헐적 활동	회원으로 적극 활동	임원으로 활동
통장, 주민자치위원, 동대표 등 유관기관	88.55% (116)	7.63% (10)	3.82% (5)	0.00% (0)
지역봉사단체	80.30% (106)	15.91% (21)	3.03% (4)	0.76% (1)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동호회	74.05% (97)	19.85% (26)	5.34% (7)	0.76% (1)
지역시민단체	88.64% (117)	8.33% (11)	1.52% (2)	1.52% (2)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참여와 개인의 사회적 속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참여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층의 참여가 발생했다.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128명 중 게시물을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10명이었다. 또한 전체 206명의 설문 응답자 중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유관기관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

88.55%로 대다수였고, 지역봉사단체, 지역 동아리, 지역 시민단체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도 각각 80.30%, 74.05%, 88.64%로 대부분의 온라인 참여자는 오프라인에서는 크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수 133명 중 공청회에 참석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석한 사람도 2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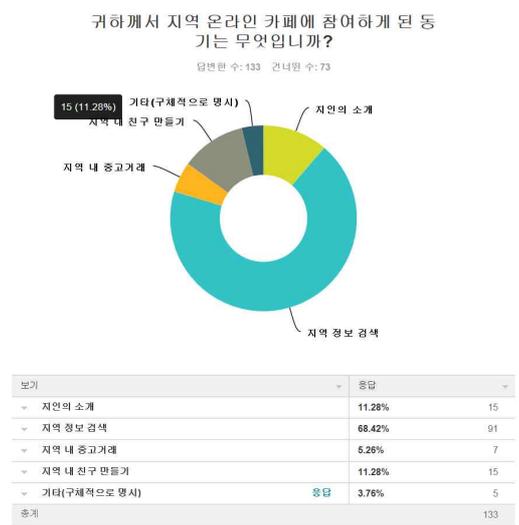
[그림 4-27] 설문참여자 특성1



[그림 4-28] 설문참여자 특성2



[그림 4-29] 설문참여자 특성3



[그림 4-30] 설문참여자 특성4

□ 종합

일동의 사례에서는 낮은 참여 적극성의 온라인 설문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수 참여자가 참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참여계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마을비전 수립과 문제발견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의 약한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주민의 약한 참여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긍정적 기능을 보였다.

한편 오프라인 참여에서의 단계적이고 심층적인 참여를 재현하기에는 온라인 매체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전체 참여자 중 대상 지역인 일동에 해당하는 주민은 소수에 그쳐 일동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를 파악해서 일동지역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하는데 설문자료가 활용되었다. 마을만들기 전체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카드뉴스 등 시각매체를 통해 전달하지 못한 채 설문을 진행해서 설문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이 있어 후속 사례실험에서는 카드뉴스를 통해 상황설명의 구체성을 높였다.

[도시재생 의견] 안산시 마을만들기 기초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전체공개 2016.09.28. 08:49

안산좋은마을(tudd****) 초록사과 ● 11
http://cafe.naver.com/doorkong/1671697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보미 연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저희 센터에서는 **안산의 공동체활동 기초조사**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마을**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해주세요~
설문 내용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드려요!
1등(1명):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등(1명): 문화상품권 5만원
3등(5명): 문화상품권 1만원

* 당첨자는 개별 쪽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안내 후 1주일간 상품 지급을 위한 정보 회신이 없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링크** 클릭~!
 설문 화면으로 고고!!

설문링크 → <https://ko.surveymonkey.com/r/ansanonline2>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설립된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좋은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http://happyansan.or.kr/>

[그림 4-31] 안산시 일동 마을만들기 주민 기초조사 설문 모습

4. 안산시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워크숍

1) 프로젝트 개요

안산시가 주요목표로 설정한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와 마을주민워크숍에서 도출된 핵심의제 ‘도시안전’을 주제로 한 마을공동체 기반의 안전마을 가꾸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주민 참여형의 마을계획 수립 필요가 제기되며, 2015년 안산시 희망마을만들기 ‘마을상상워크숍’과 연계한 참여형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주민역량 및 공동체성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주민참여 단계에서는 문제발견 단계, 대안 제시 단계, 대안 평가 단계에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했다.



[그림 4-32]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워크숍 진행 과정

[표 4-9] 와동 안전마을 프로젝트 개요

	일정	프로그램	목적
마을비전 설정	2016년 6월 20일	• 오리엔테이션	• 마을만들기 소개
	2016년 6월 28일	• 안전마을 Talk Show	• 썬테디(CPTED)관련 강연
	2016년 7월 11일	• 선진지 견학: 서울	• 염리동 소금길, 행운동 안전마을 답사
	2016년 7월 18일	• 선진지 견학: 수원	• 행궁동, 지동 안전마을 견학
	2016년 7월 25일	• 우리마을 안전진단	• 와동 안전점검, 사전답사 지도
문제 발견	2016년 7월 30일	• 마을상상워크숍(참관)	• 마을지도 결과공유회 참관수업
	2016년 8월 8일	• 우리마을 돌아보기	• 현장 안전진단(주간, 야간) • 와동지역 청소년과 함께 안전점검 (2개 조)
대안제시 / 대안평가	2016년 8월 22일	• 우리마을 안전계획1	• 세부사업 발굴(민다라트 기법) • 최우선 과제 실행과제
	2016년 8월 29일	• 우리마을 안전계획2	• 실행사업 기본방향 논의 및 최종 점검
	2016년 9월 27일	• 안전마을 결과 공유회	• 결과 공유



[그림 4-33] 안산시 와동 일대 모습

2) 프로젝트 경과

□ 지역문제 발굴 1차 오프라인 워크숍 (2016.08.05.)³⁵⁾

와동지역을 돌아보며 생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재해안전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도를 출력하여 A2사이즈의 우드락 위에 붙인 후 해당 지역을 돌아보며 해당하는 사항들을 체크했다. (주)링크하우스와 희망마을만들기 추진단에서는 참가자들과 한 조가 되어 각 지점들마다 사진과 함께 링크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gps정보를 입력했다. 참가자들은 공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현장을 돌아보며 각 지점을 정확히 지도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코멘트를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냈다.

와동 안전점검표

생활안전 점검표
 위험한 장소이거나 잠재적 위험 요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 과거 범죄 발생지역
 - 위험을 느낀적이 있는 곳
 - 인적이 드문 곳
 - 어두운 장소
 -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 불법 적치물 (상점, 교통표지)

교통안전 점검표
 교통사고 발생 장소이거나 잠재적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장소 점검
 - 과거 사고 발생지역
 - 교통량이 혼잡한 곳
 - 불법주차 상습 구간
 - 인도가 없는 구간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
 - 교통 표지판이 필요한 곳

재해안전 점검표
 화재, 눈,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해와 관련된 안전 점검
 -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 겨울철 미끄러운 곳 (빙판길)
 - 제설량이 필요한 곳
 - 집중호우 시 침수 침수 지역
 - 산사태발생 가능 지역
 - 긴급차량 진입이 힘든 구간

학생안전 점검표
 위험한 장소이거나 잠재적 위험 요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 통학길 유해요소
 -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 청소년 상습 출몰 장소
 - 불량(유해) 식품 파는 곳
 - 상습 학원폭력 발생 장소
 - 기타 아이들 안전 위험 요소

문제해결 아이디어
 가장 시급한 문제(3개)를 적어주세요.

안전 종합평가
 와동 안전 종합지수
 1 2 3 4 5 6 7 8 9 10점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전특별시

[그림 4-34] 와동 안전점검표

※ 출처 : 마이너스플러스100 제공 자료

와동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 만들기

학부모의 입장에서 통학로를 바라보기
 안전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통학로를 바라보기
 재미있는

발견된 문제들의 해결방안 생각해보기
 통학로 만들기

답사조 편성
 1조: 덕인초 - 디미고 고등학교
 2조: 와동초 - 와동중학교

오늘 일정
 10:00 ~ 10:20 (20분)
 - 오늘 워크숍 프로그램 소개
 - 답사조편성 및 역할분담
 10:20 ~ 11:30 (1시간 10분)
 우리마을 돌아보기 (조별)
 - 1조 덕인초 ~ 디미고 주변
 답사거리: 3.2km(약 50분) 202Kcal
 - 2조 와동초 ~ 와동중 주변
 답사거리: 3.18km(약 48분) 195Kcal
 11:30 ~ 12:00 (30분)
 - 답사내용 정리 및 공유
 - 8.9회차 워크숍 소개 및 일정 조율

역할분담
 답사지도 :
 스티커 :
 사진 1 : (플라보이드)
 사진 2 : (휴대폰)
 메모 :

[그림 4-35] 와동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 만들기

※ 출처 : 마이너스플러스100 제공 자료

35) 마이너스플러스100이 기획 및 운영하고 링크하우스가 지원



▲ 준비사항



▲ 사전 오리엔테이션



▲ 답사모습



▲ 답사모습



▲ 답사 후 정리



▲ 답사 후 토론

[그림 4-36] 워크샵 진행사진
 ※ 출처 : 마이너스플러스100 제공 자료



▲ 링크하우스 위치 재작업



▲ 링크하우스 위치 재작업



▲ 이슈별 태그 기입



▲ 이슈별 태그 기입

[그림 4-37] 링크하우스 맵핑 과정

□ 지역문제 발굴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2016.09.06.)³⁶⁾

1차 워크샵의 결과를 디지털 맵핑으로 기록한 후 이를 안시모 게시판에 게시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들을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는 총 10장으로 구성했고, 와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이유, 참여주체, 참여방법을 예시를 통해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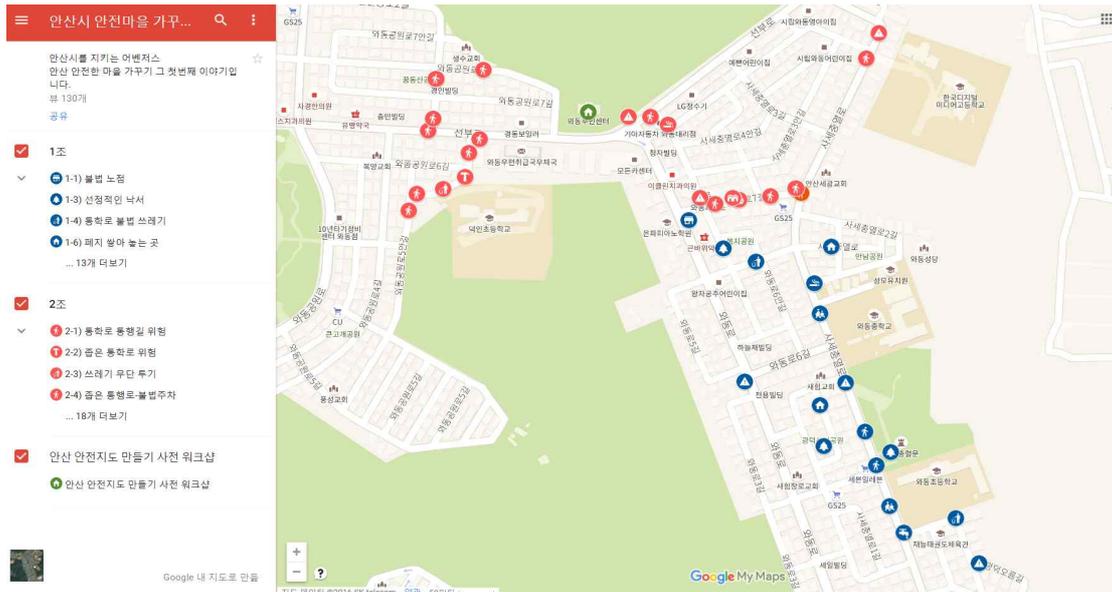
의견수렴은 (주)링크하우스의 링크하우스 앱과 구글지도 두 가지 베이스맵을 구축하여 동시에 받았다. 2016년 10월 20일 기준 총 270건의 조회 수가 생겼고 22건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입력하거나 댓글로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직접 공간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막연한 댓글이라도 써주면 현장지원 인력이 그 지점을 파악해서 공간에 입력해주는 “공간정보특공대”를 조직하였지만 이마저도 참여자가 없었다.

연구진은 입력률을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고 링크가 아닌 해당 게시판에서 바로 지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림 4-38]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카드뉴스

36) 링크하우스 기획 및 실행



[그림 4-39] 와동 안전마을 가꾸기 주민참여 맵

전체적인 내용은 카드뉴스로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참여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된 **구글지도**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링크하우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

댓글 작성 방법은
아~~~~~주 쉬워요.. ^^

[구글지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포인트별 의견을 주실분은

게시물 제목에 **"1-1)"** 요렇게 번호가 달려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번호를 먼저 작성해주시고 의견 카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면 더더더~욱 좋습니다.^^)

예) 1-2) 저 연출투쟁을 붙이 없는 자은 구경단 불만 길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링크하우스 모바일 앱]

링크하우스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만 서비스 되고 있으며 플레이스토어에서 링크하우스 검색 후 설치하면 사용 가능하세요. ^^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단 "마을지도 탭"에서
"안산시 와동 안전마을" 지도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링크하우스 앱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실 경우
해당 게시물 번호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안산을 안전한 마을로 만듭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그림 4-40] 카페의 워크샵 참여 안내 글

□ 세부실행사업 발굴 2차 오프라인 워크샵(2016.08.22., 2016.08.29., 2016.09.20)³⁷⁾

발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7개의 최우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각 최우선과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주민워크샵을 통해 도출해 냈다.

- 학교 앞 대형 주차방지
- 청소년 금연 캠페인
- 음수대 공간 활용
- 쓰레기, 불법적치물 개선
- 초등학교 전면공간 개선
- 담장주변 환경 개선
- 자전거거처대 공간 활용



[그림 4-41] 주민워크샵 과제 발굴
 ※ 출처 : 마이너스플러스100 제공 자료

□ 세부실행사업 아이디어 보완 의견 수렴 (2016.10.13.)

1차 워크샵 후속 작업을 통해 온라인만으로는 직접 제안이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2차 워크샵에서는 새로운 제안보다 기존의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했다. 워크샵에서 제안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명료하게 제시했다. 각 대안에 대한 집행 중요도, 본인의 참여의사를 객관식으로 묻고 마지막으로 해결방법의 효과성에

37) 마이너스플러스100이 기획 및 운영하고 링크하우스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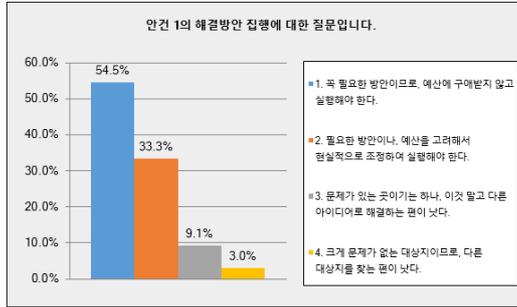
대한 질문과 함께 개인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배치했다.

[그림 4-42] 와동 안전 통학로 디자인 관련 설문조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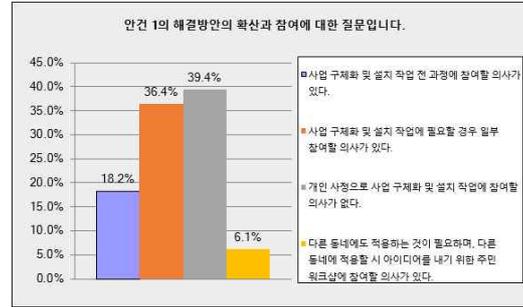
와동 주민으로 응답자가 제한되어 응답 수는 39명으로 적었으나, 참여자는 각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안건 1) 와동 중학교 앞 대형차 주차방지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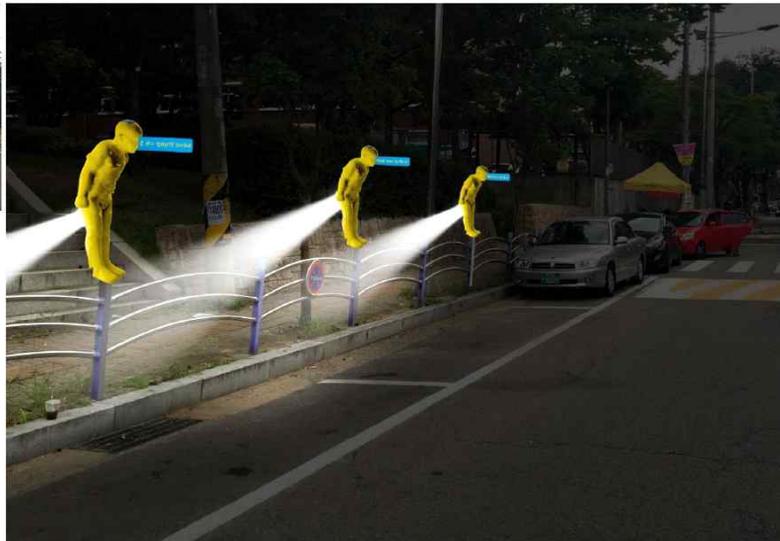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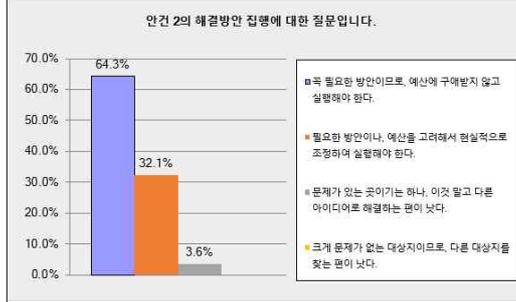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와동의 열악하다는 이미지의 개선은 아이들 교육환경개선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아이들을 위한일이니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동네 살지만 항상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확보도 안되고 무지 위험해보입니다
- 대형차량들이나 취객 불량학생 등으로 인해 설치물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더욱 튼튼하고 파손 우려가 없는 구조물로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
-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파손에 대한 대안 필요.
- 대형차들의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와동 초 근처 주민입니다. 이중주차 단속 꼭 필요하구요...밤길이 너무 어둡습니다..대형차 주차금지 했으면 좋겠어요..인도위에도 주차금지 했으면 좋겠구요..와동 초 옆 열녀문 너무 어둡고 무섭습니다.
- 구조물이 꼭 저런 형태여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밤에 혼자가다 혹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시고 순간 움찔 하실 수도 있을듯해요 구조물 형태 개선은 필요할 듯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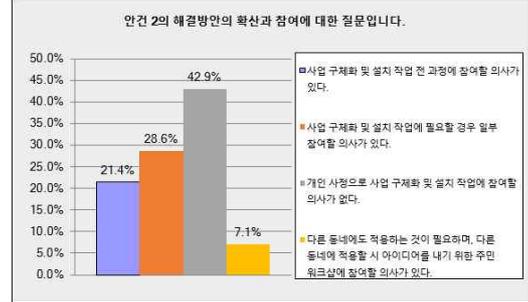


안건 2) 덕인 및 와동 초등학교 전면공간 개선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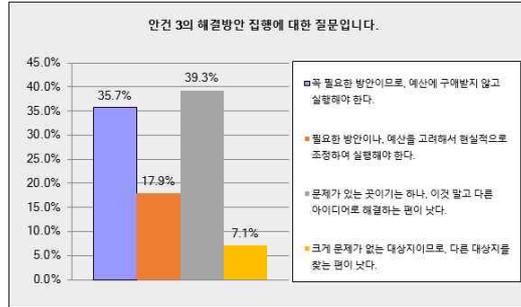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전면공간 개선만으로도 좋은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가시성이 높은 그림과 색채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지관리 방안 고려 필요.
- 학교앞 주차금지 등하고 도우미가 있었음 좋겠네요
- 통학시간에 차량 통행금지하는 방식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인은 골목안에 정문이 있는데 아이들 통학시 도로가 좁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다른 초중고등학교 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많이 적용하면 좋은 아이디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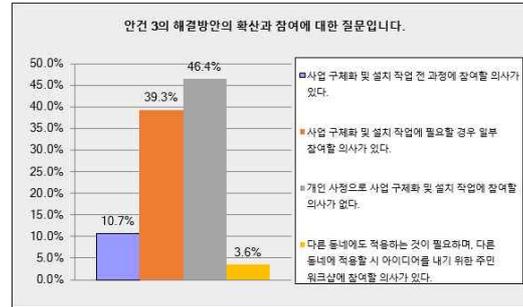


안건 3) 청소년 금연 캠페인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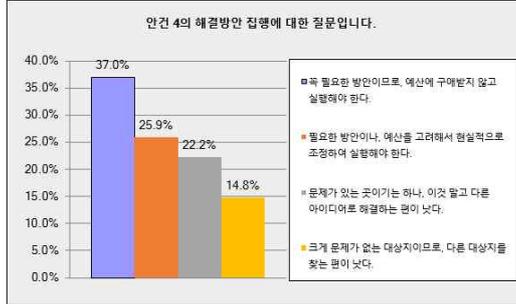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메시지로 아이들이 변할까싶기는 합니다
- 한글로 해주세요...
- 깨진 유리창법칙 이라하여 바닥 외벽에도 진행하면 더욱 좋을듯하다
- 영어로 쓰면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 피면 얼굴 폭망"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즐겨사용하는 재밌는 용어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말로 하는게 더 효과적일 듯
-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일찍 오지도않고 오셔두 바로 피고있는 상황에서 급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아니라며 잡아땀다더군요. 씨씨티비로 실시간확인해서 잡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설치 한다고해도 효과가 많이 없을꺼 같아요 방법대가 순찰을 돌면서 살피는게 좋겠네요
- 문장자체가 짧고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에 메시지를 넣는 것보다 벽면에 메시지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벽면이나 골목주변에 밝은 이미지의 그림이나 메시지를 넣는다면 주변 흡연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이걸 별로 의미 없을듯해요 그냥 보면서 담배 계속 피울 듯 싶어요 이안건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씨씨티비 감시나 신고로 즉각적인 제제가 나올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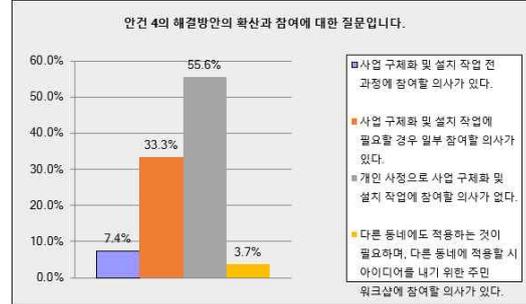


안건 4) 담장주변 환경개선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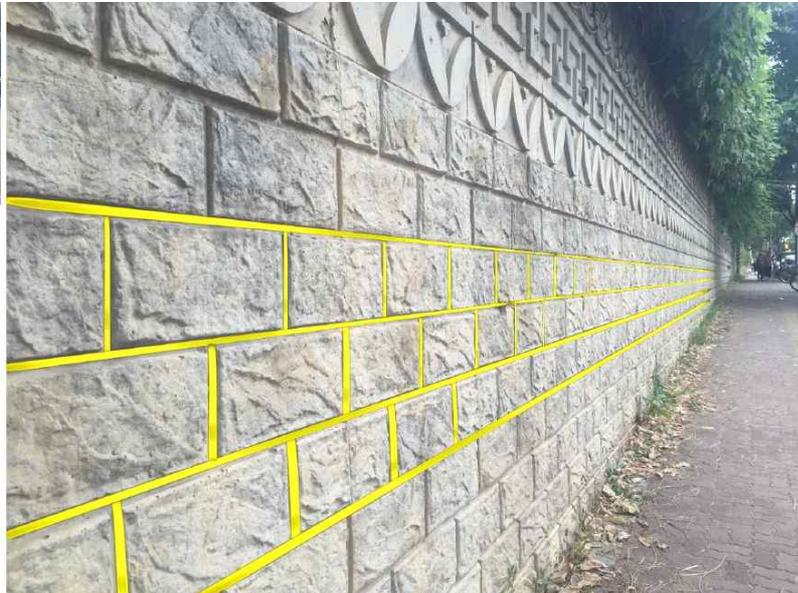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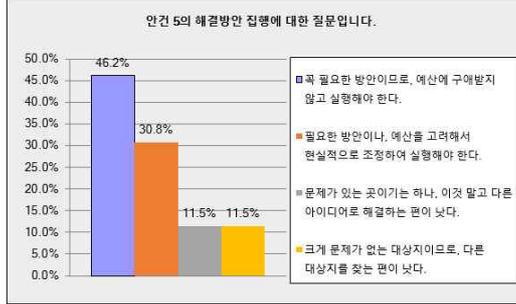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대형차 주차금지 시설물 설치시 밝기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로등을 하나 더 놓아주세요...
- 벽화없는게 더 깔끔해 보임. 가로등 추가설치가 나올 것 같음
- 담장에 칠하게 되는 형광색을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조잡해 보일 우려.
- 야간통행 안전성은 차라리 가로등 증설 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나쁘진 않으나 확 와닿지 않는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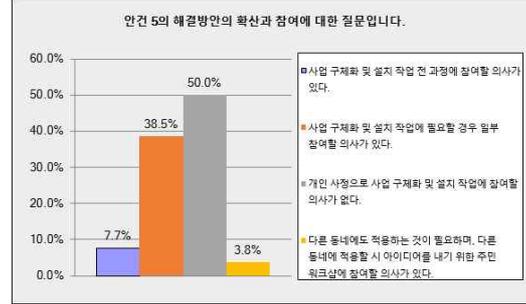


안건 5) 음수대 공간활용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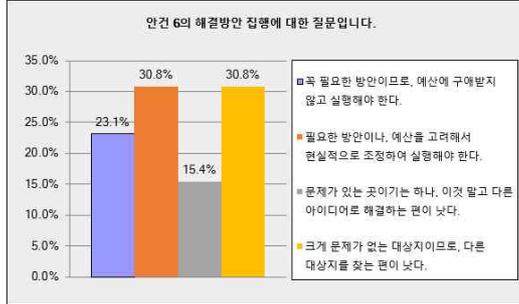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음수대이므로 놀이공간 쉼터 등이 생기면 애완견이나 청결에 더 문제가 생길 듯...
- 음수대는 철거함이 좋을듯하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요즘은 믿고 수돗물을 마시긴 꺼림찍하다. 차라리 정자나 다름 쉼터를 만듦이 좋을듯하다
- 음수대를 철거하고 벤치 설치 등 간단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색상에 대한 고민 필요.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관리만 되도 좋겠어요
- 음수대..이건 사용가능 한 건가요? 여기는 진짜 보수가 필요합니다...음수대 자체도 조금도 친근한 디자인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이긴 한가요 잘못하면 결국은 저기도 쓰레기장 담배 흡연장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길에 저렇게 있다고 해도 사용하는사람 거의 없을거예요 학교 주변이라 전염병 문제도 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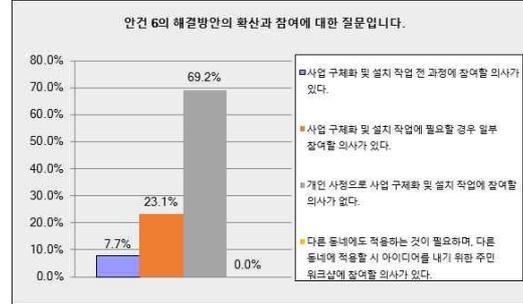


안건 6) 자전거 거치대 공간활용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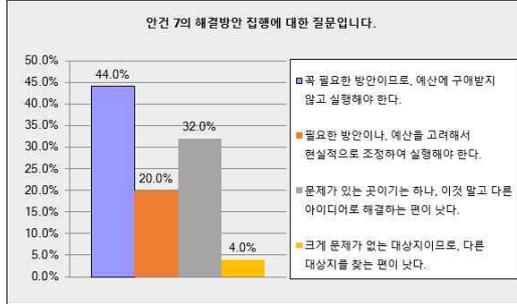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자전거 거치대 사이에 휴식공간이 있다고 설 사람이 있긴할 지 의문입니다
- 휴식공간이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가 검토 필요.
- 간이 의자는 활용이 낮을 것 같고 노란색은 안전메세지 전달이 잘 될것같음
- 이것 또한 간이 쉽터는 쓰레기장 지저분한 곳으로 변질될 것 같아요 굳이 만들어서 안 좋게 되게 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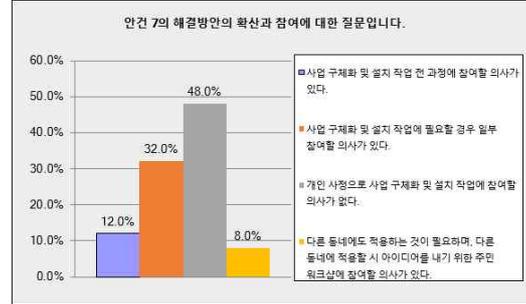


안건 7) 쓰레기 불법적치를 개선

해결방안 집행에 대한 질문



해결방안의 확산과 참여에 대한 질문



덧붙이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싶은 내용 자율 기술

- 와동 지역은 쓰레기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밝은 대낮에도 가져다버리는 사람이 있는 와동에서 설치물이었다고 개선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아파트처럼 버리는곳이 정해지고 관리자가 있다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넓은 지역의 관리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 더지저분해보여요..
- 불법투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벌금도 확실히 물게하고 확실히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 아이디어는 좋지만 cctv 설치가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파손에 대한 대안 필요.
- 좀 다른 내용이지만 거리의 개똥도 인식개선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 쓰레기 버리는곳에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무단투기자들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저런 방법으로는 투기자들 잡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도 않을 듯 싶다.
- 빌라도 아파트단지처럼 구역을 나누어서 재활용분리수거가 되면 좋겠어요
- 저것 때문에 더 더러워 질수도 있을거란 생각은 안하실가요 관광지나 유명지도 아니고 그닥 효과가 없어보여요



안건 7) 쓰레기 불법적치물 개선

개선 우선순위 설문



3) 적용 결과

□ 카드뉴스

카드뉴스를 통해 지난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신규 참여자가 논점을 빠른 시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과정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하여 논의가 온라인 게시판에 축적되어 있었다면 더욱 쉬운 이해가 되었겠지만, 카드뉴스 만으로는 흐름 파악이 어려워 원본에 대한 링크나 질의응답 게시판 등을 통해 카드뉴스 내용 및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뉴스의 긍정적 효과

카드뉴스를 보고 위험한 곳, 보수할 수 있는 곳 등 테마가 있는 와동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와동 주민 J씨〉

마을만들기를 친근하게 설명해주고 홍보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민간 업체 J씨〉

텍스트만으로 마을만들기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카드뉴스를 통해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시 공무원 K씨〉

간단하게 설명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데 용이했다
<민간 업체 K씨>

마을에서 벌어지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홍보하는 계기로 작동했다
<중간지원조직 K씨>

카드뉴스의 한계

카드뉴스라는 매체의 한계라기 보다 카드뉴스의 구성에서 주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
<민간 업체 J씨>

댓글에 구체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카드뉴스 구성이 필요
<중간지원조직 K씨>

□ 디지털 맵

종이지도로 다수의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기록하는 통상의 방법에서는 작업시간의 한계와 보관 공간의 한계로 주요 의견 이외에는 주민의견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맵핑은 다양한 개인 매체 (스마트 폰, pc 등)에서 기록한 정보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맵핑은 워크숍 종료 기간 이후에 새로운 이슈가 생기거나 새로운 참가자가 생겼을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살아있는 지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참여의 한계로 지적되는 책임감 없는 참여를 극복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사전 참가주민 교육과 현장 지원 인력 투입, “공간정보특공대”라는 실시간 지원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지도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은 수월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현장지원인력과 함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구에서 초기에 의도했던 워크숍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링크하우스 앱이나 카페 댓글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는 행태는 찾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친숙하지 않는 앱의 UI/UX문제, 지속적인 교육의 부족으로 파악했다. 또한 워크숍 중간 단계부터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형 주민참여 기법을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충분한 교육시간을 갖지 못 했던 것도 한계였다.

디지털 맵의 긍정적 효과

카드뉴스를 보고 위험한 곳, 보수할 수 있는 곳 등 테마가 있는 와동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와동 주민 J씨>

지역의 이슈를 DB화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로 마을 돌아보기를 소개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
<민간 업체 J씨>

여러 주민참여 방법 중 매우 효과가 큰 방법이었다. 내가 지도 상의 위치를 찾지 않아도 앱에서 자연스럽게 위치가 표시되는 점이 좋았다.
<주민 S씨>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분들이 디지털 맵을 접하고 참여를 선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활동가 C씨>

이슈지역을 공간좌표로 표기해 주어, 현장에서 주민과 전문가 간 상호 공감을 높일 수 있었다.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산시 공무원 K씨>

디지털 맵의 한계

워크샵이 끝난 후 디지털 맵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주민 S씨>

워크샵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 이후에는 기존의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 업체 J씨>

디지털 맵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대다수여서 실질적 활용이 저조했다. 디지털 맵의 효과와 편의성에 대해 주민에게 인지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산시 공무원 K씨>

디지털 맵이 익숙하지 않아 헛갈렸다. 결국 네이버 맵으로 다시 확인했고, 거리뷰로 재차 확인해야 했다.
<주민 S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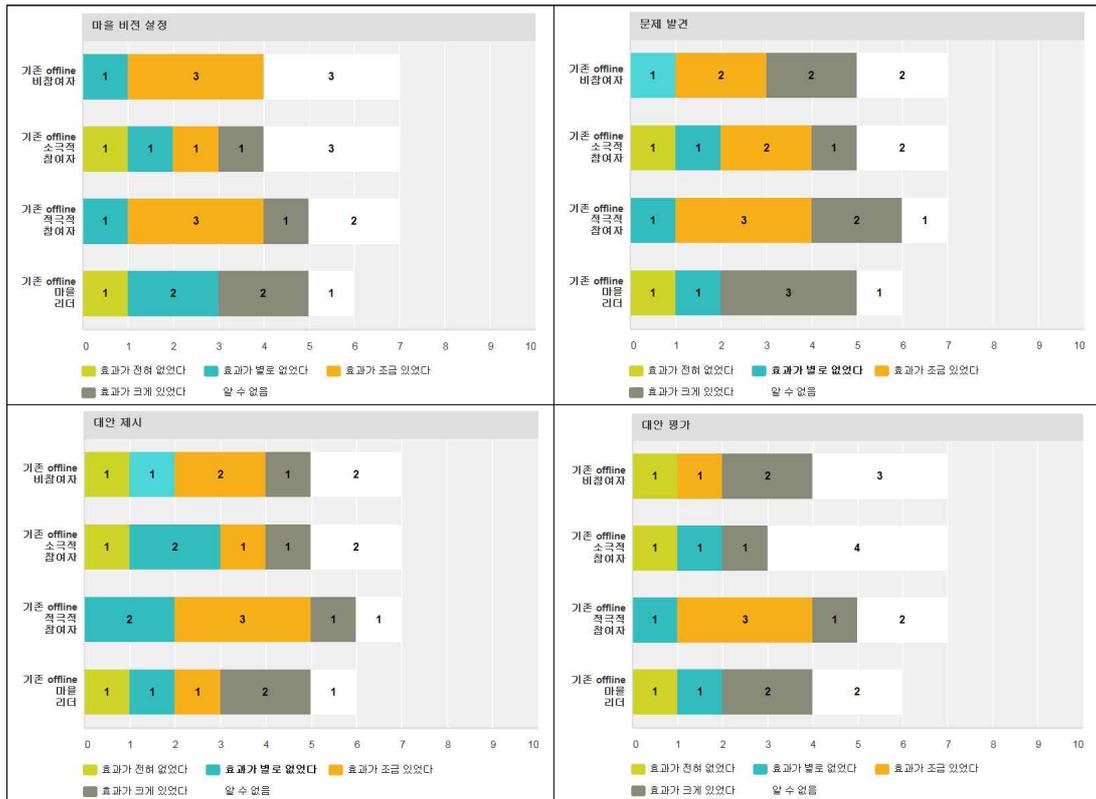
확산성이 없어 결국 오프라인 지도와 병행하여 이중 작업을 해야 했다. 한번 워크샵을 진행하고 나면 다시 이슈를 업데이트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 K씨>

□ 시각적 매체 활용

워크샵 참여자 이외의 폭넓은 주민참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설문지나 스티커를 붙이는 폼보드를 활용할 경우 지면의 한계로 충분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어렵다. 반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자유롭게 많은 양의 이미지를 간편히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각적 매체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5. 분석 종합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용형 주민참여 과정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 인한 효과이며, 두 번째는 디지털 툴의 특징으로 인한 효과이다. 카드뉴스, 온라인 설문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익숙한 방법이고 진입 허들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반면 디지털 툴 측면에서는 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미흡, 경험 부족, UI/UX 등 편의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상만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사항을 해결할 경우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4-43] 참여단계 및 참여 적극성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

각 단계별 및 참여자의 참여 적극성별로 구분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를 묻은 설문에 대한 결과는 [그림 4-43]과 같다.

소극적 참여자

기존 offline 소극적 참여자(1,2회 교육때 나오다 그룹핑된 구성원들 속에서 다소 소외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판단하에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창구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본인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한편으로 본인이 노출되거나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적극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의 경우 이미 오프라인에서도 전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했다. 또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카페나 sns가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

〈민간 업체 J씨〉

저는 일하고 육아하느라 동네 굴러가는일에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역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고 나서 카페에서 안산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사항 예를 들면 학교 앞 지킴이 이런거 참여하시고, 안산 도시개발 쪽에서 진행하는 것을 공유해주니 수영장이라던지 공원이용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대자보나, 팸플릿 등은 내가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지역카페의 경우에는 입장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사람들이 모이는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보들이 많이 퍼지는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원구나 상록구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유아 상대로 진행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제가 신청하고 좋은 정보의 경우에는 카페에 올려서 공유 했었거든요 ^^ 그리고 민원 신청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도 공유를 해주시니까 일처리 하는 부분에서 댓글들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적극성도 있더라고요 ^^

〈주민 C씨〉

제5장 결론

1. 요약
2. 공공정책과의 연계방안
3. 후속연구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국가 사업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조한 주민참여, 특히 과잉대표성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연계형 주민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했다.

연구 결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를 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는 참여자의 수 못지 않게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중요하다. 참여 계층이 폭넓게 나타나지 않으면 Bachrach & Baratz(1962)의 “비결정(nondecision)” 또는 Schattschneider(1960)의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현상이 구조화 될 우려가 있다.³⁸⁾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오프라인 참여에서 배제되기 쉬웠던 젊은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방법임이 드러났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모든 논의가 글의 형태로 기록되고 지역조사 및 지역이슈 논의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 디지털화되어 남겨짐으로서 아카이빙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38) 이승종(2014),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박영사, p.245.

트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도시재생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대부분의 댓글은 “힘내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등의 단순한 응원이 많았다. 반면 오프라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미 선정된 제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객관식 설문은 매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얇은 수준의 참여를 폭넓게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 단계별로 보면 마을비전 설정과 대안평가 단계에서 큰 보조적 역할이 가능하고, 문제발견, 대안 제시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 맞는 활용방법론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참여주체의 적극성 분류별로 보면 기존의 적극적 참여자는 굳이 온라인에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 온라인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반면 소극적 참여자와 오프라인 비참여자는 정보의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손쉽게 간편한 정보획득 수단인 일상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취득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 특히 온라인 지도상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워크숍 전에 디지털 맵핑과 커뮤니티 맵핑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전 과정에 현장지원 인력이 함께 하며 디지털 맵핑을 도와준 것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의 기입 오류 수정을 하는 역할도 현장 지원인력이 담당했으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큰 효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 높은 효과

- 기존 오프라인 참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젊은 여성 등)의 유입

기존 오프라인에서 참여가 어려웠던 젊은 여성, 젊은 부모, 직장인, 학생 등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참여의 대다수를 이루는 소극적 참여자는 오프라인 활동의 참여도와 상관관계가 없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프라인 참여에서 공백이었던 참여층이 온라인에서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주민 홍보 비용 절감

기존 주민참여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였으나 효과가 미비했던 부분이 지역 내 주민홍보였다. 대체로 비슷한 계층이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행사 후 결정사항이 반영된 후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행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곤 했다. 오프라인에서의 리플렛, 홍보전단, 배너 등의 방식은 도달성이 높지 않고 특히 젊은 계층에게 전달이 어려웠다. 반면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잘 갖추어진 지역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많은 주민에게 홍보가 가능했다.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생각지 못했던 홍보 효과와 이를 통한 새로운 계층의 유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도정보 아카이빙 축적

오프라인 주민참여에서 많은 주민참여 기획자들이 곤란함을 표현했던 부분이 다수의 주민참여 워크숍 결과물인 지도들의 보관과 정리였다. 지역문제 발견부터 해결방안 제시, 지역현황 정리 등 많은 양의 지리정보 기반 데이터가 도출되지만 이를 정리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어려워 창고에 쌓아놓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지리정보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나 지역자산, 지역 개선 아이디어들을 정리할 수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거나 지도 간 병합할 수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 마을비전 설정, 대안평가 단계

마을비전 설정 등 주민참여의 초기단계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얇은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문제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낮은 단계의 폭넓은 참여가 유리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인 마을비전 설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지역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대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디벨롭먼트 과정에서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대안 제시 과정보다 이미 정리된 아이디어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추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부분은 비교적 낮은 혹은 비교적 높은 중간 단계의 참여에 해당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하기 적합한 참여방식이었다.

- 소극적 참여

오프라인에서의 주민참여에 나서기 어려운 소극적 성격의 참여자나 일상이 바빠 참

여가 어려운 참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극적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온라인에서의 적극적 참여자들은 대체로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 참여자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소극적 참여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참여경향과 무관하게 다수 발생했는데 이들은 오프라인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담당자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안 평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직업인으로 바쁘거나 고학력 주부인 주민들이 소극적 참여자가 되는 경향이 높은 것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극적 참여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낮은 효과

- 지역 문제점 발굴, 문제에 대한 대안 제안

지역 문제점 발굴이나 지역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안 등의 단계에서는 여러차례의 독려와 시각적 이미지 제공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거의 없었다. 깊이있는 토론과 상호 아이디어 소통을 통해 도출되는 지역문제점 발굴, 지역문제에 대한 대안 제안 등의 단계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공공정책과의 연계방안

1)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의 연계 (중앙정부-주민)

도시재생특별법 제29조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낮은 접속률이 지적되어 있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교류 게시판, 사업 게시판 등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온라인 커뮤니티와의 링크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도시재생 사업 카테고리에 지역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는 경우 링크를 달고,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도시재생 게시판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보 교류의 가교를 만들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재생 지역에서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신뢰성·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검증·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 2. 이미 개발·검증·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의 활용가능 여부
 - 3.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주민의견수렴 기능의 연계 가능 여부
- (신설)**

또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조 중 교류마당 부분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링크 페이지를 추가해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간의 원활한 상호 소통 (Seamless communication)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시재생사업 페이스북 페이지, 밴드와의 연계 (활동가/전문가-주민)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참여자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기존의 참여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연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의 투명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나 의견수렴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그림 5-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개선안 제안

3) 도시재생사업과의 MOU 체결(지방정부-주민)

2016년 9월 기준 21개의 지자체가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중 20개 기관이 경찰서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안전하고 안심되는 마을을 만드는데도 큰 기여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주요한 주민참여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체결을 통해 별도의 게시판 신설과 공지사항 공지 등의 역할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과의 정기적 오프라인 미팅을 개최하여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후속연구

실제 도시재생사업지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한 후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보다 다양한 참여방법을 개발하여 의견제시 단계에서도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용 툴킷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수 외(2012), 「도시와 권리」, 라움.
- 김보흠(2005),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의 유형분석: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15.
- 김은란 외(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주락(2012),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동이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남양주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주현(2012), 「한일 양국의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변창흠(2012), “새로운 사회모델과 도시비전”, 「창작과 비평」, v.40 n.1.
- 서수정·윤주선·심영선(2015),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윤주선·심영선(2016),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URI BRIEF」, n.133.
- 서진완·박준수(2010), “사이버공동체의 정책참여와 정부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정보학회지」, v.13.
- 윤주선(2008), 「아파트 사이버공동체를 통한 주민 준전문가의 마을만들기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주선·정일지(2014), 「온·오프라인 융합형 마치즈쿠리의 가능성 : 일본지역 SNS 사례연구」, 서울연구원.
- 윤주선(2015), ““지역SNS”를 활용한 주민참여 마을재생의 재구축”,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8~33.
- 이승중·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 이승중(2014),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박영사.
- 이영은·장옥연(2012),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 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 연구」, 도시재생사업단.
- 이자성(2013), “일본 지방정부의 지역SNS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v.16 n.2.

- 정성규·문건주·유길준(2015),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실태조사 연구 - 부산광역시 산북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논문집」, v.17 n.5.
- 클라우드 산업연구소(2013), 「공유경제 “서울, 공유 경제를 만나다”기념 연구 보고서」, 서울특별시.
- 최재문(2015),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융복합화로 스마트서비스 프레임워크 연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중심으로-”, 「디자인융복합회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강현수 외(2011),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아카데미.
- 홍경구 외(2015),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과제”, 「도시정보」, v.395.
- 홍성구(2009),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 和崎宏(2009), 「地域SNSによる地域情報化に関する研究」, 兵庫県立大学大学.
- 田中 秀幸(2012), 「国・自治体による地域SNS : 施策とその効果の検証」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106, 83-104.
- 庄司 昌彦(2008), 「第15回 地域SNSの5類型と発展の方向性 (月刊『広報』連載コラム 「人をつなぐ」地域SNS ~各地の地域SNS活用術)」.
- 庄司 昌彦(2009), 「地域SNSの動向と将来像 (特集 地域SNSとまちづくり)」, 季刊まちづくり (24), 52-57, 学芸出版社.
- 谷口枝里 외(2011), 「地域SNSがまちづくりに及ぼす効果」, 日本建築学会 近畿支部研究発表会.
- 金川幸司(2011), 「ネット社会とコミュニティ・ガバナンスに関する研究-ローカルネットコミュニティの比較分析から」経営と情報 : 静岡県立大学・経営情報学部/学報 23(2).
- 近藤崇宏 (2010) 「地域SNS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支援 -鶴ヶ島市地域SNSタウンチップを事例として-」, 東京大学都市工学修士論文.
- 岡本健志, 田中秀幸 (2009) 「地域SNSのユーザー同士のつながり方に着目したネットワーク分析」, 日本社会情報学会学会誌 21(1).
- 일본총무성(2010), 「第1부 特集 ICT의利活用による持続的な成長の実現」 「平成22年版 情報通信白書」.
- 勝浦 信幸(2010), 「新しい公共」と人のつながり, 地域主権戦略大綱 第10回研究会.
- 安田, 信之助, 勝浦, 信幸(2010), 「新しい公共」に向けた地域ICT活用に関する一考察 : 首都近郊・大都市近郊自治体の今後の展開方向, 城西大学大学院経済学研究科.
- Abram, Simone A. "Planning the Public: Some Comments on Empirical Problems for Planning Theor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9, no. 4 (2000): 351-57.
- Arnstein, Sherry(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 Planning Association, Vol.35 No.4.
- Bachrach & Baratz(1962),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December).

- Carolyn J. Lukensmeyer, Lars Hasselblad Torres(2006), Public Deliberation: A Manager's Guide to Citizen Engagement,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 Campbell Richard(2000), Media and culture : an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Bedford/St. Martin's.
- Eliahu Sernet et al.(2009),Web-based and traditional public participation in comprehensive planning: a comparative study,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009, volume 36, pp.1067~1085.
- Frances Cairncross(2001), The death of dist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Gartner(2008), Gartner's Hype Cycle Special Report for 2008, The Gartner.
- Hirschman(1970), Excerpt from Chapter Eight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 Lawrence Lessig(2009), Remix :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Books.
- Luciana Burdi(2003), An Interactive Web-based System in the Urban Design Approval Process: CollABITA,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Lynn Mandarano et al.(2010), Building Social Capital in the digital Age of Civic Engagement,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November 2010 v.25 no.2.
- Maarit Kahila et al.(2009),Soft Gis as a Bridge-BUILDER in Collaborative Urban Planning , Planning Support Systems Best Practice and New Methods, Geojournal Library, v.95.
- Melvin Webber(1963), "Order in Diversity: Community without Propinquity." Cities and Space.
- Milbrath(1965),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Milbrath & Goel(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Bost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University Press of America.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Touchstone Books by Simon & Schuster.
- PwC(2014), Pricewaterhouse Coopers Global Annual Review 2014.
- Rheingold, Howard(1993),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Verba & Nie(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Wellman, Barry, Anabel Quan Haase, James Witte, and Keith Hampton(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no.3.

William Mitchell(1999), E-topia: Urban Life, Jim-But Not As We Know It, MIT Press.

국토교통부(2013),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2013.12.31.

국토교통부(2016),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6.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6.1.

고롯토얏치로, <http://www.gorotto.com>

네이버 포털, <http://cafe.naver.com>

넥스트도어, www.nextdoor.com

스트리트라이프, <http://www.streetlife.nl/en/>

The Role of Neighborhood Online Community in Urban Regeneration

Yoon, Zoosun
Park, Sungnam
Park, Seokhw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urban planning project in various aspects, however specific business model was not organized, thus various issues were reported during the project. Because of the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type business entity, it requires frequent collaboration with various specialists of culture, economics, urban architecture, welfare, tourism, and art. However, finding business entity and collaborations are difficult due to the limit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managing coordinator, and organization for urban regeneration suppor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diverse business entity, it requires frequent meetings with various ent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organize a meeting due to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Fundamental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is finding core contents by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ce. However, establishment of competitive business theme is difficult in reality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time and space, and most of the participants are senior citizens and housewives instead of the residence with specialty and executive ability. In th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code, which was informed on December 31, 2013, one of the five goals for urban regeneration is <fostering competitive local residenc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lso, one of the five promotion strategies is <Promoting independent regeneration based on local resources in collaborations with local residences, communities,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country's core urban regeneration policy was informed as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ce participation plan>. However, residenc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is 'participation for participation'. Also, actual urban regeneration was managed by a few specialists as same as existing urban planning, and simila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repeated in diverse local area.

Urban regeneration is the plan to revitalize the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declined area (Article 1,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It requires short/long term participation of various specialists in economic, community, space, and environment. However, the specialists don't aware of local issues, and local entities are also having difficulties to find and hire specialists, thus organization of business entities are delayed.

On-line has been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decrease the space limit, and it has been divided into local-centered community since late 2000. The characteristics of previous on-line demonstrates non-physical aspects which broke the geological limits (Excluding international geological limit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and didn't have common issues with urban architecture. However, local-centered on-line community emphasizes on the connection with the geological space, thus collaboration with urban and architecture area is important. Especially, urban regeneration requires collaborations with diverse entities, so it became a center of attention. O2O and ubernization appear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multiple contents and small suppl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mall contents and massive supply'. This service, such as Uber, Kakao Talk, Baedaltong, Brat village, Siren order of Starbucks, Jikbang, provide multiple contents directly to the consumer, and increased efficiency and diversity. O2O can connect small batch manufacturer with small consumers and business entities regardless of on-line and off-line, and has a potential in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model which include continuous small business by various entities' governance.

In this study, local based on-line platforms were searched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ferences, and redefined as a field for the loc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discussion, based on the residence participation of local city and region level. local based on-line platforms was studied national-wid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rs and management systems.

Local based on-line community highly contributed to create new entities which did not participate in the off-line community. Through the local based on-line community, young woman and young generations became new entities which were previously excluded in the off-line community. In some cases, small funding could bring participation of the large group. Every discussion was recorded and it can be overlapped on the map, thus digital archiving became familiar as a side effect.

However, there was a limitation to discuss and deduct conclusion through the on-line discussion for complex urban regeneration process. Most of the comments were cheering and supports, such as “Good job” and “Cheer up”. However, the opinions on the off-line workshop results were more specific and realistic comments and participation, and showed implication about application plan for the local based on-line participation tool.

Keyword: Urban regeneration; On-line community, Local SNS

부록. 설문조사

산사모 카페 사용자 설문

1.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질차 혁신의 일환으로서 지역 온라인 카페 활용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선생님의 고견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윤주선
(044-417-9844, zsyoon@auri.re.kr)
<http://www.auri.re.kr/aboutAuri/purpose.asp>
<설문은 총 15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 카페 활동 이전에 다음 지역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전히 없음	희유으로" 간헐적 활동	희유으로" 적극 활동	완전히 활동
동장, 수리지치위위, 통계표 등 직능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농시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음악, 스포츠, 문화 등 지역 동호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시민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2.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카페 활동 이전에 거주지역의 다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공상회
- 스미찾아 워크숍
- 지역축제
- 반상회
- 지지채 설문조사
- 지지채 어워즈
- 스미찾아산재드(지역회의)
- 지방자치서기(시장, 시의원 등)
- 지역 문제에 대해 이웃과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3. 귀하께서 지역 온라인 카페활동 이전에 지역 오프라인 단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관심이 없었다.
- 니해서 참여할 시간이 없었다.
- 으르러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
- 관심이 있었으나, 내기 굳이 나서서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다.
- 내성적 성격이라 으르러야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 참여를 해도 별달라 나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 지역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다.
- 지역단체의 우선권이 나와 잘 맞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 지역활동을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 기타(→채적으로 명시)

* 4.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 카페 활동 이후에 다음 지역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합의한 적 없음	희박으로 가끔적 활동	희박으로 적극 활동	강력으로 활동
회장, 스키치치위위, 동대표 등 직능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봉사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읍면, 스포츠, 문화 등 지역 동호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시민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5.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카페 활동 이후에 거주지역의 다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해당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공설회
- 스키잡이 워크숍
- 지역축제
- 바살회
- 지지제 실무주최
- 지지제 기획제기
- 스키잡이(의산제트(지역회회))
- 지방자치서비스(시장, 시의회 등)
- 지역 문제에 대해 이웃과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6. 지역 온라인 카페에 참여한 이후, 동네 인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해당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예) 같은 연령, 다른 연령 모두 증가한 경우 모두 체크)

- 같은 연령대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다른 연령대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같은 성별의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다른 성별의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같은 동네(아파트단지, 통 등)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다른 동네(아파트단지, 통 등)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같은 직종의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다른 직종의 네트워크가 증가했다.
- 변화가 없었다.

* 7.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른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공무원에게 찾아가거나 민원전화, 민원 이메일 등으로 의견 개진
- 관련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
- 같은 이슈에서 지방정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업체 활용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
- 지방정부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음

* 8. 귀하께서는 다음 각 주민조직이 전체 주민의 다음 각 항목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살표를 눌러서 답변해주세요)

	지역의 여론을 대표한다	지역 내 연령을 고르게 대표한다	지역 내 성별을 고르게 대표한다	지역 내 직업을 고르게 대표한다
통장 협의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민자치위원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지역 온라인 카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지역 시민단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지역 신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9. 귀하께서는 다음 각 주민조직이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다	약간 전문성이 없다	조금 전문성이 있다	매우 전문성이 있다
통장 권익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스미지치위원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따르 읍수지대표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온라인 카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시이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10. 귀하께서는 다음 각 주민조직이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다	약간 가능성이 없다	조금 가능성이 있다	매우 가능성이 있다
통장 권익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스미지치위원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따르 읍수지대표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온라인 카페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지역 시이단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의 정보 취득이나 지역 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실제 지역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생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 적당히 영향을 미친다	실제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	☆

* 12.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귀하의 역할은 어떻게 되십니까?

- 카페 운영자 (매니저)
- 카페 보조운영자 (보매니저)
- 카페 운영자 (소액)
- 현재 카페 운영자 (소액)이며, 과거 카페 운영자(매니저) 혹은 보조운영자(보매니저) 경험 있음
- 일반 회원
(자유 응답을 써주세요)

* 13. 귀하의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는 광고수익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까?

- 1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광고수익 없음

* 14. 귀하의 지역 온라인 카페 운영진은 카페 관리에 대한 어느 수준의 활동비를 받고 계십니까?

- 크나소 명시적이며 활동비 없음
- 실나 수주미 활동비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 기타(특수이나 역산에 따라 다른 경우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15. 귀하의 지역 온라인 카페가 담당하는 지역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1개	2개	3개 이상	해당 없음
이피리 단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행정 동 (대. 삼정동, 스격동, 반양 1동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행정 구 (대. 구악구, 풍구, 강남구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행정 시 (대. 바동시, 순천시, 구산 시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행정 도 (대. 경기도, 경상북도 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귀하의 지역 온라인 카페는 가입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해당하는 답변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아실다 기능
- 해당 지역 수미다 기능
- 기타(←채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17. 귀하의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식/비공식 오프라인 모임을 어느 정도 빈도로 개최하십니까?

	1주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지 않는다
공식 오프라인 모임 (장기 회의, 공식 이벤트, 니콜시상 등)	<input type="radio"/>				
비공식 오프라인 모임 (번개, 스미일, 스미우일 등)	<input type="radio"/>				

* 18.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 카페 운영진으로서 행정(시청, 구청 등)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평균 어느 빈도로 접촉하십니까?

	1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기회 하지 않음
비공식적으로 직접 만남	<input type="radio"/>				
공식 회의를 통해 직접 만남	<input type="radio"/>				
전화 통화	<input type="radio"/>				
이메일	<input type="radio"/>				
문지	<input type="radio"/>				

* 19.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 카페 운영진으로서, 다음 지역 단체와 평균 어느 정도로 만나십니까?

	1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적혀 있지 않음
스머치위원회	<input type="radio"/>				
동장	<input type="radio"/>				
이미르 입수지 대표회	<input type="radio"/>				
이미르 보너회	<input type="radio"/>				
지역 내 시민단체	<input type="radio"/>				
지역 내 농민단체	<input type="radio"/>				
기타 직능단체(노동조합, 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농민회, 새마을보너회, 작.산지 농민회 등)	<input type="radio"/>				

* 20.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한 지역 주민의 지역이슈 참여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1.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이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카페에 추가 혹은 강화되어야 할 기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22. 귀하의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명과 개요를 모두 적어주세요 (봉사활동, 정기적 오프라인 모임, 베품시장, 스포츠 동아리, 취미 모임,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 23. 귀하께서는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어느 정도로 활동하십니까?

	1일 1회 이상	1주일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기회 있지 않는다.
게시물 작성	<input type="radio"/>				
댓글 달기	<input type="radio"/>				
게시물 읽기	<input type="radio"/>				
지역 온라인 카페 방문	<input type="radio"/>				

* 24. 귀하께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지역의 소개
- 지역 정보 검색
- 지역 내 종교기관
- 지역 내 취미 활동기
- 기타(→제적으로 명시)

* 25. 귀하의 현재 지역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26. 귀하는 주로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머무르십니까?

- 하루 종일
- 낮시간
- 저녁시간
- 수면시간

기타

27. 귀하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성공으로 참여
- 실패는 아니지만, 수단적으로 참여
- 못 지어 줘서 한 번 참여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했다 있음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한 적이 없음

* 28.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남
- 여

* 2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고등학교 졸업
- 석사 졸업
- 전문대학 졸업
- 박사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답변하지 않음

* 30.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기준)

- 10세 미만
- 30대
- 60대
- 10대
- 40대
- 70대 이상
- 20대
- 50대

* 31.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회사원
- 자영업
- 학생
- 기타

32. 귀하의 가정 월 평균 가계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 구성원 세전 소득의 총 합)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초과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답변하지 않음

33. 상품 추천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당첨 시 쪽지로 안내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11